

# 프로그램

시 간	일 정
14:00~14:10	개 회 식
발표 사회 : 정순우(한국학중앙연구원)	
14:10~14: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 표1 : 김자운(공주대학교),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li> <li>· 지정토론1 : 조준호(실학박물관)</li> <li>· 지정토론2 : 김경용(한국교원대학교)</li> </ul>
14:50~15: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 표2 : 최광만(충남대학교),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li> <li>· 지정토론1 : 박종배(동국대학교)</li> <li>· 지정토론2 : 김대식(조선대학교)</li> </ul>
15:30~15:50	휴 식
15:50~16: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 표3 : 송민선(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 제례 조사연구 개황概況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li> <li>· 지정토론1 : 김경선(성균관 석전교육원)</li> </ul>
16:30~17: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 표4 : 정승모(지역문화연구소), “한국서원의 제향의례”</li> <li>· 지정토론1 : 지두환(국민대학교)</li> <li>· 지정토론2 : 김문준(건양대학교)</li> </ul>
17:10~18:00	<p>종합토론</p> <p>사회 : 이해준(공주대학교)</p>
18:00~20:00	만찬





# 목차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제3차 워크숍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

제 1 발표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	1
지정토론1 .....	47
지정토론2 .....	49
제 2 발표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	53
지정토론1 .....	81
지정토론2 .....	84
제 3 발표   서원 제례 조사연구 개황概況 .....	87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	
지정토론1 .....	99
제 4 발표   한국서원의 제향의례 .....	103
지정토론1 .....	122
지정토론2 .....	124
종합토론 .....	127



## 제 1 발표

#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김 자 운 • 공주대학교



##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

김 자 운(공주대학교)

### I. 서론

### II.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

1.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분류 기준
2. 서원별 강학 자료 현황

### III. 서원별 강학 관련 자료와 특징

1. 소수서원
2. 도산서원
3. 병산서원
4. 도동서원
5. 옥산서원
6. 돈암서원

### IV. 결론

## I. 서론

이 글에서는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을 분류하고 각 서원별 강학 자료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II장에서는 먼저 분류 기준을 제시하고 규약류, 강학 시행 기록, 강학 재정, 강학 의례의 4가지로 유형을 분류한 뒤, 유네스코 등재 대상 서원을 중심으로 서원별 강학 자료 현황을 정리해보았다. III장에서는 서원별 강학 관련 자료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각 서원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중 소수서원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강학 관련 자료가 시계열적으로 분포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자료의 양도 많아 서원 강학 연구의 좋은 사례가 된다. 반면, 그 외 서원은 자료가 매우 한정되어 있어 연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III장에서는 소수서원을 모델로 삼아 소수서원의 강학 사례를 전 시기에 걸쳐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그 외 서원은 자료의 목록과 해제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간략히 정리하였다.

## II.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

### 1.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분류 기준

이하에서는 서원 강학 관련 자료를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크게 규약류·강학 시행 기록·강학 의례·강학 재정 관련 자료의 네 가지로 유형화해 보았다. 규약류와 강학 시행기록은 강

학의 규범과 실재를 기준으로 구분한 것이다. 원규, 완의, 절목 등 규약류 자료는 강학 운영을 위한 규칙이며, 강학 시행 기록은 실제 전개된 강학활동에 대한 기록이다. 규약류가 강학의 규범적 측면을 드러낸다면, 강학 시행 기록은 강학의 실제적 측면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서원 의례라고 하면 흔히 제향 의례만 떠올리지만, 정음례庭揖禮나 상음례相揖禮 같은 정식적正式的 의례부터 경독敬讀, 개접례開接禮, 파접례罷接禮, 수창시酬唱詩, 지례摯禮 같은 관습적 의례에 이르기까지, 서원에서 행해진 강학 관련 의례는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의미와 특색을 보여주는 중요한 대목이다. 따라서 강학 의례 관련 자료도 별도의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조선시대 서원 강학의 존폐를 좌우했던 가장 큰 계기는 바로 각 서원의 재력이었다. 조선 후기 서원의 강학 기능이 한 때 쇠퇴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양사청, 강수청, 강학계 등 강학을 위해 설치된 별도의 재정 기구들은, 강학의 부활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던 조선후기 서원들의 다양한 시도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유형별 자료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규약류에는 원규院規, 학규學規, 강규講規, 절목節目, 완의完議, 입의立議 등이 있다. 원규가 상위 규범이라면, 절목, 완의, 입의는 강학이 개설될 때마다 형편에 맞게 만든 중간 단계의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절목, 완의, 입의는 규범과 실제의 중간적 성격을 가진다. 원규는 강학 뿐 아니라 서원 운영 전반에 걸친 규약으로, 강학활동이 체계화되지 못했던 초기 서원의 규약은 대부분 원규 안에 강학, 제향, 서원의 관리와 운영에 대한 규정 등을 모두 포괄하고 있었다. 강학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거나(백운동서원원규) 있더라도 매우 추상적인 수준에서 규정되었다. 강학 조직의 정착과 함께 원규 안에 강학에 대한 규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기 시작한 것은 17세기(도동서원원규道東書院院規), 원규 외에 학규學規, 강규講規, 강의講儀 등으로 서원 규약이 분화되는 것은 18세기(석실서원石室書院 학규學規·강규講規·강의講儀)부터이다. 이를 분석해보면, 서원관의 변화, 서원 강학의 정착 과정, 강학의 형태와 운영 방식, 교육과정의 변화 등을 파악할 수 있다.

규약류 자료 중 완의完議와 입의立議는 강학과 관련된 주요 정책 결정, 절목節目은 실제 강학의 개설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강학의 시행 세칙으로, 규범과 실제의 양면적 성격을 갖는 규약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 서원 설립 초기에 제정된 원규는 한 번 제정되고 나면 거의 바뀌지 않지만, 절목은 실제 강학의 전개 과정에서 제정되는 규범이므로 강학의 실제 모습과 변화상을 반영한다.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거재절목居齋節目 12개는 그 좋은 예이다.

원규 중 처음으로 서원 교육의 이념을 제시함으로써 후일 여타 서원 규약의 전범이 된 것은 퇴계의 이산원규伊山院規와 율곡의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이다. 최초의 원규인 백운동서원원규에서는 강학에 대한 규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주세붕을 포함한 당시 지배층들의 서원관, 즉 서원을 도학처道學處나 강학처講學處보다는 과업지소科業之所나 존현지소尊賢之所로 인식했던 당시의 서원관을 반영한다. 이는 16세기 소수서원의 실제 강학이 과거공부 위주로 이루어진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이후 서원이 강학처이자 도학처로서 그 본령의 지위를 획득하게 된 것은 퇴계와 율곡에 의해서였다.<sup>1)</sup> 퇴계는 이산원규에서 서원 교육의 본질은 과거공부가 아닌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있음을 역설함으로써 서원의 교육 이념을 제시하였고, 율곡은 「시정사학도示精舍學徒」에서 ‘입지立志와 존심存心은 비록 타인을 바라보기만 해서

1) 주세붕과 퇴계의 서원관의 차이에 대해서는 정만조의 논의 참조(정만조, 『朝鮮時代 書院研究』, 1997, 집문당, 23-47쪽).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여택麗澤의 힘을 통해서 점차 아름다운 경지에 들어갈 수 있으니, 정사의 설립은 구차한 것이 아니라 장수藏修하여 서로 인仁을 돕는 그 실상을 보고자 함이다.’<sup>2)</sup>라고 함으로써 여택지력麗澤之力<sup>3)</sup>이라는 서원의 강학 이념을 제시하였다. 이후 이산원규는 백운동서원원규와 함께 대체로 영남 남인계, 은병정사학규는 서인계 서원 원규의 모델이 되었다. 도산서원원규는 이산원규를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옥산서원원규는 백운동서원원규와 이산원규를, 돈암서원과 무성서원원규는 은병정사학규를, 병산서원은 소수·도산·천곡서원 원규를, 도동서원은 천곡서원 원규를 저본으로 작성되었다.

둘째, 강학 시행 기록은 실제 강학에 대한 기록으로, 다시 형태와 내용의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거접居接<sup>4)</sup>, 거재居齋<sup>5)</sup>, 통독通讀<sup>6)</sup>, 순제巡題(旬製)<sup>7)</sup>, 백일장白日場 등 강학의 형태에 따른 자료는 거접록居接錄, 거재록居齋錄, 통독안通讀案, 순제방목巡題榜目과 백일장방목白日場榜目이 있다. 이를 자료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시 구분하면, 강학 참여자의 명단 위주로 기록한 강안講案류, 강학 기간 중 매일의 일과를 날짜별로 기록한 일기류, 강학 시 토론과 문답 내용을 상세히 기록한 강록講錄류의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형태에 따른 분류는 강학 형태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만 자료의 성격을 드러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같은 통독이라 하더라도, 병산서원의 통독안에는 참여자의 명단 외에 다른 정보가 전혀 없지만, 소수서원의 통독일기에는 매일 출입한 사람의 인원수와 명단, 통독의 순서, 통독한 서책의 범위, 심원 유생이나 수령의 방문, 날씨로 인한 통독의 중단, 매일의 사건 사고 등 특기 사항이 모두 기록되어 있다. 즉, 같은 통독이지만 통독안과 통독일기는 자료의 성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자료의 성격을 보다 잘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고자 한다. 그 중 소수서원의 거재잡록居齋雜錄과 거재록居齋錄은 강안과 일기가, 강소잡록講所雜錄은 강안, 일기, 강록의 세가지를 모두 포함한 종합적인 자료이다. 그 중 강소잡록에 수록된 강록일기는 일기와 강록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각 서원의 강학 시행 기록을 내용을 기준으로 다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강학 시행 기록의 분류

분류	강안류	일기류	강록류
소수	講案, 居齋講案, 榜目, 居齋錄(1721~1760)	講錄日記, 居齋日記, 通讀日記	講錄日記

2) 『栗谷全書』권 15, 雜著.

3) 『周易』, 兌괘 象傳에 “붙어 있는 澤이兌이니, 君子가 보고서 朋友들과 講習한다(象曰 麗澤兌 君子以朋友講習)” 하였고, 傳義에 “麗澤은 두 못이 서로 붙어 있는 것이다. 두 못이 서로 붙어 있어 서로 적서주니, 서로 滋益함이 있는 象이다. 그러므로 군자가 그 象을 보고서 봉우들과 강습하니, 봉우들과 강습함은 서로 유익하게 하는 것이다(麗澤二澤相附麗也 兩澤相麗 交相浸潤 互有滋益之象 故君子觀其象而以朋友講習 朋友講習 互相益也)”라고 하였다.

4) 거접은 일정기간 서원에 유숙하며 과거 대비 제술을 행하는 것으로, 고려시대 夏課에서 유래하였다. 夏課는 최충의 문헌공도에서 시작되어 나중에 12도 전체가 매년 여름철 더위를 피해 조용하고 청량한 山寺나 누대에 모여 詩賦 製述을 겨루던 일종의 私學 하계학교로 가을철에 접어들면 과하였다. 이 하과의 풍속이 뒷날 서원의 거접으로 전승되었다고 한다(정순목, 『韓國 書院教育制度 研究』, 11쪽, 76쪽, 1979,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민족문화총서 3).

5) 거재는 거접과 대비되는 강학 형태로, 위기지학으로서의 독서를 의미한다. 거재 시에는 일정 기간 서원에 유숙하며 대부분 개별 독서를 행하였으나, 소수서원의 경우 독서와 통독, 제술을 병행하기도 하였다.

6) 통독은 유생이 한 자리에 모여 하나의 교재를 정하여 한 장씩 읽어나가며 심도 있게 토론하는 강학의 형태로, 거재 중에 병행되기도 하고 ‘통독회’라는 이름으로 별도로 시행되기도 하였다.

7) 순제에 대한 설명은 각주 41~43 참조.

도산	講會錄	講會日記	淸涼講義, 淸涼吾山堂講錄
병산	居齋案, 講案	*	*
도동	居接錄	*	*
옥산	入學記, 講紙, 講案	*	*
필암	講案, 文契案	*	*

셋째, 강학 의례에는 정읍례庭揖禮, 상읍례相揖禮, 강습례講習禮와 같이 홀기를 갖춘 정식적正式的 의례와 그 외 경독敬讀, 개접례開接禮(입접례入接禮), 파접례罷接禮(후접례後接禮, 귀가례歸家禮), 수창시酬唱詩 등 강학 절차에서 관습적으로 행해지는 의례, 그리고 돈암서원의 전신 정회당靜會堂에서 확인되는 지례摯禮 등이 있다. 정식적 의례는 소수, 필암, 무성서원에 별도의 기록이 있으나 나머지는 규약이나 강록 등 각종 자료에서 산견散見되는 내용을 발췌하여 정리하였다.

넷째, 각 서원의 강학 재정 마련을 위해 설립된 기구로는 소수서원의 양사청養士廳, 돈암서원의 학계學契, 필암서원의 강수청講需廳 등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자료는 이들 기구를 설립하면서 작성한 서문序文이나 기문記文, 운영 과정에서 작성된 완의完議나 절목節目 등이 있다. 남계서원의 경우는 별도의 재정 기구는 확인되지 않지만, 16세기에 원장 강익姜翼이 강학 개설을 위해 자금을 마련한 기록이 부보록褒寶錄에 남아 있다.

## 2. 서원별 강학 자료 현황

유네스코 등재 대상 서원을 중심으로 유형별 강학 자료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서원별 강학 자료 현황

분류	규약류	강학시행 기록	강학의례	강학재정
소수	院規·斯文立議·完議(5)·居齋措置·居齋定規·居齋節目(9)·通讀節目	居齋雜錄·居齋錄·通讀雜錄·講所雜錄	庭揖禮笏記(開接禮·罷接禮·酬唱詩)	養士廳 관련完議·養士廳別有司명단(任事錄)
도산	院規	講會錄·講會日記·淸涼講義·淸涼吾山堂講錄	(庭揖禮)	*
병산	院規·院中可行條件	居齋案·講案	*	院中可行條件

분류	규약류	강학시행 기록	강학의례	강학재정
도동	院規・育英齋完議・節目	居接錄	(後接禮・歸家禮)	*
옥산	院規・乙亥完議・立議	山堂居接膳錄・入學記・講紙・講案	(入接禮・罷接禮)	甲午立議
돈암	靜會堂立議・講規・節目・上同春堂[己酉] (明齋遺稿)	*	(摯禮・相揖禮・酬唱詩)	鳩財節目・學稷節目
필암	院規	講案・文契案	相揖禮圖・相揖禮笏・講座圖	講需廳記
무성	院規	講經錄	講習禮節目・講習禮執事・講習禮笏記	*
남계	院規	*	*	哀寶錄

### Ⅲ. 서원별 강학 관련 자료와 특징

#### 1. 소수서원

소수서원은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강학 자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어, 조선시대 서원 강학 연구에 좋은 사례가 된다. 설립 초기부터 17세기 중반까지는 강학에 대한 별도의 기록은 없지만 소수서원등록紹修書院謄錄과 잡록류雜錄類에 수록된 기사를 통해 간략하게나마 강학의 개설 사실과 대강의 흐름을 살필 수 있다. 특히 잡록류에는 서원 운영에 관련된 각종 기사가 망라되어 있어 시기별 강학의 개설, 수령의 강학 참여와 지원 등 강학에 대한 내용 뿐 아니라, 등록에 수록된 재정 관련 규정인 사문입의斯文立議의 조항이, 실제 현실에서 이행되는 과정을 생생하게 살필 수 있다.

17세기 중반부터 19세기까지는 거재잡록居齋雜錄, 거재록居齋錄, 통독잡록通讀雜錄, 강소잡록講所雜錄 등에 강학의 전말에 대한 기록이 매우 상세히 수록되어 있어, 강학의 다양한 형태와 절차, 구체적 운영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외 2007년 소수서원에서 간행한 소수서원지紹修書院誌에 수록된 입원록入院錄, 임사록任事錄, 연표 등도 참고하였다. 이하에서는 관련 자

료를 위에서 분류한 유형별로 구분하고, 그 중 강학 시행 기록은 수록 시기에 따라 다시 잡록류, 거재잡록, 거재록, 강소잡록으로 세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 1) 대상 자료

먼저, 대상 자료의 수록 시기와 소장처, 수록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표 3> 소수서원 대상 자료

제목	수록 연대	내용	소장/간행처
紹修書院謄錄	1546~1669	安珪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서원의 경제 기반 마련을 위해 작성한 順興文成公廟白雲書院斯文立議 <sup>8)</sup> 와 실제 물품 조달 및 서원 운영을 위해 관찰사와 경상도내 각 고을에서 수발한 공문서를 등서한 白雲洞加造成及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行移謄錄 <sup>9)</sup> 으로 구성.	국사편찬위원회
雜錄 <sup>10)</sup>	雲院雜錄	1545~1615	소수서원
	雜錄a	1625~1678	국사편찬위원회
	雜錄b	1667~1720	국사편찬위원회
	雜錄c	1712~1718	국사편찬위원회
	雜錄d	1720~1759	소수서원
	雜錄e	1759~1832	소수서원/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雜錄f	1794~1798	국사편찬위원회
	雜錄g	1799~1900	국사편찬위원회
	雜錄h	1826~1827	소수서원(박물관)
	雜錄i	미상	소수박물관
	雜錄m	미상(19세기)	*
居齋錄(入院錄) <sup>11)</sup>	1721~1760	1721년부터 1760년까지 거재 참여자의 명단.	소수박물관
居齋雜錄	1761~1780	1761년부터 1780년까지 시행된 居齋, 居接, 巡題, 白日場에 대한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居齋錄	1780~1793	1780년부터 1793년까지 시행된 居齋, 通讀에 대한 기록.	국사편찬위원회
雲院居齋 題名	1792	1792년 11월 한 달간 거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으로 『雲院齋錄』에 수록.	소수박물관
通讀雜錄	1801	1801년 通讀에 대한 기록.	소수박물관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	1813~1815	1813년 1월 5일부터 3월 9일까지 묘우 중수 기사와 1815년 3월과 8월의 巡題榜目 기록.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에 수록.	소수서원
講所雜錄	1826~1828	1826년부터 1828년까지 시행된 巡題, 居接, 通讀, 文會에 대한 기록.	소수서원/ 朝鮮時代嶺南書院 資料

8) 이하 「斯文立議」로 약칭.

9) 이하 「分定行移謄錄」으로 약칭.

10) 잡록류 중 운원잡록, 잡록e, 강소잡록은 『소수서원 잡록』이라는 제목으로 2005년 영주시에서 번역, 간행하였다.

11) 이 거재록은 서원지에 ‘표지 결락으로 입원록으로 추정’하여 입원록이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었으나 이는 잘못 추정한 것이다.

## 2) 규약류

규약류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표 4> 소수서원 규약류 목록

제목	연도	내용	수록처
院規	1543	謹祀·禮賢·修宇·備廩·點書의 5개 강령 하에 제향, 조직과 운영, 입원 자격 규정	竹溪志 晦軒先生實記 海東雜錄
順興文成公廟 白雲書院斯文 立議	1547	경상감사 安珪이 서원의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실제적 운영방침을 규정. 상시 공제유생을 10명으로 정함	紹修書院謄錄
完議	1690	거제유생의 자격과 공제에 대한 규정	雜錄b
完議	1700	거제유생의 자격과 공제에 대한 규정	雜錄b
堂中完議	1719	罷格 확정(科擧入格者 기준으로 하던 입원 자격을 없애기로 정함)	雜錄b
居齋措置	1720	11월 10일부터 윤번 거제를 시작하기로 함	雜錄d
居齋定規	1727	거제에 대한 규정. 10명씩 1개월 단위로 윤번 거제하기로 함.	雜錄d
居齋節目	1730	제정상 거제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약간의 식량을 마련하여 10명씩 보름 단위로 수개월간 윤번 거제를 시행하기로 함	雜錄d
居齋節目	1738	부사 임상정이 작성한 거제에 대한 규정(제목은 거제절목이나 실제 내용은 거제)	雜錄d
居齋節目	1749	거제에 대한 규정. 15명씩 보름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雜錄d
院中完議	1759	강학을 위한 제정을 별도로 배정하고 폐지되었던 居齋를 재개하기로 함	雜錄e
居齋節目	1760	거제에 대한 규정. 20명씩 보름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雜錄d
居齋節目	1761	거제에 대한 규정. 10명씩 보름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居齋雜錄
居齋節目	1780	거제에 대한 규정. 10명씩 보름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居齋錄
完議	1788	향중에서 선출하던 원임을 道內로 확대. 폐지된 養士廳을 복설, 가을부터 제정을 따로 책정하여 거제를 재개하기로 함.	雜錄e
通讀節目	1789	통독에 대한 규정	居齋錄
居齋節目	1790	거제에 대한 규정. 10명씩 열흘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居齋錄
居齋節目	1793	거제에 대한 규정. 10명씩 열흘 단위로 교체하기로 함.	居齋錄
居齋節目	1900	거제유생의 인원 제한을 없애고 小學 이상을 읽은 자와 양식을 지참하는 자만 거제하도록 함.	貞山先生文集

그 중 원규는 주세붕이 지은 것으로, 『회헌선생실기晦軒先生實記』 권4 부록의 사원祠院 편 소수서원紹修書院 조에는 ‘원규院規’라는 제목으로, 『죽계지竹溪志』의 죽계지잡록竹溪志雜錄 권5에는 ‘죽계지잡록후竹溪志雜錄後’라는 제목으로, 『해동잡록海東雜錄』3의 본조本朝 3, 주세붕周世鵬 편에는 ‘백운동소수서원입규白雲洞紹修書院立規’라는 제목으로 수록되어 있다. 내용상 약간의 출입이 있으나 대체는 같다. 임원 선발 및 춘추제향에 대한 두 가지 조항에서 회헌선생실기에 없는 세주가 죽계지에 추가된 것과, 죽계지의 원규 서두에 서문이 수록된 것을 제외하면 두 원규의 내용은 모두 같다<sup>12)</sup>. 세주의 추입 시기는 알 수 없으나 세주 외에 두 책에 수록

12) 원장 선발 규정 중 ‘멀리 살면 형편상 서원을 자주 돌볼 수 없으므로 5리 이내 거주자로 한다’는 대목에서

된 원규는 주세붕이 지은 원문이며 해동잡록의 내용은 이를 간략히 정리한 것이다.

서두에 ‘근사謹祀, 예현禮賢, 수우修宇, 비름備廩, 점서點書’의 5개 강령을 제시하고 이하에서는 이 5개 강령에 대한 설명 및 임원 조직, 수령 자제에 대한 경계, 활쏘기와 잔치에 대한 경계, 수직守直의 부세 면제, 입학 자격, 입원록入院錄의 작성과 의미 등에 대하여 상술하고 있다. 서책 점검에서는 수령 자제들이 멋대로 책을 서원 밖으로 유출시키는 것을 금하고, 재계일에 헌관이 서책을 점검하고 햇빛에 말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 1759년 원중완의院中完議에는 ‘관가에서 시도 때도 없이 빌려가 돌려주지 않는 것’을 서책 유실의 원인으로 꼽고 있다. 서책 관리가 중시된 것은 유실에 대한 염려 뿐 아니라 당시 서적의 생산과 유통이 매우 제한적이었기 때문이다. 주세붕은 서원 건립 후 장서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자금이 부족하여, 때로는 돈이 있어도 조선에서 미처 간행되지 못했거나 유통이 되지 않아 원하는 책을 끝내 구하지 못하고 남의 책을 빌려 수십권씩 전사하거나, 청탁과 기증에 의존하거나, 관리들에게 서적의 간행을 촉구하기도 하였다<sup>13)</sup>.

임원은 원장과 원이院貳 각 1인으로 서원의 일을 주관하게 하고, 재정 및 제향 담당으로 사마유사司馬有司와 유사有司를 두었으며, 제향일은 문묘 석전일과 겹치지 않도록 3월과 9월의 上丁日로 정하였다. 강학에 대한 조항은 없고 입원자격만 명시하였는데, 사마시 입격자를 1순위, 초시 입격자를 2순위로 하고 입격자가 아니라도 학문하고자 하는 마음과 操行이 있는 자는 사문斯文에 품의하여 맞아들인다고 하였다. 이 같은 과거 입격자 위주의 입원 자격은 17세기 초반부터 약 100년에 걸쳐 소수서원 유생 뿐 아니라 영남 전역에 걸쳐 대대적인 논쟁을 불러일으켜, 파격罷格과 구례舊禮의 회복을 거듭하다 결국 1719년 1월 5일 파격으로 마무리되었다.<sup>14)</sup>

유생의 정원은 사문입의斯文立議에서 처음 규정하였다. 10명을 정원으로 사시사철 공제하되, 결원이 생기면 본읍이나 인근읍의 유생들로 빈자리를 채우도록 하였으며, 혹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성심껏 공제하도록 했다. 이 때 10명의 정원에 대해 윤희면은 ‘상주 유생의 정원이 아니라 거점 유생의 수이며, 총원이 아니라 거점기간에 수용할 수 있는 인원’<sup>15)</sup>, 즉 윤번 교체 인원으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윤번 교체 거점은 소수서원의 경우 18세기 초반 무렵부터 확인된다. 이는 서원 재산의 침탈, 양란, 흉년 등으로 서원의 재정난이 심각해진 반면, 거점 인원은 상대적으로 많아 수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윤번 거점이 시행된 18세기 이전에도 거점 인원의 증가로 인한 재정난은 여러 차례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나 실제로 윤번 교체를 시행하지는 않았다. 1547년에는 ‘고을의 서원에 상시 숙식하는 유생을 10명으로 정하였지만 원근에서 소문을 듣고 온 이름 있는 유생이 수십 명에 이르러 음식에 쓸 식염食鹽을 마련할 길이 없다’<sup>16)</sup>고 하였는데, 이 때에도 윤번 교체를 시키지 않고 관찰사가 인

죽계지에는 마을 이름(이하 원문의 밑줄 친 부분)까지 명시하였으나 회현선생실기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須以大平內外竹內外東五里人爲之可也). 또 춘추제향일은 季月 상정일로 하되 사유가 있으면 中丁일로 바꾼다는 조항에서 사유를 명시한 細注도 죽계지에만 수록되어 있다(上丁有故改卜中丁有故者如國諱私諱之類).

13) 『晦軒先生實記』 권4 부록, 祠院, 紹修書院 條, 「與牧使安瑋承旨安瑑書」 및 「與安斑然書」. 여기서 주세붕은 『朱子全書』와 『朱子語類』를 아직도 구입하지 못해 자나 깨나 갈망하고 있고, 『綱目』은 사고 싶으나 책값이 비싸 구입하지 못하고 있으며, 『二程全書』는 3년 전 관찰사에게 간행을 청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여 백발이 다 되도록 구하지 못하다가 한 번 빌려본 후 잠을 못 이루고 있으니 간행을 주선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다.

14) 이 논쟁의 경과 및 이를 둘러싼 영남지역 향론의 추이는 「소수서원 罷格論爭」(윤희면,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집문당, 2005) 참조.

15) 윤희면, 「서원교육의 전개와 효과」, 같은 책, 353쪽 각주 15.

16) 嘉靖 26년 2월 18일, 在醴泉, 「白雲洞書院加造成及讀書儒生常養雜物分定行移膳錄」(이하 「分定行移膳錄」으로 약칭).

근 고을에 식염 마련 대책을 주선해주었다. 이후 17세기 초반까지도 유생 수와 서원 재정에 대한 문제가 여러 차례 거론되었으나<sup>17)</sup>, 윤번 거접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즉, 초기에는 10명을 넘더라도 윤번시키지 않았으며, 후기로 가면서 점차 거접 인원이 증가하여 재정난을 겪게 되자 18세기 무렵부터 차선책으로 윤번 교체 방식을 택하게 된 것이다. 초기에는 10명을 초과하더라도 숙식을 제공하였으나<sup>18)</sup> 이후 서원 재정이 열악해지면서 입원록에 등록된 유생과 거접(혹은 거재)유생을 구별하여 거재유생은 입원자에 한하여 공궤하고 입원하지 않은 자는 양식을 가져와서 거재하도록 하다가(1690 완의完議), 1700년의 완의完議, 1720년의 거재조치居齋措置와 1727년 거재규정居齋定規에서는 1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교체하는 윤번 교체 거재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원은 대개 10명을 기본으로 하되 기간이 길 때는 대체로 10명의 규정을 따르고, 짧을 때는 인원수를 15명(1749), 20명(1760)으로 늘리기도 하였다. 교체 간격도 18세기 초반에는 1개월 간격(1720, 1727)으로 하다가 점차 보름(1730, 1749, 1760, 1761, 1780), 열흘(1790, 1793)로 줄어들고 있다. 다만, 1789년 통독절목에는 인원수를 규정하지 않았는데, 당시 재정이 부족해 서원에서 숙식 제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때 통독에 매일 적게는 26명에서 많게는 110명까지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다.

거재 혹은 거접 유생의 선발은 사문입의斯文立議에 ‘상주훈도와 협의하여 불리와 거접하게 하라’고 한 것을 보아, 초창기에는 경상도 전체를 대상으로 하였던 것 같다.<sup>19)</sup> 이후 18세기 초에는 원임의 임의대로 뽑다가 18세기 중반 이후 면훈장으로 하여금 선발하도록 하였다. 1727년에는 ‘매월 유사를 뽑을 때 원임의 이목이 미치지 못하여 한쪽에서 소외되었다는 탄식이 있을까 걱정되니, 이후로는 각 서당과 동네洞內에 통고하여 마을의 자제 중 제술과 통독이 가능한 자를 뽑도록(거재정규)’ 하였으며, 1749년에는 ‘거재유생은 각 면 서당에서 책자로 만들어 서원에 보낸다(거재절목)’고 하고, 1789년에는 ‘각 면의 훈장은 해당 면의 유생 중 강의講義에 참여할 만한 자를 모아 삭망朔望으로 훈련시키고, 통독할 때 데리고 와 응강應講하게 한다’고 하였다.

제생은 연령에 따라 동몽, 관자冠者, 노유老儒로 구분되었다. 초기에는 정확한 연령을 명시하지 않았으나 1749년 거재절목에 따르면, 동몽은 15세 이상, 관자는 40세 이하, 노유는 4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몽에게는 숙식을 무료로 제공하지 않고 양식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만 입재를 허락하였다.<sup>20)</sup> 그러나 18세기 중반에, 동몽은 사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거재에 부적합하므로 집에서 공부하도록 하고 다만 제술과 강독에 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일반 유생과 함께 입재를 허락하였다.<sup>21)</sup> 1605년에 풍기군수 노경임과 윤길이가 속공 암말

17) 1607, 1610, 1615년 기사(『雲院雜錄』).

18) 안현은 서원유생의 공궤를 위해 경상도 지역의 漁基 3곳을 확보하여 매 년 2250동음의 물고기를 서원에 분상하게 하였는데, 그 중 10명 유생의 1년 반찬거리로 720동음을 배정하고, 나머지는 다른 어물과 바꾸어 정원 외의 유생에게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嘉靖 25년 10월 27일, 在永川, 「分定行移膳錄」).

19) 거접 유생 선발을 풍기훈도가 아닌 상주훈도에게 맡긴 이유는, 참여 대상으로 풍기군이 아닌 경상도 전역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당시 상주는 1596년 대구로 옮기기 전까지, 경상도의 관찰사령이었으므로 경상도 전 지역을 아우르는 상주의 훈도에게 유생 모집을 맡긴 것으로 해석된다.

20) “동몽제 일에 있어서는 애당초 어린이로서 학문에 뜻을 두고 있으나 공부를 할 곳이 없는 자들을 위하여 설립한 것인데 공적인 양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양식을 부담하는 이는 받아들이고 공적인 양식을 쓰는 것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雲院雜錄』, 1607); “동몽은 타관과 본관을 물론하고 양식을 가지고 와서 숙식한다.”(1700년 완의).

21) “동몽으로서 아직 사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학사에 있더라도 학령을 따르지 않고 여럿이 모여 멋대로 놀면서 분란만 일삼을 뿐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날마다 과정을 공부시켜 조금 자라 학문을 지향하기를 기다렸다가 모두 입재하게 하는 것이 무방하다. 그러나 강독과 제술, 경독과 통독 등에 능숙한 동몽은 거재하는 일

1필, 식모 옥복玉卜과 재직齋直 5명, 식량, 백지 등을 동몽재에 보냈다는 기사에 따르면, 이 무렵 동몽재가 건립되어 동몽도 거재에 참여시키다가 18세기 중반 무렵부터 재능이 뛰어난 동몽은 예외로 하고 동몽 거재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sup>22)</sup> 참고로 1810년 11월의 거재에는 23일간 총 85명이 참여하였는데 그 중 동몽은 4명으로 2명은 시부詩賦 제술에도 참여하였다.<sup>23)</sup>

노유老儒는 모든 교육과정과 평가에 젊은 유생들과 똑같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학습수준이 각기 다른 모든 유생들이 한 자리에 모여 공부하는 통독 시간에 신진 유생들에게 어렵고 의심나는 부분을 함께 풀어주고 토론해주는 안내자 역할을 하였으며, 공부 시간 뿐 아니라 여가 시간에도 젊은이들과 함께 시를 읊으며 선행의 본보기가 되었다. 따라서 노유에게는 배강背講이나 제술은 하지 않더라도 경독敬讀과 통독通讀에 참여하여 제생들과 함께 토론하도록 하였으며, 보통 정원이나 나이에 구애하지 않고 예우함으로써 교육의 본보기로 삼았다.<sup>24)</sup>

교육과정은 거재 시 독서는 소학小學과 사서삼경四書三經 중 각자 수준에 따라, 통독은 보통 심경心經, 근사록近思錄, 주자서절요朱子書節要를 기본으로 하였다. 그 외 통독 교재로는 소학과 삼강이륜행실도三綱二倫行實圖(1730년 거재절목), 혹은 소학과 퇴계집을 추가하고(1749년 거재절목), 1789년 통독절목에는 대학-논어-맹자-중용의 순으로 통독하도록 하였다. 1730년에 삼강이륜행실도를 넣은 것은 그 해 경상도감영에서 이륜행실도<sup>25)</sup>가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기록에는 확인되지 않지만, 당시 감영을 포함하여 인근 서원, 향교에서 서적이 간행되면 으레 소수서원에도 한 부씩 보내는 것이 상례였으므로, 이 때 간행된 이륜행실도 역시 소수서원에서 소장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서적의 간행과 유통이 서원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강학 시행 기록과 비교해보면, 절목에 없는 교재를 통독한 것은 1826년의 통감절요(4편), 절목에 규정된 통독 교재 중 가장 많이 읽은 것은 퇴계의 주자서절요이다. 통독을 행했던 열 한 번의 거재 중 1763, 1766, 1780, 1790, 1793, 1801, 1826년 총 일곱 번의 통독에서 주자서절요를 읽었다.

### 3) 강학 시행 기록

#### (1) 소수서원등록紹修書院謄錄·잡록雜錄·거재록居齋錄(1546~1760)

소수서원에서는 설립 이후 19세기까지 비록 성쇠가 있긴 하였으나 꾸준히 강학을 시행하였다. 설립 초기부터 18세기 중반까지는 강학에 대해 상세히 기록한 단행본 자료는 없으나 소수서원등록과 잡록류, 거재록 등에 산견散見되는 기사를 종합해보면 당시 강학의 성격과 대강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반 유생과 더불어 입재하도록 한다.”(1761년 거재절목).

22) 1730년 동몽재를 중수하여 ‘學求齋’로 이름을 바꾸면서 작성한 원우수리기사에는 ‘동몽 거재는 지금 이 규정이 없어진지 이미 오래되었다’고 하고 또, ‘동몽재가 본부 복설 전인 정사년(1677)에 창건’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소수서원지』876~877쪽). 그러나 운원잡록에 세 차례나 동몽재에 물품을 보낸 기사가 있는 것으로 보아 1605년에 이미 동몽재가 건립되었음을 알 수 있다(『雲院雜錄』, 1605).

23) 1810년 거재일기.

24) 1760, 1761, 1780, 1790, 1793년 거재절목.

25) 이륜행실도는 長幼有序와 朋友有信의 二倫을 권장기 위해 모범이 될 만한 인물 48명을 뽑아 그 행적을 삼강행실도와 같이 그림과 기사, 시의 형식으로 설명한 책으로, 兄弟, 宗族, 朋友, 師生의 4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삼강행실도는 이미 널리 유포되었으나 이륜에 관한 책이 없는 것을 유감으로 생각한 金安國의 건의로 중종 13년(1518)에 초간, 1730년 경상도감영에서 다시 간행되었다.



경상감사 안현이 재정기반을 마련해준 1546년 이전의 강학은 체계적으로 시행되지 않았던 것 같다. 사문입의斯文立議에서 ‘이 서원에서 공부하면 5년도 안되어 모두 과거에 급제한다’고 한 안현의 언급과, 1545년 봄에 ‘관찰사 권응창이 유연油煙 20홀과 명저名楮 30장을 서원에 보냈다’<sup>26)</sup>는 기사에 따르면, 초기 3~4년 동안에도 서원에서 공부하는 유생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초창기의 강학은 체계적이거나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유생들의 숙식에 충당할 재정 기반이 안정적으로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분정행이등록에 따르면,

서원에서 유생들을 거접시키는 것은 규약으로 정해져 있어 지금에 폐지할 수 없고, 인재를 양육하는 일은 실로 국가의 중대한 일이다. 유생 양육의 일은 다른 사람이 이미 지성으로 설립한 일을 폐지하고서 행하지 않고 있으며 …(가정 25년(1546) 5월 21일)

라고 하여, 서원 설립 4년 만인 1546년에 이미 거접이 폐지된 상태였음을 알 수 있다. 서원 거접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안현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경상도 지역 전역에 걸쳐 백운동서원의 재정기반을 마련해준 1546년부터였다. 안현은 우수사右水使에게 영구히 제공받은 웅천의 어기漁基 3곳으로부터 매년 총 2,520동음冬音<sup>27)</sup>의 청어를 서원에 봉상捧上하게 하였으며, 울산 관아에서 철염분 2좌를 매입, 이를 영덕 관아에서 염한鹽漢에게 대여하여 매년 서원에서 필요한 식염을 대도록 하였다. 유생들의 음식을 마련하고 서원을 관리할 노비로는 풍기군의 사찰 노비 5구, 흥해군 살인강도의 가족으로 속공된 비 4구, 진주와 산음, 거창에서 온 범죄자의 가족으로 속공된 비 5구 등을 서원에 소속시키고, 인근 고을에서 발생한 의복 등 천인賊人 장물들을 모두 가져다 서원 노비들에게 지급하였으며, 서원 전답 30결의 경작인에게는 잡역을 탈급해주시기도 하였다. 또 거접 개설 이후 유생 공제를 위한 쌀, 된장, 콩, 등유 등의 물품을 필요할 때마다 인근 고을에서 제공하도록 바로 조치해주었다.<sup>28)</sup> 아울러 거접 유생들을 위한 방사房舍도 추가로 조성하였다.<sup>29)</sup> 이처럼, 고을을 넘어선 경상도 전역의 전폭적 지원 하에 1546년 5월, 드디어 소수서원의 거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 결과, ‘고을의 서원에 상시 숙식하는 유생을 10명으로 정하였지만 원근에서 소문을 듣고 온 이름 있는 유생이 수십 명에 이르러 공제할 식염을 마련할 길이 없다<sup>30)</sup>’고 할 정도로 입원 유생의 수가 증가하여 1544년과 1545년에 11명이던 유생이 1546년에 18명, 1549년에 24명, 1551년에는 22명까지 증가하였다(입원록). 이후 거접 관련 기사는 분정행이등록에 1550년까지, 운원잡록에 1596년까지, 거접·거재 관련기사는 그 외 잡록류와 거재록에서 1760년까지 여러 차례 나타난다. 관련 기사 목록은 다음과 같다.

26) 『雲院雜錄』.

27) 1동음은 0.5두름(10마리). 1두름은 물고기나 나물을 짚으로 두 줄로 엮은 것(한 줄에 10마리씩). 안현은 1년에 유생 정원 10명의 반찬으로는 720동음이면 족하니 나머지는 다른 어물과 바꾸어 쓰라고 하였다. 즉, 유생 1인당 한 달에 6동씩이므로 1인당 하루에 2마리씩 제공되었던 셈이다(嘉靖 25년 10월 27일, 「分定行移膳錄」).

28) 「分定行移膳錄」, 가정 25년(1546) 5월 21일~ 가정 26년(1547) 2월 17일.

29) 같은 책, 가정 25년 6월 26일; 9월 14일.

30) 같은 책, 가정 26년 2월 18일.

<표 5> 소수서원 강학 관련 기사(1546~1670)

분류	연월일	내용	관련 자료	수록처
居接	1546. 6. 11	경상감사 안현이 서원에서 공부한다는 소식에 부채, 붓, 묵(각 11점)과 종이 5속을 보냄	가정 25년 6월 11일	雲院雜錄
	1546. 6. 12	유생 10여명 거접에 공궤할 식량이 부족하여 인근 고을에 분정	가정 25년 6월 12일, 在密陽	分定行移 謄錄
居接	1547. 2. 14	백운동에서 공부한다는 소식에 우병사 김순고가 관목(과메기) 30동음, 청어 100동음, 통대구 30마리를 보냄	丁未 2월 14일	雲院雜錄
	1547. 2. 18	거접유생이 수십 명에 이르러 음식에 쓸 식염이 없으므로 안현이 식염 마련책 주선	가정 26년 2월 18일 在醴泉	分定行移 謄錄
	1547. 2. 23	안현이 백운선생(황효공, 안공신)에게 試題와 함께 술과 음식을 보내면서 이후 시각을 정하여 製料하는 것을 서원 관례로 삼도록 함	가정 26년 2월 23일	雲院雜錄
居接	1547. 4. 11	관찰사가 거접 유생에게 장지 15첩, 유연묵 10자루, 송묵 5자루, 고모필 20자루를 보냄	가정 26년 4월 11일 在盈德	分定行移 謄錄
居接	1547. 7. 27	영천군수가 출제, 채점한 제술에 대한 시상으로 관찰사가 명지, 붓, 묵 등을 보냄	가정 26년 7월 27일, 在安康	分定行移 謄錄
居接	1548. 11. 19	풍기군수로 부임한 이황이 현재 서원에 도착한 인원과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인지 묻고 술과 음식을 보냄	戊申 11월 19일	雲院雜錄
居接	1549. 4. 4	이황이 試題(詩賦와 疑義)를 보내며 근래 제생이 송독에 전념하고 제술은 늦춘다는 소식에 기뻐함	己酉 孟夏 4일	雲院雜錄
居接	1550. 3. 12	관찰사가 서원 유생들의 제술 상품으로 종이 등을 보냄	가정 29년 3월 12일, 在醴泉	分定行移 謄錄
居接	1558. 6. 30	군수 장문보가 試題(策)와 함께 청주 1병, 蘇魚 40마리를 보냄	戊午 季夏 晦日	雲院雜錄
*	1566. 4. 8	군수 조완벽이 諸君盛會鍊做하니 술과 안주를 보냄	丙寅 4월 초8일	雲院雜錄
*	1568. 6. 8	군수 이두춘이 부임 당시 서원이 빈 것을 보고 착잡했는데, 지금 諸賢聚會하니 기뻐 술과 음식을 보냄	戊辰 6월 초8일	雲院雜錄
*	1568. 6. 26	數賢加聚했다고 하니 술과 잣을 다시 보냄	6월 26일	雲院雜錄
*	1569. 4. 12	군수 이두춘이 諸賢雅集하니 청주 1동이, 닭 2마리를 보냄	己巳 首夏 旬二	雲院雜錄
文會	1579. 7. 17	문회가 성대하게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군수 배삼익이 박주 2병과 해송자 3말을 보냄	己卯 7월 17일	雲院雜錄
居接	1581. 11	군수 安鳳이 분주하여 제술 시권을 채점하지 못한 것에 미안함을 전하고 내일 罷接한다고 하므로 청주 1동이, 生肉 5근, 약과 1그릇, 생치 1마리, 해송자 1말, 고모필 6자루를 보냄	辛巳 至月	雲院雜錄

분류	연월일	내용	관련 자료	수록처
居接	1582. 11. 22	군수 안봉이 제군들이 서원에 와서 머물며 공부한다고 하므로 상청주 1병, 중청주 1병, 獐脚 2개를 보냄	壬午 11월 22일	雲院雜錄
居接	1583. 11. 30	군수 안봉이 제군들이 서원에 모여 공부한다고 하니 양모필 7자루, 청주 2병, 벽어 4마리를 보냄	癸未 中冬 既晦	雲院雜錄
居齋	1594. 8. 28	김구정이 제수에 쓸 해물 소금 3섬, 건대구 5마리, 광어 3마리, 麻魚 12마리, 도야미 5마리, 잡어 40마리, 白條 2첩, 전복 1첩, 蚌鰯 200개, 홍합 3말을 보냄	答 紹修 書院居齋儒生	雲院雜錄
文會	1596. 秋	창락찰방 최산립이 서원문회집사에게 酒米 3말, 누룩 2장, 닭 2마리, 대구 2마리, 미역 5속, 가지 10개를 보냄	丙申 秋	雲院雜錄
居接	1645. 1	풍기군수 李莆가 거접 때 쓰도록 벼 2석, 들깨 5두, 眞麴 10개, 청어 10관, 송묵 5자루를 보냄	연표 <sup>31)</sup>	雜錄a
居接	1696. 7	거접 때 순흥부사 鄭重昌이 청주 15병, 개 2마리, 角黍 1그릇, 米食 1그릇을 보냄	연표	雜錄b
白日場	1720. 4. 25	제월루 낙성 기념 백일장 거행, 노소 300여명 참여.	연표	雜錄b
居齋	1720. 11. 10	1720년 거제조치에 따라 거제 시작. 유생 10명이 처음 들어와 상읍례를 행함.	居齋措置/奉諭齋中/연표	雜錄d
居齋	1721. 1. 5 ~1721. 1. 26	총 25명 참여.	居齋錄(辛丑)	소수서원지
居接	1721. 7. 3	부사 李明熙가 유생의 製述接中에 면가루 5말, 참외 70개를 보냄.	연표	雜錄d
居齋	1727. 11월 ~1728. 3. 1	1727년 9월에 정한 거제정규에 따라 11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거제 시행. 총 44인 참여.	居齋定規/居齋錄(丁未)/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居齋	1729. 3월	총 8명	居齋錄(己酉)	소수서원지
居接	1729. 7. 20	순흥부사 申弼夏가 거접 때 쓰도록 백미 10두를 보냄.	연표	雜錄d
居齋	1729. 11월 ~1729. 12. 15	총 24명	居齋錄(己酉)	소수서원지
居齋	1730. 11월 ~12. 14	총 41명	居齋錄(庚戌)	소수서원지
居齋	1732. 11. 20	총 3명	居齋錄(壬子)	소수서원지
居齋	1737. 11. 1 ~1737. 12. 30	거제 시작. 천연두로 오래 거접할 수 없어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많은 인원을 받아들여 12월 그믐 전에 파함. 총 50인.	居齋錄(丁巳)/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居接	1738. 11. 26 ~1738. 12. 27	1738년 부사 임상정이 작성한 거제절목에 따라 거접 시행. 11월 26일 백일장을 열고 23인을 선발하여 12월 27일까지 거접. 총 20인.	居齋節目/居齋錄(戊午)/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분류	연월일	내용	관련 자료	수록처
居齋	1741. 10. 25 ~1741. 11. 6	총 10명	居齋錄(辛酉)	소수서원지
居齋	1744. 11. 1 ~1744. 12. 17	총 51명	居齋錄(甲子)	소수서원지
居齋	1746. 9. 20 ~1746. 10. 21	총 5명	居齋錄(丙寅)	소수서원지
居齋	1749. 10. 16 ~1749. 12. 19	1749년 거제절목에 따라 각 면에서 선발, 동몽 포함 15명씩 보름 간격으로 윤번. 동몽 포함 총 65인.	居齋節目/ 居齋錄(己巳)/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居齋	1750. 10월	총 29명	居齋錄(庚午)	소수서원지
居齋	1754. 11. 1 ~1754. 12. 1	원촌 전염병으로 한 달 만에 중단. 총 43인.	居齋錄(甲戌)/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居齋	1760. 10. 22 ~1760. 12. 7	1760년 거제절목에 따라 거제 시행, 총 109인.	居齋節目/ 居齋錄(庚辰)/연표	雜錄d/소수서원지

이를 시기별로 분석해보면, 먼저 16세기에는 주로 과거 위주의 강학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강학 형태도 1594년만 제외하면 거제나 통독은 한 번도 없고 모두 거접만 나타난다. 1549년 풍기군수 이황도 서원에 시부의의詩賦疑義의 시제試題를 보내면서 ‘들으니 제군들이 근래 송독誦讀에 힘쓰고 제술은 늦추고 있다고 하니 이는 뜻이 매우 좋습니다’<sup>32)</sup>라고 하였다. 16세기 거접의 시제試題는 원내에서 출제하지 않고 주로 지방관이 출제하였다. 보통 본관 수령이 가장 많고, 그 외 관찰사나 인근 고을의 수령도 출제와 고시考試에 참여하였으며, 제술 과목은 시부詩賦가 대부분이나 간혹 의의疑義나 책문策問을 출제하기도 하였다. 또 지방관들은 시험문제를 서원에 보낼 때 으레 시제와 함께 음식과 부채, 지필묵 등의 물품도 함께 보내곤 하였다. 음식은 생치生雉, 대구, 광어, 청어, 소어蘇魚, 관목貫目[과메기], 닭, 사슴고기, 돼지고기, 소고기, 쌀, 황조荒租, 콩, 잣, 술 등으로 그 중 가장 많은 것이 술(과 안주)이다. 술은 청주淸酒(상청주上淸酒, 중청주中淸酒), 주미酒米, 국麴, 소주燒酒, 합주合酒, 추로秋露, 약주藥酒, 박주薄酒 등을 보통 1동에서 4동 정도, 많게는 15동까지 보냈으며, 1547년 경상도관찰사 안현은 술과 함께 술잔[藥玉]을 보내기도 하였다. 거접 기간과 참여 유생의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개접이나 파접 시에 수령이 음식을 보낸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16세기부터 이미 상시 거접이 아니라 정해진 기한 동안에만 숙식을 제공하며 거접시켰음을 알 수 있다. 단, 개설 시기에 있어 18세기부터는 봄, 여름에만 거접을 개설하고 겨울에는 ‘삼동거제三冬居齋’라 하여 보통 10월~12월 사이에는 거제가 개설되었는데, 16세기에는 사시거접四時居接이 시행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이 같은 과거 위주의 서원 교육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은 17세기부터이다. 1615년 원장 광진은 ‘멀리서 찾아오는 제생들이 전보다 더 많아져 서재書齋 문 앞에 늘 신발이 가득하고 글 읽는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그들의 공부 내면을 수양하는 것은 거의 드물고 다수 연허양류燕許楊劉의 여습餘習이니 이것이 실로 안타까운 일입니다.’<sup>33)</sup>라고 하면서 독서보다 과업科業에 치우친 유생들의 공부 방식에 우려를 드러내고

31) 이하 연표와 入院錄은 소수서원지에 수록된 자료를 참고하였음.

32) 「僉案下拜問白雲書院」, 『雲院雜錄』.

있다. 이 무렵 과학<sup>科學</sup>이 아닌 도학<sup>道學</sup>을 서원 교육의 본질로 천명했던 퇴계의 서원관이 소수서원에서도 공유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서원에서의 과거공부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17세기 초 풍기군수 이준<sup>李峻</sup>은 과거에 응시하는 서원의 유생들에게 ‘과거 응시자의 올바른 자세’<sup>34</sup>)를 가르침으로써, 서원에서의 과거 교육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을 택하기도 하였다.

18세기에 이르면, 이전까지 과업<sup>科業</sup>을 위한 거점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강학이 거재 중심으로 바뀌고, 과업과 독서의 병행이 시작되는 것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거재에 대한 기록인 거재록도 이 때 처음 작성되기 시작하였다. 1720년부터 1760년까지 총 열 차례의 강학 중 거재 6회, 거점 3회, 백일장이 1회 개설되고 있다. 18세기에 (거점이 아닌) 거재가 이처럼 활성화된 배경은, 서원 외적으로는 경상감사 조현명의 권학절목<sup>勸學節目</sup> 반포(1732), 퇴계 서원관의 정착, 내적으로는 강학 전담 재정 기구인 양사청<sup>養士廳</sup><sup>35)</sup>의 설립 등을 들 수 있다.

1727년에는 ‘5일에 한 번 제술하고 10일에 한 번 통독하며, 방학이라도 과거시험이 있는 해에는 대동접과 백일장 등을 폐지해서는 안된다(거재정규)’고 하여, 제술에 비중을 더 두긴 했으나 거재 기간에 제술과 통독을 병행하도록 하였다. 1730년에는 ‘독서하여 도를 추구하는 것이 선비의 본업이지만 과거공부도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반 개월 기한 내에 혹 한두 차례 출제하여 재능을 시험한다(거재절목)’고 하여, 과업에서 독서 위주로 그 비중이 전도되었다. 1749년에는 ‘거재하면서 여럿이 함께 생활하는 것은 오로지 송독<sup>誦讀</sup>만 일삼기 위한 것이 아니다. 요체는, 봉우끼리 강습하여 서로 인을 돕고 선행을 보아[麗澤觀善] 심신을 일깨우는 것이다(거재절목)’고 함으로써 거재의 본의가 독서에 그치지 않고 여택지력<sup>麗澤之力</sup>의 실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즉, 초창기 과업 위주의 강학에서 18세기 초에는 독서와 통독 중심의 강학으로, 18세기 중반에 이르면 독서를 넘어, 일찍이 퇴계와 율곡이 천명했던 이택지력의 실현에서 서원 강학의 본질을 찾고 있다.

1721년부터 1760년까지의 거재는 서원지에 수록된 거재록<sup>居齋錄</sup>(입원록, 서원소장본 b)을 통해 거재 개설 기간과 그 규모를 파악할 수 있다. 서원지에는 ‘표지가 낙장이라 제목을 알 수 없으나 내용으로 보아 입원록으로 추정한다’고 하였는데, 사실은 입원록이 아니라 거재록이다. 여기에는 1720년부터 1760년까지 거재에 참여한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재록과 거재절목의 작성 연도가 일치하며, 입재일<sup>入齋日</sup>과 귀가일, 수창시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거재록이 분명하다. 또한 잡록에는 이 거재록을 작성할 때의 기록인 ‘제거재록<sup>題居齋錄</sup>’이라는 글이 남아 있다. 이는 1720년 11월에 거재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것으로, 거재록을 작성하게 된 배경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돌아보건대, 원중에서 답습하고 있는 근자의 규례는 옛날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지 않고 ‘입원<sup>入院</sup>’ 두 글자에 대하여 꼭 논쟁하지 않아도 될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

33) 『上蒼石』, 『丹谷集』 권3.

34) “무릇 글을 지음에 있어서는 반드시 義理를 주로 하여, 정신을 온전하게 기르고 志氣를 화평하게 가져야 마음과 이치가 하나가 되고 붓과 손이 서로 응하여 맥락이 두루 통하고 精華가 빛나게 됩니다. 그리고 지은 글만 볼 만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두텁고 차분한 기상도 모든 선비들이 우러르는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주히 준비하고 진중일 고생하더라도 이미 혈기와 심신이 혼란하여 붓을 들면 생각이 엉키고 붓 가는 길이 거칠게 됩니다. 차분함과 조망함이 이미 달라 득실이 절로 갈리니, 지금에 글을 잘 짓는다는 명성이 있으면서도 왕왕 합격하지 못하는 자를 보면 거의 이런 사유에 기인합니다. 이것이 어찌 응시자로서 경계할 바가 아니겠습니까.”(『諭赴舉士子文』, 『蒼石集』 권 13).

35) 養士廳은 정확히 언제 설립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서원지에 수록된 「소수서원입사록」에 따르면 1749년에 ‘養士廳別有司’가 처음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이 때 설립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 지금에 갑자기 입원록 제목을 보면 역시 논쟁의 단서가 있는 듯하고 너무 지나치다는 비난이 또 장차 나에게 가해질 형편이다. 이 때문에 곧바로 실질에 의거하여 ‘거재록居齋錄’이라 이름 붙이고 모든 군자들이 와서 독서한 월일을 직접 쓰게 하였다.<sup>36)</sup>

거재록에 따르면 1727년 거재는 11월부터 4개월간 총 44명이 참여하여, ‘11월부터 다음 해 3월 안에 방학한다’는 거재정규의 규정이 정확히 지켜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 1754년과 1760년에는 마지막에 수창시를 지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1730년부터 그 이후로는 10월~12월 사이에 삼동거재三冬居齋가 개설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거재록에는 명단만 있고 강학 내용에 대한 기록이 없어 그 이상은 알 수 없으나, 절목에 따라 대부분 제술과 독서, 혹은 통독이 병행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단, 1738년의 거접은(절목에는 거재절목이라 하였으나 내용은 거접), 절목 제정부터 거접 유생의 선발, 제술과 고시考試, 종이와 음식, 땀감 등의 지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이 철저하게 부사府使를 주축으로 시행된 점이 특이하다. 부사 임상정은 접중에서 가장 연소한 자 1인으로 접유사接有司를 삼아 매일 아침 식사 전에 시권試券을 걷어 부사에게 올리면 직접 채점하였다(거재절목).

## (2) 거재잡록居齋雜錄(1761~1780)

거재잡록은 1761년부터 1780년까지 개설된 총 19차례의 강학에 대한 기록이다. 그 중 순제와 백일장이 각 7회, 거재가 3회, 거접이 2회 개설되었다. 순제와 백일장의 개설이 거재나 거접보다 훨씬 많은 이유는, 거재와 거접은 숙식을 제공해야 하는 반면, 순제나 백일장은 숙식을 제공하지 않아 상대적으로 비용이 훨씬 적게 들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시기는 강학 전담 재정 기구인 양사청養士廳이 폐지된 상태여서 서원의 재정 형편이 좋지 않았다. 따라서 거재와 거접의 개설 횟수 뿐 아니라 개설 기간도 18세기 초에 비해 훨씬 짧았다. 18세기 초의 거재는 많게는 4개월(1727), 거접도 보통 한 달 동안 개설된 반면, 이 때의 거재는 15일~45일, 거접은 고작 5일~10일간만 개설되었다. 먼저, 거재잡록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거재잡록居齋雜錄의 구성

분류	연도	구성
居齋	1761	題居齋錄奉諭諸君子, 居齋節目, 酬唱詩(원장 權九淵 등 4편), 居齋講案・製錄, 通讀日記
巡題	1762	巡題計畫
居齋	1762	居齋講案・製錄, 通讀日記, 酬唱詩(12편)
巡題	1763	癸未巡題計畫榜
居齋	1763	居齋講案・製錄, 通讀日記
巡題	1764	甲申五月初一日巡題榜
白日場	1764	甲申七月十九日白日場榜目
白日場	1765	乙酉七月二十二日白日場榜目
巡題	1766	丙戌七月日巡題四巡計畫榜目
居接	1766	丙戌七月二十二日大同居接食器榜目, 同月二十三日接榜目, 同月二十四日接榜目, 同月二十五日接榜目, 同月二十六日白日場榜目

36) 『雜錄』 d; 『소수서원지』 729쪽.

분류	연도	구성
居齋	1766	居齋講案・製錄, 通讀日記, 酬唱詩(17편)
巡題	1767	丁亥巡題榜目
白日場	1767	丁亥白日場榜目
白日場	1769	乙丑七月二十六日白日場榜目
白日場	1770	庚寅七月初六日白日場榜目
白日場	1771	辛卯四月二十九日白日場榜目
居接	1772	壬辰正月十七日居接食器榜目, 同月二十八 <sup>37)</sup> 日榜目, 同月二十九 <sup>38)</sup> 日榜目, 同月二十日榜目, 同月二十一日榜目, 同月二十二日榜目, 同月二十三日榜目, 同月二十四日榜目, 同月二十五日榜目, 同月二十六日榜目
旬題	1778	戊戌五月日旬題榜目
巡題	1780	庚子八月二十九日三巡巡題計畫

그 중 거제는 1761, 1763, 1766년 세 차례에 걸쳐 개설되었으며 거제 기간은 15일~45일이었다. 1761년의 ‘제거재록봉유제군자題居齋錄奉諭諸君子’에서는 ‘본원의 물력이 비록 옛날 같지는 않지만 수백 곡의 여재餘財와 수천 권의 서적이 있어, 옛날의 항공지규恒供之規는 지키지 못하지만 삼동거재三冬居齋의 비용으로는 쓸 수 있으니 한 달 간 거제를 개설한다’는 거제 개설 배경을 말하고, 이어 절목과 강안講案, 통독일기를 수록하고 있다. 양사창養士廳이 폐지된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1760년대에 거제가 세 차례나 개설될 수 있었던 것은, 1759년에 강학을 위한 재정으로 해마다 추수 후 50석을 별도로 배정하기로 하고 완의完議를 작성하였는데(1759 원중완의院中完議), 이 때 마련된 재정을 기반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인다. 삼동거재三冬居齋란 1730년 거제절목에서 처음 나타나는데, 형편상 본래 사문입의斯文立議<sup>39)</sup>에 규정되었던 사시거제四時居齋가 어렵게 되자 三冬 즉, 10월~12월 사이에만 거제를 개설하는 것을 말한다. 1730년 이후 19세기까지 삼동거제는 꾸준히 시행되었다.

거제에 대한 기록은 강안講案과 제록製錄-통독일기通讀日記-수창시酬唱詩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강안은 거제 기간에 각자 독서한 책을 배강背講하여 통通-략略-조粗-불不의 4단계로 평가한 점수를, 제록은 시부詩賦 제술의 점수를 기록한 것이다. 배강과 제술은 각자 거제기간을 마치고 윤번 교체하는 날 시행하였으며 전체 거제를 마치는 날에는 수창시를 지어 역시 기록에 남겼다. 통독일기에는 매일 통독한 서책의 범위를 하루 일과, 매일 참석한 인원수와 함께 기록하였다. 통독 교제는 절목의 규정대로 심경, 근사록, 주자서절요를 주로 읽었다. 이를 통해 거제 시 강학 절차는朝食 후 <경독敬讀-통독通讀-개별 독서讀書-귀가歸家時時 배강背講 및 제술製述-과재罷齋 時時 수창시酬唱詩>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때의 거제는 세 차례 모두 귀가일에 한 번만 제술을 행하여 철저하게 독서와 통독 위주로 시행된 것이 특징이다.

거접은 1766, 1772년 두 차례 개설되었다. 매일 시부詩賦 제술을 시행하고 성적을 날짜별로 작성하여 ‘대동거접식기방목大同居接食器榜目’과 ‘거접식기방목居接食器榜目’이라는 제목 아래 기록하였다. 이 때 ‘대동거접大同居接’은 거접의 다른 말로, 대동접大同接<sup>40)</sup>이라고도 한다.

37) 二十八은 十八의 誤記.

38) 二十九은 十九의 誤記.

39) “儒生十員爲額 四時常養”.

40) “옛적의 儒士들은 大同接이란 것이 있어 제술한 글을 가지고 서로 이기려고 다투었는데, 근래에는 점점 그 전과 같이 않아 이런 일이 있음을 들어보지 못하겠습니다.”(『중종실록』, 중종 37년(1542) 2월 1일).

1727년 거제정규에도 ‘과거시험이 있는 해에는 대동접과 백일장 등을 폐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여 거접 대신 대동접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1766년 거접은 4일간 시부詩賦 제술에 매일 25명이 참여하고, 마지막 날은 백일장을 열어 29명에게 장지와 백지를 시상하였다. 1772년의 거접도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매일의 출제자와 마지막에 채점관(考官)도 기록하였다. 출제는 관官과 서원에서 번갈아 하였으며, 전직 관리 2명과 진사 2명이 고관考官을 담당하였다. 또 파접罷接 전날에는 부사가 방문하여 오전에 60여 명의 유생과 함께 대학大學을 강독하고, 오후에는 서원에서 출제하여 제술을 시행하였다. 이 때 60명은 평소 거접 인원이 아니라 이 날 부사의 강독에만 참여한 인원이다. 이처럼 파접일 혹은 파접 전날에는 ‘파접례罷接禮’라고 하여, 으레 부사가 방문하여 특별히 강독을 하거나 평소와 달리 큰 규모의 제술을 행하며 주연을 베풀기도 하였다.

순제는 총 7차례로 시부詩賦 혹은 의의疑義를 시험하여 성적(分)과 시상 내역을 방목에 작성하였다. 방목의 제목은 ‘순제방목巡題榜目’ 혹은 ‘순제계획방목巡題計畫榜目’이라 하였는데, 이때 ‘획畫’은 점수를 뜻하며, 계획計畫은 점수의 총계, 즉 총점을 뜻한다. ‘방목榜目’이라 하지 않고 ‘계획방목計畫榜目’이라 쓴 이유는, 순제는 대개 시제試題를 여러 개 출제하여 그 점수를 합산했기 때문이다. 1763년의 방목을 보면, 시제試題가 몇 개인지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시詩 장원이 47푼, 부賦 장원이 43푼의 점수를 받았다. 한 문제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 점수는 12푼이므로, 이 때의 순제에는 적어도 4문제 이상 출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1778년에는 ‘순제旬題’라 쓰고 나머지는 ‘순제巡題’라 쓰고 있다. 순제巡題는 본래 수령이나 관찰사가 고을, 道 단위로 試取하여 선발된 자들에게 특혜나 시상을 베풀던 것이며<sup>41)</sup>, 순제旬題(혹은 旬製)는 성균관에서 열흘에 한 번씩 행하던 제술 시험으로<sup>42)</sup>, 서원에서도 이를 모방한 것이다. 1826년 소수서원의 순제에서도 열흘에 한 번씩 출제한 사례가 발견되는데, 이 때 ‘순제巡題’라 쓰지 않고 ‘순제旬製’라 쓰고 있다. 백일장은 당일 정해진 장소에 모여 한 번에 치는 시험이었지만, 순제는 시제試題를 미리 내주고 집에 가서 작성하여 정해진 기일에 제출하는 것<sup>43)</sup>이었으므로 공간이나 비용 면에서 백일장보다 훨씬 경제적이었다. 순제에서 여러 문제를 출제할 수 있었던 것은 이처럼 현장에서 보는 시험이 아니라 과제 형태로 부과하는 시험이었기 때문이다. 7회의 순제 중 나머지는 모두 원내에서 출제하고 1778년에는 관에서 출제, 1780년에는 부사가 채점관으로 참여하였으며, 1762년에는 관에서 일부 시상施賞을 보조하기도 하였다. 백일장 역시 총 7회로, 시부詩賦 혹은 고풍古風을 출제하여 방목을 작성하고 때때로 시상하였으며 1771년에는 부사가 채점하였다.

연도별 개설된 강학의 형태와 개설 기간, 참여 인원 및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41) “辛未趙竹陰希逸爲方伯 巡題二賦 魁於一道 累被獎賞”(『自叙』, 『八松集』 권 5, 序).

42) “내가 즉위한 이후로 모든 명절이나 式年試 등 程式이 정해진 것 외에, 抄啓文臣의 月試와 泮儒의 旬製, 대궐에 숙직하는 신하들에게 때때로 보이는 應製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험 문제를 직접 出題하였다.”(『臨軒題叢』, 『홍재전서』 권 182).

43) 소수서원의 1826년 5월 순제에서도 “又出二題 限今二十五日製呈”(『旬製時雜錄』, 『講所雜錄』)이라 하여 시제를 미리 내주고 기한을 정해 올리도록 하였으며, 그 외 경광서당의 “只以朔望日設場課試詩賦 而每會預出巡題以會日各自製來 考定高下 則不費三十石穀而可做得七八篇詩賦也”(『與鏡光書堂僉座』, 『山澤齋集』 권 3, 書)라는 기사와 양양향교의 “如或習懶荒嬉 雖出旬題 或作或否 或過限製呈 則答捶之罰”(『襄陽鄉校勸諭文』, 『艮翁集』 권 23, 雜著)이라는 기사에서도 이 같은 순제의 방식이 확인된다.



<표 7> 거재잡록居齋雜錄에 수록된 강학 현황

분류	연도	날짜	참여자	비고
居齋	1761	11. 24~ 12. 13	유생 25, 동몽 1	·거재절목을 만들어(忝任 權九淵 등) 매일 敬讀(白鹿洞規 등), 通讀(心經·近思錄), 독서(小學·四書三經)를 행함. ·거재를 마칠 때 背講, 詩賦 제술을 하고 마지막에 수창시 남김.
巡題	1762	夏	33	·등수대로 점수를 기록하고 전체 시상. ·官家에서 일부 상품 보조.
居齋	1762	10. 15~ 11. 29	유생 27, 동몽 6	·10~12명이 보름단위로 교체, 歸家일에 背講과 제술. ·근사록 통독. 수창시 남김.
巡題	1763	夏	36	詩賦를 출제하여 14등까지 시상.
居齋	1763	11. 2~ 12. 3	유생 29, 동몽 8	·8~18명이 보름 단위로 교체. 배강은 8, 제술은 11명만 참여. ·朱子書節要 통독. 수창시 없음.
巡題	1764	5. 1	24	등수대로 점수를 기록하고 전체 시상.
白日場	1764	7. 19~ 7. 20	19일 26, 20일 37	詩賦 출제, 날짜 별 방목 작성
白日場	1765	7. 22	詩賦 33, 古風 10	방목 작성, 전체 시상
巡題	1766	7월	15	詩賦 출제, 방목 작성, 전체 시상.
居接 白日場	1766	7. 22~ 7. 26	22~25일: 매일 25 26일: 29	·4일간 거점에서 詩賦 제술, 날짜 별로 방목 작성. ·마지막 날 백일장 개설, 시상(원임 成顯寅 등).
居齋	1766	10. 15~ 12. 13	유생 38, 동몽 13	·8~11명이 보름 단위로 교체, 마지막 교체(12월 1일) 시에는 32명이 입재하여 제술을 4차례나 시행. ·그 중 4명은 배강과 제술은 하지 않고 통독에만 참여. ·주자서절요 통독, 수창시 남김(원임 權九淵 등).
巡題	1767	2. 15~ 7. 30	50	·기간을 初巡과 終巡(3월 이후) 둘로 나누어 초순에는 詩賦疑義 각 5首, 중순에는 각 10首씩 출제. ·초순과 중순에 장원 각 3명씩 뽑고 나머지는 초종 점수를 합산하여 윤7월 3일에 방목을 작성하고 시상(원임 權九淵 등).
白日場	1767	윤7.25 (방목)	詩賦 30, 古風 5	詩賦와 古風 출제, 윤 7월 25일 방목 작성하고 시상(원장 權九淵 등).
白日場	1769	7. 26	詩賦 37, 古風 10	詩賦와 古風 출제, 8월에 방목 작성. 장원 3명 뽑고 전체 시상(원임 姜潤 등).
白日場	1770	7. 6	52	·詩賦 출제, 7월 8일 방목 작성(원임 金塾 등). ·방목 마지막에 채점관 기록(考官 前正言 金墜 등 4인).
白日場	1771	4. 29	38	·詩賦 출제, 방목 작성. ·채점관은 府使 金履信 등.
居接	1772	1. 17~ 1. 26	매일 15~38	·매일 詩賦 제술, 날짜별로 방목 작성(원임 黃羽漢). 試題는 官과 서원에서 번갈아가며 출제. ·25일 오전에는 부사가 방문하여(主倅徠院) 60여 명의 유생과 함께 대학 강독, 오후에 詩賦 제술. ·채점관은 前主簿 黃麟采 등 4인(전직 관리 2, 進士 2).
旬題	1778	5월	19	·방목에 점수 없이 명단만 작성(그 이유는 官에서 출제하였으나 한 차례 실시한 뒤 府使가 喪을 당해, 20인을 뽑

분류	연도	날짜	참여자	비고
				아 시상하고 旬題를 중지함). ·채점관은 府使 朴師海, 원장 金始重 등 4인.
巡題	1780	8. 29	46	·詩賦 출제, 장원은 백지 1束, 그 외 10장씩 시상. ·채점관은 前正言 柳翼之, 원장 鄭惟簡 등 4인(방목 명단은 없음).

### (3) 거재록居齋錄(1780~1793)

거재록은 1780년부터 1793년까지 개설된 4차례의 강학에 대한 기록으로, 거재는 보통 한 달, 통독은 6일 간 이루어졌다. 거재록의 내용 구성은 다음과 같다.

<표 8> 거재록居齋錄의 구성

분류	연도	구성
居齋	1780	居齋錄奉諭齋中, 居齋節目, 酬唱詩, 居齋日記, 酬唱詩
通讀	1789	己酉通讀節目, 日記, 通讀節目識(1790, 成彦根)
居齋	1790	居齋節目, 講案, 日記, 酬唱詩,
居齋	1793	居齋節目, 書節目後(權益休), 講案, 日記, 試題, 酬唱詩

1780년에는 흥년과 재정 고갈로 강학을 개설하지 못하다가 가을 향사 때 당중에서 논의하고 토지를 분출分出하여 유사 2인을 뽑아 관리하도록 하고, 10월 23일부터 거재를 시작하였다(거재록봉유재중居齋錄奉諭齋中). 이 해에는 강안講案과 통독일기通讀日記를 따로 기록하지 않고 ‘거재일기’라는 제목하에 함께 기록하였으며, 명단을 산장山長, 훈장訓長, 양사유사養士有司, 재유齋儒, 동몽童蒙, 심원尋院, 고관考官 등으로 구분하여 기록하였는데, 심원尋院 중에는 향교장이나 단계서원 원장 등이 있었다.

1788년에는 폐지되었던 양사청養士廳을 복설하고(1788 완의完議), 이후 통독과 거재를 개설하여 한달 내지 50일간 거재를 시행하였다. 거재 시 통독 교재는 모두 주자서절요, 1789년에는 대학을 통독하고 있다.

1780년과 1790년의 거재 사례는 거재가 개설되기까지의 준비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춘추 향사 혹은 분향례에서 당회를 열어 거재 개설과 날짜를 확정하고, 원장이나 원임을 중심으로 강학 재정을 마련한 뒤, 각 면에 통문을 발송하고, 실제 강학을 주도할 훈장 2인을 선출한 뒤, 거재절목을 제정함으로써 준비 절차가 마무리된다. 요약하면, <당회-재정 마련-통문 발송-훈장 선출-절목 제정>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1793년에는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원장부사는 절목의 작성에도 관여하고, 12월부터는 매일 시제를 출제하였으며, 파재일에도 직접 방문하여 시부의의책문詩賦疑義策問을 출제, 주찬酒饌을 베풀기도 하였다. 소수서원의 원장부사 겸임제도는 1764년 제정되어(갑신甲申년 입의立議), 1792년부터 1897년까지 총 34차례에 걸쳐 원장부사가 임명되고 있다.<sup>44)</sup> 이처럼 18세기 후반에 원장부사 겸임제를 만든 것은,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게

44) 甲申년 5월 25일 立議에 따르면, ‘本官은 으레 원장을 겸한다’고 하였는데 갑신년이 언제인지 불분명하다, 「

되면 무엇보다 서원 운영과 재정 면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1793년 거재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원장부사는 절목 제정부터, 강학과 제술에 이르기까지 매우 활발하게 참여하였으며, 거재 기간 중에 건시乾柿와 어미魚尾를 보내거나 파접례 때 주찬酒饌을 베푸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또 제술이나 통독 등 부사가 서원에 직접 방문하여 강학하는 경우에는 보통 평소의 2~3배 이상이나 많은 유생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1772 거접). 그 외 강학 절차와 하루일과는 거재잡록의 경우와 거의 유사하며, 연도별 강학의 개설기간과 참여 인원,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9> 거재록居齋錄에 수록된 강학 현황

분류	연도	날짜	참여자	비고
居齋	1780	10. 20 ~12. 8	매일 6~25, 마지막 이틀은 51, 47	·거재절목을 제정하고 童蒙, 尋院, 院任, 齋任, 訓長 포함 매일 6~25명이 주자서절요 통독, 歸家 시 각자 독서한 책 배강, 보름에 한 번씩 府使가 詩賦 출제하여 제술(11월 1일, 3일(朔題), 11월 15일, 16일, 12월 1일). ·10월 20일부터 입재, 23일부터 통독, 11월 18일은 府使가 방문하여 주자서절요 通講. ·수창시 남김. 山長 鄭惟簡, 養士有司 金燦元, 講官 柳翼之(考官) 등.
通讀	1789	5. 10 ~5. 16	매일 26~11 0여명	·1788년 가을 養士廳 重設, 1789년 3월 通讀節目 마련, 5월 11일부터 각 면훈장이 유생을 데리고 와서 대학 통독 시작(숙식은 각자 해결). ·11, 12일 이틀만 통독, 인원이 너무 많아 통독이 불가능해 12~15일까지 관에서 詩賦 출제, 제술하여 매일 詩賦 각 10~18명씩 試取.
居齋	1790	10. 25 ~11. 28	매일 10~44	·10월 15일 焚香禮에서 거재일을 정하고 통문 발송, 훈장 2인 선출, 25일 居齋節目 제정, 入齋하기 시작해 11월 1일부터 주자서절요 通讀 시작. ·전체 28일 중 1/3은 官이나 서원에서 출제하여 詩賦 제술, 각 1인씩 壯元 선발. ·수창시 남김. 院長 金重鍊, 訓長 安恂·成彦根 등.
居齋 <sup>45)</sup>	1792	11월 한 달	총 37	11월 한 달간 강독과 제술을 하고 12월 1일 참여자 명단인 雲院居齋題名 작성.
居齋	1793	11. 13 ~12. 16	齋儒60 童蒙13 老儒36	·11월 13일부터 入齋, 16일 훈장과 원임이 거재절목을 만들어 부사에게 품의, 17일 부사가 와서 거재규례 10조를 벽에 게시, 경제잡과 숙흥야매잡을 친히 써서 매일 敬讀 교재로 삼음. ·18일부터 강학 시작, 인원이 적어 통독 못하고 경독만 함. 훈장 외출로 21일부터 12월 5일까지 통독 못함. ·12월 1일부터 부사에게 요청하여 이후 매일 詩賦 제술하는

紹修書院任事錄」에 따르면, 원장직은 보통 幼學이나 生員, 進士, 간혹 전직 관리가 맡아 오다가, 1788년 무렵부터 대부분 전현직 관리가 원장에 임명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순흥부사가 처음 원장이 된 것은 1792년으로, 이후 19세기 말까지 원장부사는 총 34차례나 된다. 이를 통해 갑신년은 1764년으로 추정할 수 있다. 『雜錄』g의 기사에 따르면, 1805년 7월 ‘당회를 열어 부사를 원장으로 천망하지 않기로 결의하였다’고 하였으나, 이후 1806년부터 1897년까지 계속해서 총 32회나 임명되고 있다.

분류	연도	날짜	참여자	비고
				<p>것을 규례로 삼음.</p> <p>·12월 6일 훈장이 돌아와 7일부터 주자서절요 통독, 이후 매일 경독, 제술, 통독 병행, 8일에는 관가에서 乾柿와 魚尾 보냄.</p> <p>·15일 부사가 와서 경독, 정음례를 함께 하고 酒饌을 베풀(罷接禮).</p> <p>·罷接 기념 마지막 제술, 부사가 詩賦·疑義·策問을 출제하여 제술하고 파접.</p> <p>·講案에 齋儒, 老儒, 童蒙을 구분해서 기록, 노유는 배강 및 제술에 참여하지 않고 동몽은 일부 참여.</p> <p>·수장시 남김. 院長府使 朴長高, 訓長 權益休 등.</p>

#### (4) 강소잡록講所雜錄 등(1799~1828)

1799년부터 1828년까지의 강학 기록은 여러 자료에서 발견된다. 1799년부터 1813년까지의 백일장과 거재 등은 잡록류에, 1815년에 열린 두 차례의 순제방목은 『조선시대영남서원자료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에 수록된 「계유정월묘우중수기사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에<sup>46)</sup>, 1826년부터 1828년까지의 순제, 거접, 거재 등은 『소수서원강소잡록紹修書院講所雜錄』에 수록되어 있다.

설립 초기 사시거접四時居接을 시행하던 소수서원은, 재정이 열악해진 18세기에 이르러 사시거재四時居齋를 삼동거재三冬居齋로 바꾸고, 18세기 중반에는 양사청養士廳을 설치함으로써 교육 기능을 지속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였다. 1788년에는 중도에 폐지되었던 양사청을 복설하여 강학을 지속하고자 하였으나, 복설된 양사청도 얼마 못가 다시 폐지되었다. 그리하여 1801년 11월에는 재정이 열악하여 거재를 개설한지가 오래되었음을 한탄하면서, 형편상 삼동거재의 개설도 어려우니 우선 통독을 열기로 하고 26일간 통독을 개설하였다. 이때 보낸 회문回文에는 ‘지금 후생들이 오로지 과거 공부에만 몰두하고 옛 사람의 위기지학에는 전혀 힘을 쓰지 않아 주자서절요 한 질을 읽지 못한 자가 많습니다’라고 하면서 통독 교재를 주자서절요로 정하고, 각자 소장한 주자서절요를 가지고 와서 읽도록 하였다. 또한 앞으로 겨울밤이 길어지니 나이 어린 유생들에게 낮에는 강독, 밤에는 제술을 시켜 두 가지를 동시에 익히도록 하였다.

1810년과 1813년 거재는 개설 기간 중 제술을 한 차례 시행하거나, 제술 없이 독서와 통독 위주로만 시행되었으나, 1826년의 통독과 1827년 거재에서는 낮에는 통독하고 밤에는 제술함으로써 매일 통독과 제술을 병행하였다. 또 1810년과 1813년은 ‘거재일기居齋日記’를 작성하여 매일의 출입 유생과 하루일과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1813년 거재도 분향례에서 당회를 열어 거재를 결정하고 통문 발송, 훈장 선출의 과정을 거쳐 거재가 개설되었다. 이 때 거재는 본래 14일간 열기로 계획하였으나 부사가 상을 당해 12일 만에 파접하였다. 이는 당시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거재 중간에는

45) 雲院居齋題名은 『雲院齋錄』(소수박물관 소장)에 수록되어 있다. 居齋錄에는 수록되지 않았으나 자료의 시계 열적 파악을 위해 표에 삽입하였다.

46) 윤희면은 이 때의 순제방목이 『講所雜錄』에 수록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잘못된 것이다. 1815년 순제방목 2건은 『講所雜錄』이 아니라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의 말미에 수록되어 있다.

관아 뿐 아니라 단계서원, 구만서원 등 인근 서원과 향교에서 심원尋院하거나 콩, 미역, 명태, 홍시 등 술과 음식을 보내기도 하고 과거에 급제한 유생이 인사 차 방문(1827)하기도 하였다. 1815년 두 차례의 순제에는 모두 50여 명이 참여, 부사도 한 차례 채점에 참여하였으며, 1826년 순제는 두 차례 모두 부사가 출제, 고시, 시상에 전부 참여하였다.

1826년의 통독에서는 낮에는 통독하고 밤에는 제술하였는데, 이 때의 제술은 ‘촉각시燭刻試’로 치러졌다. 그런데 통독을 마치고 수창시 앞에 기록한 서문에는 ‘통독하는 사이에 과거 시험 과목으로 시부詩賦 각 5수씩 시험하였다. 오직 문장을 수식하여 선후를 다투는 것에 대한 경계를 조금 범하였으니 부끄럽고 두렵다.’<sup>47)</sup>라고 쓰여 있어, 서원에서의 과거 공부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다.

1827년에는 거접과 거재가 한 차례씩 개설되었다. 거접에서는 부사가 날마다 아침에 입원하여 직접 시제를 출제하고, 파접 이틀 전에 주연을 베풀기도 하였다. 부사가 이렇게 열성적으로 참여한 것은 이 해에도 부사가 원장을 겸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827년의 열흘간 거재는 낮에는 통독하고 오후와 저녁에 매일 시부 2수씩 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통독 교재는 주자의 글 몇 편과 증용이었다. 특히 증용을 집중적으로 통독하여 16편까지 마쳤는데, 통독 시 문답 및 토론 내용을 ‘강록일기講錄日記’에 매우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강록일기에 따르면, 매일 아침 명륜당에서 상읍례와 경독을 행한 뒤 일신재日新齋로 옮겨 통독을 하였다.

1828년에는 ‘문회文會’를 열었는데, 이는 백일장과 유사한 것으로 보인다. 당일로 시부詩賦와 고풍古風각 한 수씩 출제하여 방목을 작성하고 문회를 마친 뒤, 그 날(4월 22일)이 퇴계가 소백산 유람을 시작한 날과 같은 날이라 하여, 원임 등 20여 명이 퇴계의 고사<sup>48)</sup>를 따라 9일간 소백산을 유람한 뒤 수창시, 기문과 서발문 등을 엮어 ‘소백유산록小白遊山錄’을 남겼다. 그 외 주요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0> 강소잡록講所雜錄 등에 나타난 19세기 강학 현황

분류	연도	날짜	내용	관련 자료	수록처
白日場	1799	6. 18	원자 탄신 기념 백일장. 부사가 원장이라 朝陽閣 <sup>49)</sup> 에서 시행. 詩賦·古風 6백여 명, 방목 84인.	연표	雜錄g
白日場	1801	7월	방목 작성	연표	通讀雜錄
通讀	1801	12. 7~ 12. 22	· 11월 15일 回文 발송, 12월 7일부터 通讀 시작. · 강학 재정이 열악하여 거재를 개설한지가 오래되었음을 한탄, 재정상 거재는 어려우니 우선 通讀(주자서절요)을 개설하기로 함. · 낮에는 通讀, 밤에는 제술. · 훈장 權思浩(원장), 成彦根	通讀時回文 / 연표	通讀雜錄
居齋	1810	11. 29~ 12. 22	· 11월 29일부터 入齋, 12월 1일부터 강학 시작. · 매일 敬讀과 讀書 시행, 제술은 12월 10일 1회(부사가 詩賦 각 3수씩 출제, 채점).	居齋日記	雜錄m

47) ‘講會時酬唱并小序’, 『講學時雜錄』, 『講所雜錄』.

48) 퇴계는 풍기군수로 재임하던 1549년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소백산을 유람하고 『遊小白山錄』을 남겼다(『퇴계집』 권 41, 雜著).

분류	연도	날짜	내용	관련 자료	수록처
			과점일이 아닌 12월 12일에 수창시 지음. · 중간에 향교 재임, 단계서원 재임 등 방문, 관가에서 명태, 소금 등 음식 보냄. · 洞主 成宗魯, 別任 金樂顏 등		
居齋	1813	12. 7~ 12. 18	· 11월 30일 분향례에서 거제일 결정, 각면에 통문 발송, 훈장(前 洞主 孫思百, 金熙發)선출, 12. 7~12. 20까지 거제 계획이었으나 부사의 부인상으로 18일 과점(원장부사 柳季麟). · 매일 25~55명이 敬讀과 讀書. · 향교 재임, 부사, 단계서원, 구만서원 재임 등 방문, 관아에서 콩, 미역, 명태, 향교에서 건시, 홍시, 단계서원에서 술과 음식, 구만서원에서 건시 등 보냄. · 과점일에 수창시 남김.	居齋日記	雜錄m
巡題	1815	3월	· 詩賦 제술 51명, 부사가 채점, 점수 없이 명단만 기록. · 考官府使 柳季麟, 원장 朴攄, 별유사 柳輝 등.	乙亥三月巡題榜目	「癸酉正月廟宇重修記事」(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旬題	1815	8월	· 詩賦 출제. 1등 3, 2등 13, 3등 36명, 총 52명. 점수 없이 등수와 명단만 기록. · 考官: 進士 成彦根, 生員 李雲燮, 원장 金赫鍊 등.	乙亥八月日巡題榜目	上同
旬製	1826	4월	· 3월 享祀 때, 흉년으로 文會는 어려우니 旬製 개설 결정, 부사에게 시부출제 요청, 4월 4일 부사가 試題 각 2수씩 보내며 앞으로 열흘마다 서원에서 출제하도록 함. · 25일 試券 400여 장을 거둬 부사에게 보내 채점, 草三下 이상 150명의 방목 작성.	旬製時雜錄	講所雜錄
旬製	1826	5월	· 부사가 바빠 여러 차례 출제를 고사하다 5월 14일 詩賦 각 2수씩 보냄, 25일까지 試券 제출, 28일 부사가 채점, 방목 작성. · 6월 1일 4품 이상 75인에게 부사가 보낸 상품으로 시상(詩賦 각 장원 부채 1자루와 연초 1근, 이하 1, 2등은 白紙 1속, 3등은 白紙 15장). <sup>50)</sup>	旬製時雜錄	講所雜錄
通讀	1826	11. 19~ 11. 30	· 11월 초에 모여 26일부터 通讀, 다음 해 봄에 居接을 열기로 정하고 19일부터 入齋, 21일 각 면에 통문 발송, 26일부터 30일까지 주자서절요 3편, 통감절요 4편까지 통독. · 26~28일까지는 오전에 相揖禮, 敬讀 후 낮에는 통독, 밤에는 詩賦 제술, 29일은 오전·오후·밤 세 차례 燭刻試로 詩賦 제술,	講學時雜錄	講所雜錄

분류	연도	날짜	내용	관련 자료	수록처
			30일 수창시 남기고 罷會. · 27일 방목은 9명, 28일 22명, 29일 오전 22명, 오후 26명, 밤 21명. · 同住 李家淳, 訓長(講任) 宋相奎, 徐幹發 등.		
居接	1827	3. 14~ 3. 19	· 前 山長 李家淳이 國事로 상경하여 2월 28일 堂會에서 부사 金祖淵을 산장으로 임명, 3월 14일부터 6일간 居接을 열기로 함. · 매일 아침 부사가 입원하여 詩賦 출제, 날마다 午時(17일만 巳時)에 試券을 걷어 저녁에 방목 작성. · 17일은 부사가 이른 아침 입원하여 주안상과 떡 등 잔치를 베풀고, 18, 19일은 臥丹倉 分給으로 부사가 불참하여 鄉試官이 출제, 훈장 徐幹發 등이 채점. · 방목 인원은 매일 69~102명. · 罷接日에 講任을 새로 뽑음(柳燾, 朴奎元).	居接時雜錄	講所雜錄
居齋	1827	12. 7~ 12. 17	· 12월 1일 洞主 姜樸, 講任 柳燾, 朴奎元이 모여 거제일을 7일로 정하고 각 면에 통문을 보내 6일부터 入齋. · 6일 과거에 급제한 金哲濬이 광대를 데리고 와서 하룻밤 묵고 감. · 7~9일은 입재유생이 너무 적고, 큰 비로 유생들이 오지 못해 주자대전의 글 몇 편(白鹿講會序 등)을 통독, 賦 1, 2수씩 제술, 방목은 작성하지 않음. · 11일부터 相揖禮, 敬讀 후 中庸 通讀 시작, 매일 낮에는 통독, 오후와 저녁에 詩賦 각 2수씩, 罷接日에는 詩賦疑 제술(14~17일은 부사, 나머지는 서원에서 출제). · 15일 오후에는 부사가 입원하여 원임 등 몇 명과 함께 광풍대-취한대-반계-영귀루를 둘러보며 수창시를 짓고 저녁에 돌아옴. · 매일 적게는 10, 많게는 80여 명 참여. · 마지막에 ‘講錄日記’라는 제목으로 중용 통독 시 문답, 토론 내용(16장까지)을 상세히 기록.	居接時雜錄 / 酬唱錄	講所雜錄
文會	1828	4. 22	· 洞主 姜樸이 文會를 열어 詩賦, 古風 각 한 수씩 제술, 방목 작성(총 215명). · 문회를 마친 뒤 4월 22일이 퇴계가 소백산에 들어간 날이라고 하여 동주 강운이 소백산 유람을 제안, 원임 등 20여 명이 9일간 유람하고 수창시, 서발문 등을 남김.	戊子四月二十二日文會時古風榜目 / 小白遊山錄 등	講所雜錄

#### 4) 강학 의례 관련

소수서원의 강학 의례 자료로는 정읍례홀기(庭揖禮笏記<sup>51)</sup>)가 있으며, 그 외 강학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의례로 경독敬讀, 개접례開接禮와 파접례罷接禮, 수창시酬唱詩를 들 수 있다. 정읍례庭揖禮는 거재居齋나 통독通讀 시 강학을 시작하기 전에 명륜당 앞 뜰에 제생이 동서의 두 대열로 나누어 서면 동서의 각 당장堂長(혹은 반수班首)이 제생을 이끌고 나아가 스승과 원임에게, 혹은 제생이 서로 인사를 주고 받으며 읍양揖讓의 예를 행하는 것으로 상읍례相揖禮라고도 한다. 의례의 절차는 대개 유사하지만, 서원별 혹은 지역별로 소임所任의 명칭, 의례의 내용과 범위가 조금씩 다르다. 예를 들면, 소수서원에서는 동서 대열의 대표 유생을 당장堂長이라 하고 필암서원에서는 반수班首라고 하며, 소수서원에서는 상읍례相揖禮와 경독敬讀이 별도의 의례로 독립되어 있으나 도산서원과 필암서원은 상읍례相揖禮 안에 경독敬讀이, 무성서원은 강습례講習禮 안에 경독敬讀이 포함되어 있다. 또 전라도의 필암서원과 미천서원은 상읍례相揖禮의 절차와 경독敬讀의 텍스트까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홀기에 나타난 소수서원 정읍례의 절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먼저, 정읍례를 행하기 전에 당일 모인 사람들의 거안學案을 작성하여 동서東西 두 대열로 나누고 대열 별로 당장堂長, 부당장副堂長, 조사曹司를 정한다.
- 다음으로 집례執禮가 동서창東西唱을 인도하여 먼저 명륜당 뜰 안으로 들어가 선생에게 인사한다. ○ 그 뒤, 당장이 각 대열을 이끌고 뜰 안으로 입장하고, 동서조사가 부당장에게 읍揖하면 부당장이 답례한다.
- 다음으로 동편 부당장이 선생에게 거안學案을 올리면 동서대열이 선생에게 인사한다.
- 다시, 동서 대열이 모두 돌아 서로 마주보고 서면, 동서조사가 부당장 앞에 나아가 서립序立하였음을 고하고 부당장은 답례한다.
- 다음으로 제생끼리 상읍례相揖禮를 행하고, 집례와 동서창도 뜰 중앙에 이르러 마주보고 상읍相揖한 뒤 퇴장함으로써 모든 절차가 마무리된다.

절목과 강학 시행 기록에 따르면, 정읍례는 거재나 통독 시에만 행하고 거접 시에는 행하지 않았으며, 정읍례와 상읍례가 서로 구분되기도 하고 혼용해서 쓰이기도 하였다. 1780년 절목에는 ‘아침에 식당에서 제생이 상읍례를 행한 뒤 공수拱手하고 서립序立하여 경독敬讀을 행한다’고 하고, 1790년 절목에는 ‘아침에 일어나 정읍례를 행한 뒤 식당에 모여 경독敬讀한다’고 하였으며, 1793년에는 ‘아침에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식당에 참여하여 먼저 상읍례를 행한 뒤, 식후 명륜당에서 경독敬讀을 행한다’고 하였다.

1780년 거재일기에 따르면, 거재를 시작한 첫째 날에만 상읍례 후 경독, 통독을 행했고, 1789년 통독에서는 아침 통독 전에 상읍례를 행했으며, 1790년과 1793년 거재에서는 경독 후 정읍례를 행하기도 하고, 경독과 통독 후 정읍례를 행하기도 하였다. 1810년 거재에서는 경독 전이나 후에 상읍례를, 1813년에는 아침에 상읍례를 행하기도 하고 경독 후 정읍례를

49) 朝陽閣卽外東軒也(宮室·樓亭, 『順興誌』, 『梓鄉誌』).

50) 처음에 부사가 詩賦 각 장원에게 시상하려고 부채 2자루와 연초 2근을 보냈으나 부의 장원으로 11分짜리 동점자 2인이 나와 부사가 다시 장원의 상품으로 香草와 백지(부채 대신)를 추가로 보내고, 또 서원에서 試官에게 답례로 보낸 백지 2속을 다시 서원에 돌려보내 佳作를 추가로 뽑아 상품으로 쓰게 하였다(『旬製時雜錄』, 『講所雜錄』).

51) 소수서원지 407~408쪽. 서원지에는 원 수록처가 居齋雜錄으로 기록되어 있으나 거재잡록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행하기도 하였으며, 1826년 통독과 1827년 거재에서는 명륜당에서 경독 전 상음례를 행하였다.

그 외 강학에 관련된 의례로는 경독敬讀, 개접례開接禮와 파접례罷接禮, 수창시酬唱詩 등을 들 수 있다. 소수서원의 거재居齋 시 강학 절차는 조식朝食 후 상음례相揖禮-경독敬讀-통독通讀-개별 독서讀書-배강背講-수창시酬唱詩로 이루어진다. 그 중 경독敬讀은, 본격적인 강학을 시작하기에 앞서 글을 잘 읽는 한 사람에게 유학 공부론의 핵심이 되는 글을 큰 소리로 성독聲讀하게 함으로써 공부의 목적과 방법을 내면화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다. 가장 보편적인 텍스트는 주자의 백록동규白鹿洞規이며 당색이나 서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소수서원은 백록동규白鹿洞規, 경재잠敬齋箴, 숙흥야매잠夙興夜寐箴을 기본으로 하고, 때에 따라 퇴계의 이산원규伊山院規, 주자의 주문공심훈朱文公十訓, 장형거의 동서명東西銘 및 서원에서 제정한 거재절목居齋節目을 읽도록 하였다.<sup>52)</sup>

개접례開接禮, 파접례罷接禮, 수창시酬唱詩는 정식적正式的 의례는 아니지만 거접居接이나 거재居齋의 시작과 끝에 행하는 일종의 관습례라고 할 수 있다. 서원 강학의 개설을 격려하고 지원하는 차원에서, 개접례에는 수령이 음식과 함께 직접 시부詩賦를 출제하여 보내고<sup>53)</sup>, 파접례에는 수령이 으레 주연酒宴을 베풀고 평소와 달리 제술도 성대하게 거행하였다. 운원잡록雲院雜錄에는 16세기부터 소수서원의 개접일開接日과 파접일罷接日에 수령이나 관찰사가 시제試題와 함께 술과 음식을 보내는 기사를 자주 발견할 수 있다. 또 평소 거접 시에는 시부詩賦 제술만 행하다가 파접일(1793, 1827)에는 부사가 시부詩賦 외에 의의疑義나 책문策問까지 출제하며, 서원에 직접 방문하여 주연을 베푸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 옥산서원에서는 개접례(입접례入接禮)와 파접례에 쓸 용도로 아예 서원에서 쌀 한 섬으로 미리 술을 담그도록 규정하기도 하였다.<sup>54)</sup> 파접례의 마지막은 그동안 강학한 내용에서 운자를 내어 다함께 수창시를 짓고 이를 기록으로 남기는 것으로 마무리되며, 파접례 다음 날 향음주례를 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죽림서원竹林書院의 경우에는 ‘파재일罷齋日에 향사례와 향음주례를 행하여 젊은 이들과 나이 어린 유생들로 하여금 고례古禮를 익히도록 해야 한다’<sup>55)</sup>고 하여 아예 파접례 절차에 향음주례를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기도 하였다.

파접례는 후접례後接禮 혹은 귀가례歸家禮(도동서원)라고도 하였으며, 고려시대에는 세연례洗硯禮라고도 하였다. 도동서원 원규에 ‘음담패설과 같은 부정한 말이나 음식물을 요구하는 염치없는 일은 모두 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이어 세주에서 ‘음식물을 요구하는 것은 지금 학교에서 행해지는 이른바 후접례, 귀가례라고 하는 것이 모두 그런 것들이다.’라고 하였다.<sup>56)</sup> 소수서원과 달리 도동서원에서는 파접례 때 관에서 물적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오히려 음식물을 요구하는 관행이 폐단으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해 각 서원이 관아와 맺는 관계 및 물적 지원에 각각 차이가 있었음을 볼 수 있다.

강학의 마지막 절차가 수창시로 마무리된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본질과 수준

52) 1749년 거재에서는 주문공심훈과 거재절목, 1760년에는 이산원규, 1761, 1790년에는 주문공심훈, 1810년 거재에서는 동서명을 경독하도록 하였다.

53) 1826년 5월 순제 때 서원에서 수령에게 試題 출제를 부탁하자, 수령은 바쁘다는 이유로 사양하면서, ‘이전에 두 개의 시제를 출제하고 고시한 것은 이른바 開接禮로서 한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앞으로는 원내에서 출제할 것 당부하고 있다.

54) 「山堂居接謄錄」, 『玉山書院誌』.

55) “罷齋之日 獻官爲賓爲介 鄉射飲禮 惟意行之 使新進年少 習熟古禮爲宜”(『竹林書院節目』, 『市南先生別集』 권 7, 雜著),

56) “淫媒女色不正之言 干索食物無恥之事 皆不得爲之 干索食物 始今學中所謂後接禮歸家禮等事皆是”(『道東書院院規』, 『寒岡集續集』 권 4, 雜著).

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대목이다. 수창시는 과거 대비를 위한 형식적 시부詩賦 제술과 달리, 통독 때 읽은 글 중에서 운자를 내면 그 운자를 활용해 각자 통독 모임에서 얻은 소회所懷와 깨달은 바를 담아 시로 표현하는 것이었다. 또한 이를 기록으로 남김으로써 타인의 교육적 성과도 함께 공유할 수 있었다. 시부詩賦 제술이나 경서經書 배강背講처럼 집수를 매기지는 않았지만, 수창시야말로 여택지력麗澤之力과 위기지학爲己之學이라는 서원 교육의 본질적 의미를 보여주는 실질적 성과였다고 할 수 있다.

그 외 순제에서 시관試官을 맡은 수령에게 답례로 서원에서 선물을 보내면, 수령은 다시 답례로 받은 선물을 유생들의 제술 상품으로 쓰도록 돌려보내는 관례<sup>57)</sup>도 확인되며, 서원과 관아에서 제사가 있을 때마다 으레 서로에게 음복을 보내는 관례<sup>58)</sup>도 있었다.

## 5) 강학 재정 관련

소수서원의 강학 제정과 관련된 기록은 1788년 완의完議와 양사청별유사養士廳別有司의 명단을 기록한 「소수서원임사록紹修書院任事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원 설립 초기에는 문성공의 후예인 안현이 경상감사로 부임하여 사문입의斯文立議를 제정하고 경상도 전역에 걸쳐 재정기반을 마련해줌으로써, 강학을 위한 별도의 재정 기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것 같다. 그러나 이후 양란을 거치고 안현이 마련해준 해읍海邑의 어염과 도내 각 고을의 물자 공급이 끊기면서 서원 재정이 점차 고갈되기 시작하였고,<sup>59)</sup> 이는 곧 강학의 중단으로 이어졌다. 이전의 강학에서는 10명의 정원을 넘더라도 윤번을 시키지 않았으나, 1720년부터 윤번 교체 거제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같은 재정상의 이유 때문이었다. 그리하여 18세기에는 강학을 위한 별도의 재정 기구인 양사청養士廳을 마련하기에 이른다. 양사청의 정확한 설립 시기는 확인되지 않는데, 임사록任事錄에 양사청별유사養士廳別有司의 명단이 1749년에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무렵에 설립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임사록에 1756년 이후 양사청별유사의 명단이 다시 사라진 것으로 보아, 1756년 이후 폐지되었던 것 같다.

당시 서원 재정 고갈의 구체적 원인과 실상은 1759년 원중완의院中完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 완의에서는 서원의 채용 고갈로 여러 가지 폐단이 속출하게 되었는데, 그 중 가장 큰 것은 회계의 법도가 엄하지 않아 재물이 낭비되기 때문이며, 재물이 낭비되자 강학도 폐지되기에 이르렀음을 지적하고, 이에 완의를 정하여 1개월 단위로 엄격히 회계하도록 규정하였다. 또 매년 추수 후에 50석石을 따로 배정하여 양사지수養士之需로 삼고, 다른 용도에 재정이 모자라도 절대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 때 서원의 물자가 낭비되는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된 것은 과객 접대였다. 여기서 과객이란 관아官衙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수서원은 관아 바로 옆에 위치해 있어 예부터 관아의 관리나 관아에 일이 있어 출입하는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끊이지 않았는데, 이들을 접대하고 숙식을 제공하는 데 서원 채용의 많은 부분이 소모되어 강학에 쓸 물자가 없는 지경에까지 이른 것이었다. 특히 관아에서는 식사나 접대 외에 시도 때도 없이 서책을 빌려가서 돌려주지 않아 서원문고 유실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으며, 서원의 하인을 함부로 데려다 쓰

57) 1826년 순제에서 「試官에게 선물을 보내는 관례에 따라 수령에게 백지 2속을 선물로 보낸다」고 하였다(「旬製時雜錄」, 『講所雜錄』).

58) 『雲院雜錄』.

59) 1606년 2월, 서원에서 순찰사에게 올린 글에 따르면, 당시 웅천의 漁基는 난리를 겪은 후 이미 폐지되었고 영덕과 영해의 염분만 존속하고 있다고 하였다(「上方伯柳永詢書」, 『雲院雜錄』).

기도 하였다. 이에 완의에서는 ‘이는 경중이 도치된 폐단이니, 멀리서 서원을 방문한 현인을 제외하고 그 외 모든 사람에게 일체 식사 제공이나 접대를 중지’하도록 하였다.

그 밖에 재정 고갈의 원인으로는 선현(문성공) 자손들의 공공물자 사용<sup>60)</sup>, 소작인들의 도조 미납, 보곡寶穀을 빌려다 쓰고 갚지 않는 경우, 강학이나 향사가 없을 때에도 서원에서 숙식하는 입격入格 유생들의 폐단<sup>61)</sup> 등을 들 수 있다. 또 조두組豆의 법식에 없는 유밀과油密菓를 써서 재물을 낭비하는 폐단<sup>62)</sup>도 여러 차례 언급되고 있는데, 이 역시 빈객 접대를 위한 것이었다.

1756년 이후 폐지된 양사청이 복설된 것은 1788년이다. 1788년 완의에서는 ‘양사청은 애당초 있었던 것이 중간에 폐지되었는데, 이는 서원의 재정이 풍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양사청이 폐지된 후에 재정상 여력이 없어 강학의 옛 규례마저 동시에 잃어버렸다. 지금 양사청을 복설復設하고자 하는 것은 서원의 지위를 높이고, 옛 규례를 따르는 도리가 될 것이다’고 하면서, 양사청을 복설한 뒤 양사청별임養士聽別任 1명을 두어 이를 관리하게 하였다. 이후 1789년 5월 통독 기록에 따르면, 양사청유사養士聽有司 김영두金永斗가 강회를 주관하였으며, 1790년 10월의 거재 기록에서도 양사별임養士別任 권익소權益邵를 발견할 수 있다. 임사록에도 1788년부터 양사청별유사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하여 1792년까지 기재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복설된 양사청이 적어도 1792년까지는 유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소수 서원에서는 양사청이 폐지된 시점에서도 원임들이 힘을 모아 곡식을 별정하거나(1759), 토지를 분출分出(1780)함으로써 강학의 개설을 꾸준히 도모하였으며, 19세기에는 삼동거재三冬居齋가 어려우면 대신 통독을 개설하거나 원장부사 제도를 활용함으로써 서원의 교육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였다.

## 2. 도산서원

<표 11> 도산서원 강학 관련 자료

분류	제목	연도	수록처/소장처	간행처
規約	院規	*	陶山書院古文書 I	퇴계학연구소
講案	講會錄	1795	陶山書院古文書 I	퇴계학연구소
日記	講會日記	1854	陶山書院古文書 I	퇴계학연구소
講錄	淸涼吾山堂講錄 표제: 吾山堂講錄	1850. 3. 26~3. 28	한국국학진흥원	*
講錄	淸涼講義 표제: 吾山堂講錄 附溪齋講義	淸涼講義: 1850. 3. 26~3. 28 溪齋講義: 1853~1857	규장각	*

60) 1700년 庚辰三月享祀時完議.

61) 1700년 庚辰三月享祀時完議.

62) 1625년 立議.

### ○ 원규院規

도산서원 원규는 1558년에 퇴계가 작성한 이산원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총 12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과정과 공부의 지침으로 삼을 중국 선현들의 글을 제시한 2개 조항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는 대개 서원에서의 언행 및 조직과 운영에 대한 것이다. 백운동서원 규약과 가장 큰 차이는 교육과정 및 서원의 강학 이념을 처음으로 제시한 점, 서원에서의 공부와 과거공부의 관계에 대한 관점의 변화, 제향 관련 규정이 없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첫째, 제향 관련 조항이 없는 것은 백운동서원과 달리, 이 원규의 저본이 된 이산서원이 애초에 제향 기능 없이 강학만을 위해 설립된 서원이었기 때문이다. 도산서원의 제향의례는 ‘도선서원의절陶山書院儀節’의 향알香謁, 정알正謁, 향례享禮 조항과 ‘홀기筭記’의 고유시홀기告由時筭記, 향례홀기享禮筭記, 향음주례홀기鄉飲酒禮筭記 등<sup>63)</sup>에 상세히 규정되어 있다.

둘째, 교육과정은 사서 오경을 근본으로, 소학과 가례를 문호門戶로 삼고 역사서와 문집, 문장과 과거 공부는 말단으로 할 것을 규정하였다. 또한 공부의 방법과 지침을 제시한 정이천의 사물잡, 주희의 백록동규, 진무경의 숙흥야매잠을 서원 내 벽에 걸어놓고 경계로 삼도록 하였다.

셋째, 서원에서의 공부와 과거공부의 관계에 대해 서원에서의 공부를 과거와 인재등용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며 서원에서의 과거급제자 배출을 외려 자랑스럽게 여겼던 백운동서원과 달리, 퇴계는 서원에서의 과거공부에 대해 좀 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거공부 또한 널리 힘쓰고 통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마땅히 내외·본말·경중·완급의 순서를 알아서 타락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함으로써, 서원에서도 과거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이는 바깥과 말단에 해당하는 비본질적인 것이며, 서원 교육의 본질은 ‘성현의 가르침을 지켜 온갖 선善이 본래 나에게 갖추어져 있음을 알고, 옛 도道를 지금에 실천할 수 있음을 믿어 몸소 행하고 마음에 얻으며, 체體를 밝히고 용用에 맞게 하는’ 위기지학爲己之學에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그 외 임원 구성은 원장-부원장(院貳)-유사 체제였던 백운동서원과 달리 원장은 두지 않고 상유사-유사 체제로 하였다. 유사는 품관品官 출신으로 2인, 상유사는 행의가 있고 존경받는 자 1인을 두어 모두 2년마다 교체하도록 하였다.

### ○ 강회록講會錄

강회록은 1794년 봄에 정조가 어제御製 1책 및 경서經書 1질을 도산서원에 하사하고, 다음 해 2월 또 어정주서백선御定朱書百選 3책을 하사한 것을 계기로, 임금의 은혜에 보답하고 서원 설립 본연의 목적을 되돌아보기 위해 1795년 2월에 개설한 강회의 경과와 당시 강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기록한 것으로, 강안講案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때의 강회는 당시 산장山長 이귀서李龜書의 주도로 석채釋菜 파재일罷齋日에 강회를 열어 총 60여인이 참여하였으며, 정조에게 하사받은 주서백선朱書百選과 대학大學을 윤독輪讀하여 3일만에 파하였다. 산장山長 이귀서李龜書 외에 강장講長은 생원生員 김태익金台翼이 맡고, 청강聽講으로 수령 박헌원朴獻源 등 6인이 참여하였으며, 명단에 수록된 강생講生은 유학幼學 감낙유金洛儒 등 총 44인이다. 이처럼, 임금의 서책 반사는 조선후기 서원 강학 개설의 주요 계기 중 하나로, 다른 서원이나 향교에서도 종종 발견된다.

63) 『陶山書院古文書』 I, 53~70쪽.

### ○ 강회일기講會日記

강회일기는 1854년, 강회가 오랫동안 이어지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기던 장로長老와 참원僉員들이 재회를 열어 12월 15일 강회를 개설하기로 하고, 강회 전날부터 강회를 마친 17일까지 3일간의 강회 사실을 날짜별로 기록한 것이다. 먼저 1854년 10월에 재회를 열어 각 마을 유생들에게 통문을 보내고, 동몽부터 40세에 이르기까지 매월 초하루에 사숙私塾에서 강학하게 한 뒤, 연말에 그 중 우수자를 뽑아 도산서원에서 대동회강大同會講을 열기로 하였다.

12월 14일에는 동주洞主 이희순李希淳과 이석貳席 최운황崔雲璜이 들어와서 광명실光明室에 소장된 사자육경四子六經과 심경, 근사록, 주서朱書, 퇴서退書 등 여러 질을 꺼내와 응강應講의 도구로 삼았으며, 訓長으로 원장 이희순, 전승지前承旨 이휘녕李彙寧, 전참판前參判 이효순李孝淳, 전목사前牧使 이휘재李彙載를 주대하였다.

15일에는 이른 아침 훈장 등이 들어와 시도유시時到有司로 이만설李晩高, 이만옥李晩郁을, 직일直日로 이휘경李彙暉, 이휘철李彙徹을 추천하여 뽑았다. 식후에 도착한 사람이 모두 30여인이 되어 전교당典教堂 뜰에서 정읍례를 행하였다. 정읍례는 제생이 전교당 뜰에 서립序立하면 동반수와 서반수가 제생을 이끌고 동편 층계에 서서 백록동규를 경독敬讀한 뒤 읍례를 행함으로써 끝났다. 정읍례를 마친 후 한존재閑存齋에 고비皋比(강석)를 설치하고 제생이 각자 독서한 책을 가지고 나와 한 편씩 진강進講하고 문의文義를 강하다가 날이 저물면 파하였다.

16일과 17일에도 같은 방법으로 의례와 진강을 행하였는데, 이들 모두 정읍례 대신 상읍례를 행하였다. 17일에는 상읍례와 진강을 모두 마치고 훈장과 장로들이 먼저 나간 뒤 제생이 뒤이어 퇴귀退歸하였다. 이 강회일기를 통해 유생의 선발 방식, 강회 시 서원문고의 활용, 각 공간(한존재閑存齋 등)의 활용 방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 청량강의淸涼講義

청량강의는 당시 도산서원 원장이었던 이한응李漢膺<sup>64)</sup>의 주도 하에 1850년 청량정사淸涼精舍에서 시행된 강회에 대한 기록으로, 『대학大學』 강론 시 문답과 토론을 상세히 기록한 강록講錄류 자료이다. 청량강의에 나타난 토론의 수준과 문답의 전개방식은 매우 정교하여, 당시 영남 유림들의 『대학』 이해 수준을 파악할 수 있으며, 서원 강학에 있어 토론문화의 정수와 교육적 의미를 살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청량강의는 한국국학진흥원과 규장각의 두 본이 있는데, 그 중 규장각 본에는 청량강의 뒤에 1853년부터 1857년까지 경의당敬義堂에서의 강회 기록인 ‘계재강의溪齋講義’도 수록되어 있다.

두 본 모두 표제는 ‘오산당강록吾山堂講錄’이라 되어 있다. 오산당은 청량정사의 당호堂號이며, 청량정사는 1832년, 퇴계가 소시적 공부하던 청량산에 사림들의 합의로 건립된 정사로, ‘청량정사’라는 편액은 이광정李光庭이 지은 것이다.<sup>65)</sup> 퇴계 생존 당시 청량산 자소봉紫霄峯 아래 백운암白雲菴이 있었는데, 이광정은 퇴계가 젊은 시절 공부하던 백운암을 도산서당의 모습에 의거하여 다시 짓고 ‘청량정사’라는 편액을 정하였다. 그 뒤 1832년 청량산 자소봉

64) 이한응은 19세기 중엽 유치명과 함께 영남유림을 대표하는 학자로, ‘소퇴계’라는 칭호를 들던 李東標의 현손이며 호는 敬庵이다. 학문은 심경, 근사록을 기본으로 삼고 주희와 이황의 책을 아울러 공부하였다. 그의 호 ‘敬庵’에서 말해주듯이 경 공부를 가장 중시하였다. 관직에 여러 차례 임명되었으나 나아가지 않고 고향에서 학문에 전념하여 續近思錄, 屏銘發揮, 朱書訣旨, 喪禮抄節, 溪齋講錄 등의 저술을 남겼으며, 문집으로 『敬菴集』이 있다(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224쪽에서 재인용).

65) 「吾山堂重建記」, 『吾家山志』; 「題白雲菴堂室圖」, 『訥隱集』 권 6, 雜著.

아래 청량정사는 오산당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세워졌다. 퇴계는 평생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청량산을 방문하여 학문을 닦고 산천을 노래했는데 모두 55편의 시와 하나의 발문, 하나의 기문이 전한다. 퇴계가 주세봉의 「청량산록」에 쓴 발문에 “안동부의 청량산은 예안현에서 동북쪽으로 수십리 거리에 있다. 나의 고장은 그 거리의 반쯤 된다. 새벽에 떠나서 산에 오를 것 같으면 5시가 되기 전에 산 중턱에 다다를 수 있다. 비록 지경은 다른 고을이지만, 이 산은 실지로 우리 가문의 산이다. 나는 어릴 때부터, 부형을 따라 피나리 붓짐을 메고 이 산에 왕래하면서 독서하였던 것이 헤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sup>66)</sup>라고 하였는데, 청량산을 ‘오가산吾家山’, 청량정사를 ‘오산당吾山堂’이라고 부른 것은 여기서 연유한다. 청량강의淸涼講義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청량정사는 19세기 퇴계 문인들이나 도산서원의 강학소가 되기도 하고, 1896년에는 청량의진淸涼義陣이 조직되어 의병 투쟁의 근거지가 되기도 하였다.

강회는 1850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총 600여 명이 모여, 『대학』을 한 장씩 읽어가면서 각 장의 章旨와 핵심 개념에 대해 심도 있게 토론하였다. 강회의 소임은 다음과 같다.

- 훈장訓長 -원장院長 이한응李漢膺
- 집례執禮 -유학幼學 이재언李在閔
- 사정司正 -생원生員 채주옥蔡周郁
- 동반수東班首 -유학幼學 남유운南有楹
- 서반수西班首 -유학幼學 조언강趙彦綱
- 직일直日 -진사進士 안행준安行準・유학幼學 손영덕孫永德・유성진柳星鎭・김동건金東建・김용진金龍鎭・진사進士 고성겸高聖謙・유학幼學 홍환오洪煥五・남만성南萬星・허희許禧

첫째 날은 강당 뜰에서 정읍례를 행하고 『대학』 서문부터 강독을 시작하였다. 정읍례의 절차는 앞의 강회일기와 같다. 강회 진행 방식은 한 사람을 시켜 한 장을 통독하게 한 다음, 각 장에 대한 제생의 질문과 훈장의 발문, 토론이 이어졌다. 주로 『대학』의 3강령과 8조목의 문의文義와 체제를 논의하는 가운데 정이천, 주희, 옥계노씨, 신안진씨, 황간 등의 중국 학자와 권근, 이황, 정경세, 한원진 등 조선 학자의 학설도 폭넓게 인용하고 있다. 토론은 단어의 개념이나 문의文義에 대한 간단한 즉문즉답도 있으나, 훈장 등이 논쟁의 단서가 될 만한 발문을 던지면 제생이 돌아가면서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 뒤 마지막에 훈장이 쟁점을 갈무리해주는 방식으로 주로 진행되었다. 즉, 제생이 묻고 훈장이 대답해주는 일방적인 토론이 아니라, 모든 참여자들이 매우 자유로운 방식으로 토론에 참여하고 있다. 발문의 예는 ‘명덕明德은 심심에 속하는가, 성성에 속하는가?’, ‘본말本末은 어찌해서 물物이라 하며, 종시終始는 어찌해서 사事라 하는가?’, ‘백성이 잇을 수 없다는 것과 죽은 뒤에도 잇지 않는다는 것은 차이가 있는가?’, ‘자겸自謙은 무엇을 뜻하는가?’ 등이다. 그 중 ‘명덕明德이 심심에 속하느냐, 성성에 속하느냐’는 발문에 이어진 토론 장면을 예시로 들면 다음과 같다.

이한응: 선유들은 심심이라 하기도 하고, 성性이라 하기도 하고, 심성정心性情을 통칭한다고도 했으나 나는 본심本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고성겸: 심성정을 포괄하지만 주된 것으로 말하면 심이다.

이만호: 기氣와 관련해서 논할 수는 없고 마땅히 리理의 입장에서 봐야 한다.

66) 「周景遊淸涼山錄跋」, 『退溪集』 권 43, 跋

류성진: 심이라 할 수도 없고, 성이라 할 수도 없고, 다만 명덕明德이라 해야 한다.

이한응: 한 마음 안에 얼마나 많은 건수件數가 있는가?

류성진: 오장 육부를 일러 각기 건수가 있다고 하지는 않는다. 다만 부여받은 바의 이치가 이러한 것을 포괄하고 있을 뿐이다.

안행준: ‘허령虛靈’ 두 글자에는 이미 적감寂感과 표리表裏의 구분이 있는 듯하니, 오로지 성을 위주로 하지는 않는다. 또한 마음을 떠나 덕을 구할 수 없으니 밝고 환한 덕은 내 마음의 고유한 것인 듯하며, 본심이라 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다.

남만성·이만보: 심성정으로 통괄해서 말하면 기氣에 간섭되므로 리理를 위주로 해서 말한 듯하다.

이판사: 이기理氣를 합한 가운데 리理를 위주로 말한 것 같다.

여기까지 논의가 전개되자, 유택흠이 다시 ‘이한응의 말대로 명덕을 본심으로 보면 기를 겸한 것으로 간주함인가?’라고 물음으로써 이제 ‘명덕을 이로 볼 것인가, 기로 볼 것인가’로 논쟁의 국면이 전환되었다. 이에, 이 때까지 듣기만 하던 이한응은 주자와 면재勉齋, 중용 등의 설을 들어 심心に 체용體用的 다름이 있으며, 용례마다 명칭과 한계를 어떻게 구분해야 하는지를 설명함으로써 쟁점을 하나씩 갈무리해주고 있다. 이를 통해 서원 강회에서 훈장의 역할과 리더십을 살필 수 있다. 나머지 이들은 정읍례는 행하지 않고 강론만 하여 전문 10장까지 모두 마치고 강회를 과하였다.

권오영은 이 강회의 의미를 ‘이한응의 문인 외에도 영남의 명망 있는 인사를 총망라하고 있어 이상정, 유치명의 직계 문인들이 주도했던 19세기 고산강회나 호계강회와는 차이가 있으며, 당시 병호시비로 분열된 영남유림을 도산서원 원장이 중심이 되어 통합하고자 했던 상징적 성격을 띤 것’<sup>67)</sup>으로 해석하고 있다.

규장각 본에 수록된 계재강의溪齋講義는 역시 이한응을 장석丈席으로 하여 1853년부터 1857년까지 계재溪齋의 경의당敬義堂에서 열린 강회에 대한 기록으로, 작성 방식과 강회의 절차는 청량강의와 같다. 계재溪齋는 이한응이 1851년 안동의 녹동에 지은 두 칸짜리 서재로, 시내 옆에 지어 ‘계재’라 하고 당호는 ‘경의당’이라 하였다.<sup>68)</sup> 그는 계재를 지은 후 매년 10월 강회를 열어 중용, 대학, 심경, 근사록 등을 강론하였다. 1853년 10월 27일부터 10월 29일까지는 32명이 참여하여 중용中庸 서문부터 13장까지, 1854년 10월 28일에는 중용 14장부터 18장까지, 1855년 10월 28일에도 중용을 이어 강론하였다. 1857년 2월 18일부터 2월 22일까지는 30여 명이 참여하여 18일은 근사록近思錄, 19일~22일은 이한응이 자편自編한 속근사록續近思錄을 강독하였다. 특히 1857년의 강회에서는 훈장 이한응의 자편 교재를 활용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67) 권오영, 「19세기 영남유림의 강회와 학술활동」, 『조선시대 사회의 모습』, 집문당, 2003, 229쪽.

68) 같은 책, 같은 곳, 각주 38.

### 3. 병산서원

<표 12> 병산서원 강학 관련 자료

분류	제목	연도	수록처	간행처
規約	院規(書院規範 中)	미상	朝鮮時代嶺南書院資料	국사편찬위원회
規約	院中可行條件 (屏山書院記事 中)	1678~1679	古文書集成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講案	居齋案	1781~1782	古文書集成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講案	講案	1854	古文書集成 20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원규院規

이 원규는 임고서원의 서원규범書院規範에 수록된 것으로, 서원의 운영과 원임의 선발, 유생 공궤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상시 공궤하는 유생은 5인, 찬가饌價로는 매달 2석 5두 4씩 1년에 30석 5두를 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만약 유생이 모이지 않아 비축미가 생기더라도 절대로 다른 용도에 쓰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원중가행조건院中可行條件

원중가행조건院中可行條件은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안에 향례취사개규통문享禮聚士改規通文, 묘내의절廟內儀節, 원사절목院事節目 등과 함께 수록되어 있다.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는 1718년에 원장 이협李浹이 서원의 재정 및 운영에 대한 규정을 수정하여 새로 만들면서 작성한 것으로, 원중가행조건院中可行條件은 그 권수卷首에 실려 있다. 이협李浹은 1717년 봄, 원임들과 함께 서원에 소장된 낡은 서적을 열람하다가 ‘서원학규書院學規’ 1책과 낱장으로 된 ‘원중가행조건院中可行條件’을 발견하였는데, 그 중 원중가행조건은 재정에 대한 규정으로 유세익柳世翊이 원장으로 있을 때(1678~1679) 지은 것이었다. 이에 이를 새로 장책하여 「병산서원기사屏山書院記事」 권수에 수록하고, 상목지자常目之資로 삼는다고 하였다. 서원학규書院學規는 1705년 원장 권태시權泰時가 지은 것으로 그 발문에 ‘이 학규는 죽계, 도산, 천곡 각 서원학규에서 취하여 본원의 학규로 삼은 것이다’라고 쓰여 있었다고 하는데, 그 학규는 전하지 않아 서원규범에 수록된 원규와 같은 내용인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원중가행조건の内容은 유생 공궤와 향사 시 재정 운영, 노비추쇄 등에 관한 것이다.

원중가행조건에 따르면, 본래 원규에는 유생 5인을 상시 공궤하되 2월부터 8월까지 조식朝夕으로 각 미 1승, 9월부터 다음 해 1월까지 조식朝夕으로 각 미 7합씩으로 합 21석 5두, 찬가饌價는 매 월 2석 5두 4씩 모두 피곡皮穀으로 78석 5두 4를 1년의 공궤 비용으로 규정하였는데, 이후 다시 입의立議를 만들어 4월부터 7월까지의 하인들의 농사를 위해 방학하고, 방학 4개월 간의 공궤 비용으로는 50석을 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서원 경작지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유생의 거재 비용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할 걱정이 생기자 다시 규례를 정하여 매년 추수하는 200석 중 60석을 유생 공궤 비용으로 별도 배정하도록 하였다.

#### ○ 거재안居齋案

거재안은 1781년부터 1782년까지 한 차례의 통독과 두 차례의 거재에 대한 기록으로 참여자의 명단 중심으로 기록한 강안講案류 자료이다. 1781년의 통독은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지 원장 유중춘柳宗春의 주도 하에 총 107명이 참여하여 대학을 통독하고, 유중춘이 통독회의 전말을 기록한 병산서원통독안서屏山書院通讀案序와 참여자 명단인 통독시회안通讀時會案을 수록하였다. 서문에 의하면 강학의 절차는 상읍례相揖禮-경독敬讀(백록동규)-알묘謁廟-통독通讀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강학 절차에 없는 알묘謁廟가 들어간 점이 특이하다. 통독의 방법은 청량강의와 마찬가지로 한 장씩 읽고 강론과 토론을 거친 뒤 다음 장으로 이어졌다.

나머지 두 차례의 거재는 18세기 소수서원의 거재와 같이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개설된 삼동거재三冬居齋이다. 두 차례 모두 10월 16일~12월 15일까지 보름씩 4巡으로 나누어 윤번으로 시행되었으며, 순마다 적게는 8명, 많게는 17명까지 참여하여 원규에 규정된 상공常供 인원을 초과하고 있다. 1781년에는 총 45명, 1782년에는 46명이 참여하였으며 각 거재安居齋案에 자, 생년, 각자 독서한 서책과 함께 명단을 수록하였다.

#### ○ 강안講案

강안은 1789년 2월 1일과 4월 2일 두 차례의 고강考講 기록이다. 2월에는 강생講生 41명과 동몽 22명, 4월에는 강생講生 25명과 동몽 20명이 강講한 서책의 범위, 성적, 자, 생년 등을 기록하였다. 2월의 동몽은 고강 기록 없이 명단과 생년만 기록하고, 4월에는 모두 자, 생년은 기록하지 않았다. 고강 서책으로는 사서삼경과 소학이 보인다.

### 4. 도동서원

<표 13> 도동서원 강학 관련 자료

분류	제목	연도	수록처	간행처
規約	院規	1604	寒岡續集 권 4	*
序	育英齋序	1788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育英齋完議	1787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育英齋節目	1787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居接錄	1788. 4/ 1789. 5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鄉中改完議	1789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鄉中改)節目	1789	道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기타	道東書院示居接儒生	1631	東溟集 권 3	*

#### ○ 원규院規

도동서원 원규는 서원의 주향인 한훤당의 외증손 한강寒岡 정구鄭逵가 1604년에 작성한 것으로, 16세기 원규에 비해 강학에 대한 조항이 매우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근향사謹享祀, 존원장尊院長, 택유사擇有司, 인신진引新進, 정좌차定坐次, 근강습勤講習, 예현사禮賢士, 엄금방嚴禁防’이라는 8개의 강령 아래 해당 내용을 상술하고 있다. ‘인신진, 정좌차, 근강습’에서는 유생의 선발 방식 및 강학에 대한 규정을 제시하였다. 유생의 선발은 매년 춘추 향사일에

유생들이 천거하면 의논을 거쳐 선발하되 천거한 사람의 명단도 명부에 함께 기록함으로써 향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였다. 실제로 입원록<sup>69)</sup>에는 원임이나 공사원 등 천거인의 명단이 함께 기록되어 있는데 천거인은 보통 1명, 많게는 3명에서 5명까지 기록된 것을 볼 수 있다. 천거 대상은 ‘20세 이상 학행이 있는 자, 사마시나 향시 입격자, 재주와 행실이 뛰어난 자’로 규정하였으나 이하의 세주에 ‘대개 학행의 성취가 어떤지를 살필 뿐, 어찌 과거 입격 여부를 따지겠는가’라고 하여 과거 입격 여부보다는 학행을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도록 하고 있다.

또 연령에 따라 입학생의 거주공간과 교육과정 및 학습방법에 차이를 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처음 배우는 어린 아이나 20세 이하는 양몽재에 입학한다’는 대목에서 도동서원의 학생은 20세 이상의 유생과 20세 미만의 동몽으로 구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거주공간 뿐 아니라 부과되는 교육과정과 학습방법에도 차이가 있었다. 유생은 경전·성리서·역사서·자서·문집을, 양몽재생은 소학을 읽도록 하되, 유생에게는 표준화된 학습량을 부과하지 않고 능력에 따라 각자의 진도에 맡긴 반면[任其所讀], 양몽재생은 소학을 암송[誦習小學]하게 함과 동시에 철저한 계획에 따라 학습과정을 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과거공부에 대해서는 ‘서원에 입학한 선비는 과거공부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과거공부에 마음이 완전히 쏠리지 않고 위기지학에 마음을 기울이도록’ 경계함으로써 서원에서의 과거공부를 소극적으로 인정한 퇴계의 견해를 따르고 있다. 또 근강습勤講習 조항 아래, 후접례後接禮나 귀가례歸家禮 때 음식물을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소수서원의 파접례와 같은 것으로, 파접 때마다 관에서 보내온 술과 음식으로 성대하게 연회를 열었던 소수서원의 파접례와 대조되는 대목이다.

#### ○ 육영재서育英齋序·완의完議·절목節目

육영재育英齋는 18세기 후반 현풍현에서 설치한 것으로, 도동서원에 직접 속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육영재의 강학은 대부분 도동서원의 구성원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이며, 1789년 완의에 ‘교원校院’이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향교도 참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육영재서育英齋序는 1787년 현풍 현감으로 부임한 조정현趙廷獻이, 전임 수령 김광태金光泰가 육영재를 창설한 뜻을 이어 1788년 2월에 태고헌太古軒에서 백일장을 개설하여 15인을 뽑아 육영재에서 거접을 시작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완의와 절목은 한 해 전, 1787년 3월 초4일에 훈장訓長 곽한상郭漢相 등 3인과 접유接儒 김홍기金洪器 등 15인에 의해 만들어졌다. 완의의 주 내용은 거접 유생과 임원 선출에 관한 것으로, 거접 유생은 관宦에 품의한 뒤 백일장을 개설하여 15인을 선발하는 것을 정식으로 삼고, 임원은 파접 시에 접 중에서 천거하여 뽑도록 하였다.

절목에 따르면, 거접은 매년 3월 초 1일에 개설하며, 거접 유생의 선발은 관에 품의하여 백일장을 설치하고 15인을 뽑되 시詩에서 11인, 부賦에서 4인을 뽑도록 하였다. 임원은 파접 시 접중에서 뽑되 뽑힌 사람이 다음 해 백일장에서 선발되지 못하면 거접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훈장 외에 타향원他鄉員은 공채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또한 접 중의 부조에 대한 규정도 있는데, 문과와 생원 진사에게는 5관전貫錢, 무과 출신에게는 2관전貫錢씩 부조하고, 그 외에는 향중鄉中에 큰일이 있더라도 절대 육영재의 재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그 외 육영재의 회계 운영과 문서출납에 대한 조항도 포함하고 있다.

69) 「入院錄」, 『道東書院誌』, 70~119쪽.

○ 거접록居接錄

거접록은 1788년 4월과 1789년 5월 두 차례의 거접에 참여한 유생들의 명단을 자, 생년과 함께 기록한 강안講案류이다. 1788년에는 14인, 1789년에는 16인이 참여하여 절목에 규정한 인원수를 거의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참여자는 조曹씨 1인을 제외하면 모두 곽郭씨와 김金씨이다.

○ 향중개완의鄉中改完議・절목節目

이 완의와 절목은 1789년 8월에 이전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하여 만든 것이다. 이 완의와 절목에 따르면, 옥영재의 재정은 그다지 원활하게 운영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이전 절목에서 1년에 한 번씩 개설하기로 했던 거접을 식년式年에 한 번으로 줄이고, 옥영재의 재용을 향중鄉中이나 교원校院의 일에 범용하지 못하도록 할 것 등, 재정 관리에 대한 사항을 주로 규정하고 있다.

그 외, 김세렴金世濂이 현풍현감 재직 시(1631) 도동서원 거접유생에게 보낸 시에 따르면, 17세기 초에도 도동서원에서 거접이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 5. 옥산서원

<표 14> 옥산서원 강학 관련 자료

분류	제목	연도	수록처	간행처
規約	院規	미상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立議	1618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完議	乙亥(1755?)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講案/節目	入學記	1649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講案	講紙	1802. 8. 17 1817. 1. 5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講案	講案	1813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規約	山堂居接謄錄	辛卯 2. 16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강학재정	立議	甲午 2. 15	玉山書院誌	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기타	年譜	1582	惺齋集	*
기타	年譜	1607	黔澗集	*
기타	會海隱姜先生于玉山書院講太極圖 西銘玉山講義及仁說敬次先生韻	1818	果齋集 권1	*

○ 원규院規

옥산서원원규는 백운동서원원규와 이산원규를 저본으로 작성된 경주부의 서악서원원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 총 17조 중 5조는 이산원규를, 7조는 백운동원규를 그대로 따르고, 나머지 5조에 몇 가지 내용을 보완하여 작성하였다.

그 중 입원자격은 백운동원규를 따라 사마시나 초시 입격자를 우선으로 하고, 학문에 뜻을 두고 조행이 있는 자는 입원을 허락한다고 하였으나, 18세기 후반 유생 선발은 입격자가 아닌 경우 천주薦主의 천거와 고강考講에 의해 엄격하게 이루어졌다. 유생의 명단을 기록한

신천新薦에 따르면, 입격자의 경우 ‘입격자入格 혹은 입격별천入格別薦’이라 기록하고, 입격자 외에는 천주薦主의 성명과 증용, 대학, 소학, 가례 등의 고강 결과를 ‘필강畢講’이라 기록하고 있다.<sup>70)</sup> 이를 통해 옥산서원에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학문적 소양을 지닌 사람만을 원생으로 받아들였음을 알 수 있다.

원임 구성도 백운동원규를 따라 원장院長과 원이院貳 체제로 규정하였으나, 서원 소장 고문서에는 그 외에도 직일直日, 조사曹司, 간임間任, 공사원公事員, 전곡典穀 등이 확인된다. 이 중간임은 서책 인출 및 서원중수를 맡은 소임이며, 공사원은 원임의 선거인이자 유생을 취사取士하여 유안에 올리는 추천인으로 서원운영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 외에 서원재산의 보존관리 및 원내 질서유지와 기강을 세우기 위한 원내 상시출입, 형벌의 집행, 사후유연射侯遊宴 등을 엄금하는 조항이 있고 또한 입원생, 재임의 위법 과실에 대한 경계조항도 있다.

#### ○ 입의立議

이 입의는 1618년 10월 7일에 작성된 것으로, 유생 선발, 원속인院屬人의 침책 및 원안院案에 있는 유생을 강제로 향임鄉任에 능력勒定하는 것에 대한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유생 선발은 매년 대향大享 때 신진新進을 천거하여 가부可否의 의론에 따라 결정하도록 하고, 고강考講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 완의完議

이 완의는 을해乙亥년 2월 13일, 당시 임사任司의 해이로 인한 여러가지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유생 선발, 재우齋宇의 보수, 간소刊所 곡물穀物의 관리, 회계 운용, 노비 추쇄 등 주로 재정 운영에 대한 폐단을 지적하고 있다. 그 중 첫째 조항에 유생 선발의 폐단으로, 증용, 대학, 소학, 가례[庸學學禮]를 고강考講한 후에 유적儒籍에 이름을 올리기로 한 구법舊法이 해이해져, 고강 시 사사로이 청탁하는 것을 능사로 여기는 습속을 지적하며, 이후로는 치졸하게 청탁하지 못하도록, 원장이 고강할 서책의 장章을 직접 추첨하여 당중堂中에 보여준 뒤 응강應講하게 하여 오독誤讀하거나 문의文意를 해석하지 못하는 자는 엄격히 출척하여 입원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 ○ 입학기入學記

입학기는 1649년 10월에 개설된 옥산서원의 거재에 대한 기록이다. 5명씩 6개로 번[學]을 나누어 5일간 윤번 거재[輪回入學]를 시행하였으니, 이 때의 거재는 30일동안 개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두에는 1학學에서 6학學까지 각 5명씩 명단을 수록하고, 말미에는 거재 시 지켜야 할 14개의 조례를 절목의 형식으로 부기하였으며, 마지막에 원장(鄭)과 유사 3인(孫·李·權)이 서압을 하였다. 절목의 주요 내용은 5원員이 일시에 와서 5일간 입학할 것, 제자백가 중 각자 형편에 따라 독서하되 밤낮으로 부지런히 하여 낭비하는 시간이 없도록 할 것, 독서 뿐 아니라 율신수행律身修行에도 힘쓸 것, 매일 조식朝夕으로 식점록食點錄에 착명할 것, 입학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리 식점록에 5일치를 착명하여 5일간 머무른 것처럼 속이는 자는 손도損徒할 것 등이다. 또한 불참자의 경우 횃수에 따라 처벌 조항을 상세히 규정하였는데, 5회 불참하면 출원黜院하되 단자單刺를 올려 미리 사유를 고하면 삭거削去, 4회는 삭거削去하되 단자를 올리면 삭적削籍, 3회는 삭적削籍하되 단자를 올리면 손도損徒, 2회는 손도損徒하되 단자를 올리면 영손永損하도록 하였으며, 단자를 올릴 경우에도 무조건 처벌을 감

70) 「新薦」, 『玉山書院誌』, 672~676쪽.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안의 긴요함에 따라 처벌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강지講紙・강안講案

강지講紙는 1802년과 1817년, 강안講案은 1813년의 유생 고강에 대한 기록이다. 모두 중용, 대학, 소학, 가례의 고강 결과를 통략조通略粗로 평가하고 과목마다 평가 아래에 서압을 하였다. 평가 과목이 을해乙亥년 완의完議에 있는 유생 선발 시 고강 과목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이는 서원 강학 중 이루어진 평가가 아니라 입원 시 유생 선발 시험에서 행한 평가로 보이며, 서압은 전주薦主 혹은 시관試官의 것으로 추정된다. 4과목에서 모두 粗 이상을 맞으면 합격시켰다.

#### ○ 산당거접등록山堂居接膳錄

산당거접등록山堂居接膳錄은 옥산서원의 거접을 산당으로 옮겨 시행하기로 하면서 신묘辛卯년 2월 16일에 작성한 것이다. 서두에, 원래 전 해 가을 문회를 열어 매년 서원에서 거접을 열기로 정하였는데, 해마다 서원에서 거접을 하게 되면 그 폐해를 감당하기 어려우므로 다시 재회를 열어 산당으로 옮겨 개설하기로 하였음을 밝히고, 이하에 절목의 형식으로 거접 시 지켜야 할 규례를 열거하였다. 절목의 내용은 서책 관리 외에 음식, 종이, 남초南草 등 주로 거접 유생의 공례에 대한 내용을 매우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원의 서책을 밖으로 가지고 가지 말 것, 정초지正草紙는 2절지, 둔후백지敦厚白紙는 4절지로 각 한 장씩 지급할 것, 술은 1석미石米를 담아 입접入接과 파접례罷接禮에 쓸 것, 거접을 위한 양식은 원유院儒에게만 공급할 것, 조식朝夕 공례 시 사람마다 상차림[排盤]이 서로 다른 폐단이 심하므로 이후로는 전포展布로 대신하고 식기와 수저는 각자 준비해 올 것, 어찬魚饌은 생염어生鹽魚 중 한 가지씩 공례하고 여력이 있으면 건어물과 미역도 겸용할 것, 남초南草는 입접入接일에 인원의 다소에 따라 분급하고 이후에는 절대 다시 찾지 말 것, 장醬은 미리 기한에 맞춰 산당에 담가 둘 것, 승도僧徒들에게 채가菜價로 조租 3석石과 염鹽 5두斗를 지급할 것 등이다.

그 중 서책 관리를 첫머리에 언급한 것은, 당시 서원의 거접 외에도, 개인적으로 서원의 책을 대여해가 인근 산사山寺에서 독서, 제술하는 사례가 많아 서책 분실이 잦았기 때문이다.<sup>71)</sup> 또 종이 지급에 대한 조항을 통해, 거접 시 제술에 쓰이는 종이를 서원에서 직접 제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개접례와 파접례에 쓸 술을 서원에서 한 섬씩 직접 담그는 것과 남초를 분급하는 것은 소수서원의 사례와 비교할 때 흥미로운 대목이다. 소수서원에서는 1789년 통독 시에 ‘체모에 흠이 된다’고 하여 서원에서 술, 담배의 제공을 금지하기도 하고, 1826년 순제에서는 수령이 1등에게 연초를 상품으로 주기도 하였다.

#### ○ 입의立議

이 입의立議는 갑오甲午년 2월 15일에 작성된 것으로, 근래 해마다 거접이 성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점차 거접에 배정된 재용을 다른 용도에 이용移用하거나 취리取利는 등 폐단이 늘어나자 이를 바로잡기 위해 재회를 열어 거접 재정에 대한 규정을 다시 정하면서 작성한 것이다. 춘추春秋 이하전移下錢 50냥兩 중 10냥兩은 지난 해 추수 때 의논하여 감제減除하기로 하고, 나머지 40냥兩錢 30석곡石數은 거접 비용으로 책정하였으니, 절대로 대여하거나 다른 용도에 이용移用하거나 취리取利하지 말도록 규정하고 있다.

71) 「完議」, 癸酉 2월 초 10일, 『玉山書院誌』.

그 밖에 문집에서, 1582년 겨울에는 금난수琴蘭秀가 손엽孫曄, 이경해李景海 등과 함께 옥산서원에서 회재晦齋의 글을, 1607년 8월에는 조정趙靖이 여러 선생들과 옥산서원에서 주자의 옥산고사를 모방하여 태극도설을, 1818년에는 성근묵成近默이 강필효를 모시고 인근의 수령 및 영남의 사우士友들과 옥산서원에서 태극도설, 서명, 옥산강의 등을 강론했다는 기사도 확인된다.

## 6. 돈암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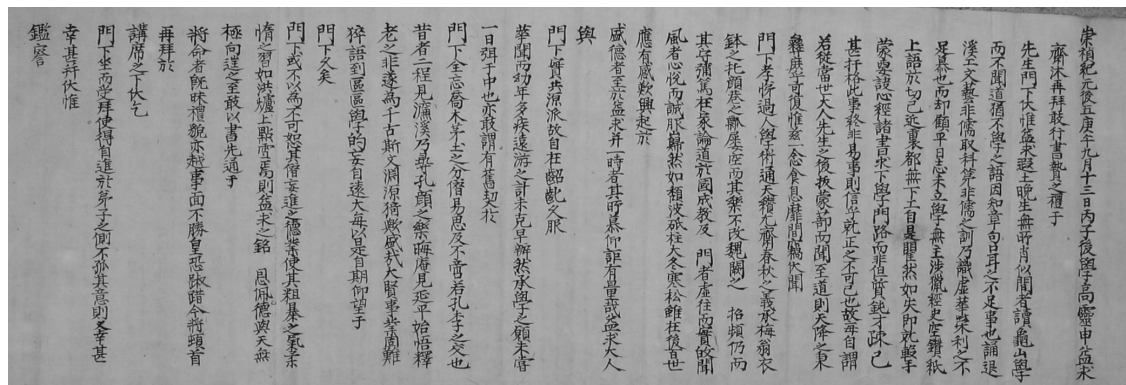
<표 15> 돈암서원 강학 관련 자료

분류	제목	연도	수록처	간행(소장)처
規約	靜會堂立議	1582 이전	靜會堂誌/ 黃岡先生實記 4	국립중앙도서관
規約	上同春堂	1669. 10. 17	明齋遺稿 권9	*
規約	立議	1870	靜會堂誌	국립중앙도서관
規約	講規	1870	靜會堂誌	국립중앙도서관
規約	節目	1862. 12	靜會堂誌	국립중앙도서관
강학재정	學稷節目	1886. 4	遯巖書院誌	돈암서원
강학재정	鳩財節目	1903. 10. 1	遯巖書院誌	돈암서원

### ○ 정회당입의靜會堂立議

돈암서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정회당靜會堂은 1557년<sup>72)</sup> 김장생의 아버지 황강黃岡 김계휘金繼輝가 고운사孤雲寺에 마련한 강학소講學所이다. 이 입의는 정회당의 운영을 위해 김계휘가 작성한 규약으로, 정회당지靜會堂誌와 황강선생실기黃岡先生實記에 수록되어 있다. 총 11개 조항으로 주요 내용은 입학 자격과 재정 운영에 대한 것이다. 입학 자격은 초시 입격자와 문리해통자文理解通者를 기준으로 하고 타관인他官人은 3인으로 제한하였으며, 초입자初入者는 반드시 보거인保舉人의 천거를 받도록 하였다. 임원은 유사 2인, 서기승書記僧과 고직승庫直僧 각 1인을 두어 1년에 한 번씩 교체하도록 하고, 서책의 유출 및 여색과 잡기도 엄금하고 있다. 마지막 조항에는 ‘초입시初入時 관례에 따라 지례摯禮를 행한다’고 하여, 다른 서원의 규약에서 볼 수 없는 ‘지례摯禮’라는 독특한 의례가 언급되고 있다. 지례摯禮는 조선시대 사제지간의 연을 맺을 때 행하는 의례의 한 절차로, 일종의 강학 의례라고 볼 수 있다. 정회당이나 돈암서원에는 지례摯禮에 관한 문서가 확인되지 않지만, 충남 연기군의 임헌회를 모신 덕성서원에 ‘서지書贄’라는 문서가 남아 있어 지례摯禮의 절차와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72) 『年譜略』, 『黃岡先生實記』1.



이 서지書贊은 1870년에 신익구申益求라는 사람이 임헌회에게 제자의 예를 청하면서 올린 것이다. 제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은 이처럼 ‘서지書贊’을 올리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이 예물과 함께 서지書贊을 올리면 스승은 그 글을 통해 상대의 수준과 뜻을 살피고, 동시에 자신의 분수와 학덕, 의리를 헤아려 감당할 수 있는지 따져본 뒤에 제자로 받아들일지의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 글에서 신익구는 첫째, 자신이 설립한 공부의 방향을 말하고, 둘째, 현재 자신의 공부가 처한 한계와 임헌회에게 취정就正을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를 고백하였으며, 셋째, 임헌회 문하의 학문적 성과를 언급하고, 마지막으로 스승을 만나 학문과 인생의 전환점을 맞은 중국 선현의 사례를 예로 들며, 거친 기질과 유약한 마음의 습성을 고칠 수 있도록 제자로 받아주길 간곡히 청하고 있다.

#### ○ 상동춘당上同春堂[기유己酉]

정회당입의靜會堂立議 외에 돈암서원의 원규나 학규는 전하지 않는다. 그러나 1669년 10월 17일 명재가 동춘당에게 보낸 편지에 학규에 대한 상세한 논의가 있는데, 우암, 초려, 신독재의 견해와 정회당 규약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보아, 돈암서원 학규에 대한 논의로 추정된다. 학규 중 쟁점이 된 것은 묘정에 설 때나 당상에 앉을 때 혹은 분향례 때의 위치를 나이, 작위, 품계 중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또 학규에는 율곡의 은병정사학규에 따라 삭망분향을 해 뜨는 시각에 하며, 분향 전후에 재배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문제, 학규에 입학자는 원적에 올리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원적 작성이 중단된 것, 학규에 원근에 관계없이 입학할 허락하되 원적에 이름만 올리고 왕래하지 않는 자는 입학할 금지하는 규정에 대해, 원적에 이름만 올리고 멀리 있어 왕래하지 못할 경우에는 원적에 올리지 말자는 것, 귀천에 관계 없이 입학할 허락한다는 규정에 대해 정회당의 예를 따라 서족·서얼·양민 중 생원진사는 사족과 함께 나이 순으로 원적에 기록하고, 그 외는 각각 줄을 달리 하여 기록하자는 것, 원적에 올릴 때 40세 이상은 소학, 가례, 사서를 시험하여 문의文義를 해석하지 못하면 올리지 말자는 것 등이다. 위치에 대해서 명재는 70세 노인을 가장 상위에 두고 이하는 관작 순으로 하며, 유생은 나이순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돈암서원 학규는 은병정사학규를 따라 작성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학규 제정 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 등을 살필 수 있다.

#### ○ 입의立議

이 입의는 1870년 김지수金志洙의 주도 하에 정회당의 유지遺址에 새로 당堂을 짓기로 하

고 강학계講學契를 만들면서 작성한 것으로, 김계희가 지은 구입의舊立議를 그대로 기술한 뒤 시의時宜에 따라 가감한 내용을 부기하였다. 구입의와 비교하면, 입학 자격은 나이와 귀천, 타향他鄉과 본향本鄉을 따지지 않고 학문에 뜻이 있는 자는 받아들이며, 비록 문리해통文理該通하더라도 수신에 근면하지 않는 자는 허락하지 않도록 하였다. 구입의에 규정한 유사 2인은 장의掌議, 유사有司, 사화司貨로 바꾸고 장의는 계의 모든 의론을 주관하고, 유사는 서책과 문서를, 사화는 재정을 담당하게 하였다. 또 서기승과 고직승 각 1인 대신 수직승守直僧 1인을 주승主僧이 차정하여 서책 등의 물품을 유사와 함께 관리하도록 하였다. 마지막 지례摯禮에 대한 규정은, 계를 설립한 본의는 오로지 강학에 있으나, 재력이 있어야 堂을 짓고 강학할 수 있으니, 모든 계원으로 하여금 지례摯禮에 올리는 예물 대신으로 약간의 재정을 보태도록 하고 있다.

#### ○ 강규講規

이 강규도 1870년 강학계講學契를 만들면서 작성한 것이다. 사계沙溪가 중시했던 가례와 소학, 우암이 중시했던 중용과 대학을 위주로 매년 9월 20일에 모여 강학하도록 하였다. 절차는 봉심奉審 후 강장講長의 자리를 남향으로 설치하고 강장의 자리 앞에 서안書案을 두어 백록동규 등의 서책을 놓고 상읍례를 행한 후 백록동규를 경독敬讀한 뒤 유생이 차례도록 강장에게 나아가 진강進講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에는 수창시를 지어 기록에 남기도록 하였다.

#### ○ 절목節目

이 절목은 1862년에 작성된 것으로, 유생 및 원생의 과강課講, 액내의 원생 및 보노保奴의 액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유생의 과강課講은 이전 거재 시 이미 정한 조례가 있지만 재정상 그대로 따르기 어려우니 춘추 제향이 있는 양정일兩丁日과 사맹삭四孟朔에만 동재東齋 재임齋任이 통문을 돌려 회강會講하도록 하였다. 원생은 향교의 서재생과 같이 군역 면제를 조건으로 원납願納한 사람들로, 이들의 과강課講은 낙강落講자를 추려 군역에 충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원생의 과강은 매달 시행하면 번잡스러우니 춘추로 동재 재임과 부근 유생이 날을 정하여 회강하도록 하였다. (액내)원생의 액수는 백헌촬요百憲撮要에 의거하여 50명으로 한정하고, 액외는 10명으로 한정하여 액내에 껴수가 생길 경우 보충하도록 하였으며, 보노保奴의 액수 역시 원생의 규정을 따르도록 하였다.

#### ○ 학계절목學契節目

학계절목學契節目은 1886년 4월, 관찰사 심상훈沈相薰이 재정을 마련하여 열읍 향교에 학계學契를 설치하고, 특별히 돈암서원에는 300관름官廩을 마련하여 학계를 설치하고 강학 비용으로 삼게 하면서 작성한 절목이다. 절목에는 학계 설치 후 매년 한 차례씩 향음주례와 강회, 사상전례를 시행하도록 하고, 원금은 매년 식리를 놓고 강학 비용은 그 이자만으로 충당하여 원금을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매년 이자 중 남은 돈이 있으면 유실된 서책을 보충하도록 하였다.

#### ○ 구재절목鳩財節目

구재절목鳩財節目은 수령 이중익李重翼이 1903년 8월 서원 제향에 참여하고 제생들과 강학한 뒤, 재정이 없어 돈암서원의 강학이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못함을 안타깝게 여겨 강학 비



용을 마련해주면서 작성한 것이다. 같은 해 10월 유일준俞一濬은 그 전말을 기록하여 ‘제응도당벽우題凝道堂壁右’라는 제목으로 응도당의 벽에 걸어 두었다. 이중익李重翼은 이 때 결부망구結卜亡口 중 2구亡를 돈암서원에, 5구亡를 향교에 소속시키고, 환미색락還米色落 70두斗 중 30두斗는 서원에, 40두斗는 향교에, 유전儒錢 1500냥兩 중 500냥兩은 서원에, 1000냥兩은 향교에 소속시켜 강학 재정으로 삼게 하였다.

#### IV. 결론

이상에서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을 살펴보았다. 첫째, 규약류 자료를 통해서 는 학과, 당파별 원규의 계승과 절목에 나타난 원규의 변용, 서적의 간행과 유통이 교육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였다. 원규는 대개 당색에 따라 형식적으로 계승되는 경우가 많은데 원규와 실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원규의 변용이 절목이나 완의를 통해 드러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원규에서는 백운동서원의 입원 기준을 따랐으나 실제에서는 천거와 고강의 엄격한 선발 절차를 거쳤던 옥산서원, 사문입의斯文立議에는 상시 거접 인원을 10명으로 규정하였으나 18세기 절목에서 15명, 20명으로 인원을 늘리고, 주세붕의 원규에서 입격자 위주였던 선발 기준이 1719년 완의에서 파격罷格으로 확정되는 소수서원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경상감영에서의 서적 간행과, 정조의 서적 반사가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교육 과정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확인하였다. 그 외 돈암서원의 학규 논의를 통해서도 원규나 학규가 형식적 계승에 그치지 않고, 실제에 입각한 철저한 논의와 검증을 거치는 과정 및 학규 제정 시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강학 시행 기록 중 강안류 자료를 통해서도 참여자의 규모와 소임 및 고강성적, 일기류 자료에서는 조식朝食-상읍례相揖禮-경독敬讀-통독通讀-개별 독서讀書-배강背講-수창시酬唱詩 등으로 이루어지는 강학의 절차와 시행 방법 및 서원에서의 하루 일과, 강록류 자료에서는 통독 시 토론 방법과 문답의 수준, 토론 시 훈장의 역할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강학 의례에서는 홀기를 갖춘 정읍례나 상읍례의 정식적 의례 외에도 경독, 개접례, 파접례, 수창시 등 관습적 의례를 살펴보았다. 소수서원과 도동서원에서는 개접례나 파접례 시 제공되는 관의 지원에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고, 옥산서원에서는 아예 서원에서 입접례나 파접례에 사용하기 위해 쌀 한 섬씩 술을 담그는 사례도 볼 수 있었다. 특히 돈암서원의 전신 정회당에 나타난 지례摯禮는 조선시대 사제관계의 고유한 의미와 특성을 보여주는 강학 의례임을 확인하였으며, 소수서원과 정회당에서 강학의 마지막 절차가 수창시로 갈무리된다는 사실은, 조선시대 서원 교육의 본질과 수준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대목임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강학 재정 관련 자료를 통해서도 조선 후기 각 서원의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양사청, 강학계 등 강학 전담 재정기구를 설치하여 강학 개설을 시도하고자 했던 각 서원의 노력을 엿볼 수 있었다. 이 같은 시도는 소수, 병산, 옥산서원의 경우 서원 내부의 자체적인 노력에 의해, 돈암서원의 경우 수령과 관찰사의 도움으로 이루어졌으며, 도동서원의 경우는 관에서 설치한 육영재를 적극 활용하기도 하였다.

그 밖에 소수서원의 사례에서는 지방관의 물적 지원 및 관과 서원의 밀착 관계가 한편으로는 서원의 강학 기능을 유지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원을 마치 관아의 부속기관처럼 여겨 과도한 향응과 빈객, 관아의 침탈로 인한 재정난을 야기함으로써

결국 강학 중단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하는 양면성을 살필 수 있었다.

도산서원의 강회일기와 청량강의에서는 강회 시 서원문고의 활용, 국왕의 서적 반사 및 병호시비와 같은 당시 지역사회의 이슈가 서원 강학 개설의 계기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청량강의는 19세기 영남지역 내 도산서원의 위상을 잘 보여준다.

이 외에도, 본고에서는 활용하지 못했지만 각 서원 관련 인물들의 문집에는 서원 강학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자료들이 비교적 많이 수록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문집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제한된 강학 자료의 한계를 상당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제 1 발표 지정토론 1

### “서원書院 강학講學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토론 1

조 준 호  
실학박물관

현재 조선시대 서원에 대한 연구 중 교육적 기능을 살필 수 있는 강학講學 관련 연구는 자료의 부재로 인해 많은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 자료의 발굴·정리와 연구자의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발표자는 유네스코 등재 대상 서원 6개소를 대상으로 서원 강학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을 살피고 있다. 이 중 강학 설행에 대해 비교적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소수서원의 사례를 중심으로 논문을 전개하고 있다.

#### 1. 유형의 분류와 용례의 정리

발표자는 서원 강학관련 자료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 (1) 규약류規約類 - 원규院規, 학규學規, 강규講規, 절목節目, 완의完議, 입의立議
- (2) 강학시행 - 거재居齋, 거접居接, 통독通讀, 순제巡題(旬製), 백일장白日場
- (3) 강학의례 - 정읍례庭揖禮, 상읍례, 강습례講習禮, 경독敬讀, 개접례開接禮, 파접례罷接禮, 수창시酬唱詩
- (4) 서원[강학]재정 - 양사청養士廳, 학계學契 등

앞으로 서원 강학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발표문에 사용한 여러 용어用語들에 대해 당시 여러 서원에서 사용한 용례를 조사 축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 이 작업은 조선시대 서원 강학의 유형과 특징을 규명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작업으로 판단된다.(중국서원의 사례)

#### 2. 소수서원의 강학 서술 부분에 대한 질문

발표문에서 밝혔듯 소수서원의 강학관련 자료는 현재 17세기 중반~19세기에 걸친 기록이 상세하게 남아 있다. 관련된 많은 자료를 분류·정리한 발표자의 노고를 발표문에서 느낄 수 있다.

글의 내용을 살피면, <표5> 소수서원 강학 관련 기사를 분석한 부분은 조선 서원이 전개 과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발표문 14쪽)

- 1) 18세기부터 소수서원에서 작성하기 시작하는 거재록居齋錄 부분

퇴계의 서원론 정립이후 조선 서원의 독특한 학습방식은 위기지학爲己之學의 학습을 위주로 하는 ‘거재장수居齋藏修’라 말할 수 있다. 17세기 퇴계의 영향을 받은 여러 서원에서 이루어졌던 거재居齋의 방식이 소수서원에서는 18세기에 들어와 설행되고 기록으로 작성되는 배경은 무엇인지 궁금하다.

## 2) 권학절목勸學節目 등의 반포와 소수서원의 운영의 성격 문제

18세기는 주지하다시피 조선 서원의 쇠퇴기로 알려져 있는 시기였다. 아울러 지방 관학을 대표하는 향교 역시 교육적 기능이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향촌 교학진흥책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제기되었다.

이러한 진흥책은 발표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18세기 이후 소수서원의 운영 양상과 결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당시 관료들이 논의하고 있었던 진흥책의 내용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았다. ① 지방관의 감독하에 재정 등 교육여건 정비를 통한 거재강학의 설행, ② 과거 공부와 강학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내용 개선과 시험제도 활용, ③ 면리面里단위의 교학 체제 운영 담당자인 사장師長·훈도訓導 등의 엄선 등이었다.

18세기 소수서원의 운영은 이러한 향촌진흥책과 결부지어 이해해 볼 수 있다. 서원의 院長을 지방관이 역임하였고, 지방관이 주도하에 거접居接, 백일장白日場, 문회文會를 설행한 점, 그리고 유생의 거재강학居齋講學의 실시 등에서 그러하다(1738년 부사 임상정이 거재절목을 작성하여 강회를 설행한 사례가 대표적임).

또한 18쪽의 <표 6> 거재잡록居齋雜錄의 구성에 나타난 내용도 지방관 주도의 서원 운영을 살필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표 6>에 따르면, 18세기 소수서원의 거재잡록居齋雜錄에 기록된 총 12회의 강학관련 내용 중 순제와 백일장이 7회로 절반이상의 빈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백일장방목白日場榜目’이라는 표현이 소수서원 관련 기록에서 처음 나타나는 시기이기도 하다.

요컨대 발표문에 나타난 소수서원 운영에 대한 주요 사실들은 조선 서원 본래의 운영 방식이라기 보다는 향촌 교학의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관료층들[官]이 주장했던 방안을 충실히 실현하고 있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물론 이러한 방식이 소수서원이 아닌 다른 서원에서도 이루어졌는지의 여부는 자료의 미비로 발표문에서는 확인할 수는 없다. 하지만 소수서원이 가졌던 위상을 고려할 때 소수서원만의 특징이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해 본다.

## “서원書院 강학講學 관련 자료의 유형과 특징”에 대한 토론 2

김 경 용  
한국교원대학교

### 1. 교육사 자료와 분석의 새로운 지평

종래에 조선조의 전통 교육기관의 교육 활동과 기능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활발한 편이 아니었다. 학교에 대한 연구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을 둘러싼 향촌 사회의 세력 경쟁이나, 이른바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또는 경제적 기반, 향사에 치우친 폐단 등을 논하는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인원과 재정 또는 정치적 역학관계 등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조선시대 교육기관의 양대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강학과 제향에 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은 편이다. 조선후기에는 각 교육기관이 강학기능은 상실하고 제향기능만 근근히 유지하던 절름발이 교육기관이었다고 비판은 하면서도 정작 그 제향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조차 드물다.

즉, 조선조 교육기관의 실상을 볼 수 있는 강학·제향에 주안점을 둔 연구보다 각 교육기관 및 관련 인물들의 사회·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정치적 위상과 영향력, 또는 교육기관 운영을 둘러싼 주도권 다툼이나 갈등 등 교육사적인 입장에 볼 때는 부차적이고 주변적인 데 주목한 연구들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강학 관련 서원자료에 대한 연구를 접하게 된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또한, 서원·향교·양사재 등 조선시대 지방교육기관에 대한 구체적이고 밀도 있는 사례연구가 나타나고 있고, 강학 또는 제향에 대한 규정이나 절차의 소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루어진 활동에 대한 연구가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조선 후기 교육제도나 현상에 대한 이해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조선조의 학교에 대한 다양한 사료의 확보가 의미있는 연구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유념해야 할 점이 있다. 사료의 분석작업에 있어서, 기존에 자리 잡고 있는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대한 일반적 이해를 잠시 괄호 안에 넣어 둘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조선시대 교육기관에 대한 아래와 같은 이해가 갖는 영향력이 굳건히 작용한다면 다양한 귀납적 사례에 대한 분석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선 중엽 이후로는 향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문묘제사의 형식만 남아 쓸데없는 빈 껍질만이 한 마을에 한 개 꼴로 있어 고종이 갑오개혁한 뒤에까지 지속되었다. ... 서원의 폐해를 일괄하면, 一. 향교의 학생이 서원으로 옮겨 가기 때문에 향교가 쇠퇴하는 원인이 되었다. 二. 적당한 사장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놀고 먹기를 일삼는 일이 많았다.<sup>73)</sup>

향교는 이조 초기에 있어서는 국왕의 적극적인 문교 장려정책의 결과로 一邑一校 정도에까지 보급되었으나, 이조 중엽을 거쳐 그 말기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고 있어 학교로 생각할 수는 없었다. ... 이와 같이 좋은 의도로 출발하여, 한 때는 지방문화와 교육의 중심이

73) 이만규(1947). 『조선교육사 I』(1991년 기획출판 거듭 판), p.171,187.

되어 적지 않은 역할을 담당했던 향교도, ... 이조 중엽부터는 점차로 쇠퇴하기 시작하여, 그 말기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게 되고, 오직 제사기관으로서 남아 있게 되었다. ... 서원에 따라서는 자격 있는 스승이 없었기 때문에, 지방의 청년 자제들이 모여 학문의 연수보다도 잡담과 놀이로써 일을 삼았다. ... 19세기 중엽에 접어들어 그 말엽을 향하여 가는 동안의 서원은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분히 상실하게 되고, 왕년에 누렸던 명성은 땅에 떨어져 있었다.<sup>74)</sup>

조선조의 학교에 대한 비난에 가까운 이런 어처구니없는 자평은 사실 아래에 소개하는 일본인들의 물지각한 빈정거림을 고스란히 옮겨 놓은 것이다.

그러나 당시(선조대)에 이미 향교의 교육은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 그 후 조선의 각지에 서원이 무더기로 세워져 서원이 없는 고을이 거의 없을 지경이 되었는데, 그곳은 부근의 유생들이 모여서 시정의 득실을 논란하고, 향사 즉 선현에 대해 제사를 지내는 일 외에는 교육상 거의 공헌하는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조의 융성기에 이르러 이미 지방의 학교 즉 서당과 태학의 중간기관인 향교는 유명무실하여 그 기능을 상실했는데, 그 안에 세워져 있는 문묘에 대한 제사는 초하루·보름에 분향례를 지내고 봄·가을에 석전제를 성대하게 지내는 등 단지 의식 기관으로서 유지되었을 뿐이다.<sup>75)</sup>

이조의 향교는 선조 이전에 이미 교육의 내실을 상실한 게 확실하다. ... 유생은 모두 향교를 떠나 서원으로 몰려 들었는데, 강학과 수도修道에 힘쓰지 않고 놀고 먹으며 논란을 일삼는 무리가 되어 중앙정계의 봉당과 표리가 되어 조정의 정치를 비난하고 심지어는 서원을 근거로 서민을 괴롭히는 등 그 폐해가 백출하는 데 이르렀다.<sup>76)</sup>

한 때는 각 지방 두루 보급되어 융성하게 될 것 같았지만, 임진란 이후 누차의 병란을 겪음에 따라서 향교는 극도로 황폐해졌는데, ... 이조 중세 이후에는 점점 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고 단지 문묘에 대한 제사만은 성대하게 행해졌다. ... 요컨대, 서원의 특색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가 폐해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점은, 첫째, 서원은 결국 향교보다도 융성해져서, 향교의 유생도 서원에 몰려들어 다수가 모였지만 적당한 지도자가 없었기 때문에 강학과 수도修道를 하지 않고 무리지어 놀고 떠돌고 먹고 마시기를 일삼는 자가 많았다는 사실. ...<sup>77)</sup>

74) 오천석(1964). 『韓國新教育史 上』(1975년 광명출판사 판), pp.26-30.

75) 明宗宣祖初年は李朝極盛時代であつて文化其頂點に達下のである。然るに當時に在りて既に郷校の教育は有名無實となつた。... 然し其の後朝鮮の各地に書院簇起して殆ど郷として書院あらざるはなきに至つたが其等は附近儒生達の集會して時政の得失を横議し此に享祀する所謂先賢を祭る外には教育上殆ど貢獻する所がなかつた。されば李朝盛代に至りて既に郷庠即寺小屋と太學との中間機關たる郷校は有名無實其の機能を失つたが同基址内に健てられたる文廟の祭祀は依然朔望の焚香春秋の釋奠とは盛大に行はれ單に儀式的機關として其の傳習を維持した。

高橋 亨(1920), 『朝鮮の教育制度略史』, 京城: 朝鮮總督府學務局(『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第26卷)에 수록), pp.19-20.

76) 44) 李朝の郷校なるものが宣祖以前に既に教育の實を失つたことが判かる。... 儒生は悉く郷校を去つて書院に歸したが、講學修道を務むるものなくして遊食横議の徒と化し, 中央政界の朋黨と表裏して朝政を誹議し, 甚しきは書院を根據として庶民を苦めるなど其の弊害百出するに至つた。

小田省吾(1924). 「朝鮮教育制度史」. 『朝鮮史講座, 分類史』. 朝鮮史學會(『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第26卷)에 수록), pp.46-48.

77) 一時は各地方治く普及し隆盛に赴きたるものの如きも, 壬辰亂後屢屢兵亂を経て遂に郷校は荒廢を極むるに至り, ... 李朝中世以後に在りては愈愈教育機關としての機能を失ふに至りしが唯文廟の祭祀のみは盛に行はれた。... 要之書院の特色は之を充分認め得るけれども弊害として吾吾が考へなければならぬ點は, 一, 書院は遂に郷校よりも隆昌となり, 郷校の儒生も書院に走り, 多數集り而も適當の指導者なき爲め講學修道を爲さず, 群居遊談餽啜を事とする者多くなりしこと。

高橋濱吉(1927). 『朝鮮教育史考』, 京城: 帝國地方行政學會 朝鮮本部(『日本植民地教育政策史料集成(朝鮮篇)』, 第

조선후기 서원·향교에 대한 이런 평가는 일본에 의한 조선의 교육 및 사회에 대한 식민통치 작업을 정당화 하려는 일본인의 저술에 등장했던 것으로서, 조선에는 이미 학교다운 학교가 없으니, 일제에 의한 제반 조치가 불가피했고 필수적이었다는 기만적 논조에 등장한 조선후기 서원·향교상을 기존의 일반적 통설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에 그대로 수용된 통념이 해방 이후까지 답습되어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윤희면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교육사 관련 서적과 논문들 대부분은 이만규가 『조선교육사 상-구교육편』(을유문화사, 1947)에서 “향교는 제전의 의식만 남고, 서원은 협잡의 굴窟이 되고, 서당은 궁유窮儒, 한사寒士의 결식처乞食處가 되고, 과장科場은 자작借作, 구취構取의 사기소詐欺所가 되어 관사官私를 통하여 교육은 영락하였다”(p.149)고 설명한 것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는 정도에 머물러 있다.<sup>78)</sup>

이런 조선후기 서원·향교상은 조선후기 서원·향교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자료를 실제로 확인·검토·분석해 보기 이전에 이미 접근해 들어가는 문제의식과 시각에 크게 작용하기 쉽다.

## 2. 강학 시행 자료의 중요성

이 연구에 소개된 자료들 중에서 강학 시행에 관한 것이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 향교·서원 및 각종 양사재養士齋가 강규講規·학규學規·원규院規·재규齋規 등 나름대로의 강학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었지만, 지금까지 이런 규정이 실효성이 있는 것이라고 전폭적인 인정을 받고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조선후기에 들어서 향교와 서원은 대부분 교육적 기능을 상실했다고 보는 통설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들어 인터넷 환경이 갖춰지고 그동안 여러 국학연구 기관이나 도서관·박물관에서 축적해 온 고문서 자료들에 대한 섭렵이 활발해지면서 이런 종래의 관행적 시각은 계속 유지되기 힘든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조선시대 향교·서원의 강학 관련 규정들은 문자로만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허구가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계속 출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윤희면은 조선후기 서원의 교육회복을 위한 노력에 주목하고 관련 자료를 조사·분석하여 강학講學·거접居接·순제巡題·백일장白日場 등 다양한 형태의 서원교육 실태를 정리하였으며, 결론적으로 “따라서 조선시대에 서원이 초기에는 어느 정도 교육적 기능을 발휘하다가 17세기 이후 당쟁과 사회 변화에 따라 교육기능을 상실하고 제례기능만 유지해 오고 있었다는 설명들은 이제는 수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sup>79)</sup> 이런 주장이 가능하게 된 것은 관련 자료를 풍부하게 수집·정리하여 분석했기 때문이다.

## 3. 자료의 체계적인 분류와 정리

자료를 다양하고 풍부하게 수집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체계적인 분류·정리이다. 이

27卷』에 수록), p.66,83.

78) 윤희면(2004). 서원교육의 전개와 교육효과. 『조선시대 서원과 양반』. 서울: 집문당. p.348.

79) 윤희면의 앞 글, p.389.

런 작업에서 그 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분류·정리의 효율성과 자료의 활용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분류·정리의 틀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이 연구에서는 서원의 강학 자료를 규약류, 강학시행기록, 강학 의례, 강학재정 등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는데, 강학의례나 강학재정 관련 자료도 역시 규약류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크게 규약류와 시행류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세부분류를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즉, 규약류 자료는 일반규약, 강제講製규약(거재 규약 포함), 의례규약, 재정규약 등으로 세분하고, 시행류 자료는 명안名案류(강안講案·방목 등), 일기류, 강록류, 잡록류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것이다.

또한 가장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는 강학 관련 자료 분류에서 강학 시행의 형태를 거재, 거접, 통독, 문회, 백일장, 순제 등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학교에 기속하는 여부에 따라 거재(통독·거접 포함)와 백일장(문회), 순제 등으로 조금 단순화하여 분류하는 게 더 타당할 듯하다. 거재는 강서, 거접은 제술이라는 일반론이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가지 더 첨언한다면, 이 연구에서 강학 관련 자료로 강서講書·제술·의례·재정 등에 대한 자료를 포괄적으로 아울러 제시하고 있는데, “강학講學”이라는 용어가 제술·의례·재정 등은 제외한 “강서講書” 또는 “강경講經”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서원 강학 관련 자료”라는 명칭 대신에 “교육관련서원자료”로 대치하는 것이 어떨까 한다.

#### 4. 의문점

조선시대 사액서원에 대한 기사를 보면, 이들 서원을 사학으로 구분하고 있는 종래의 이해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조선 최초의 사액서원이라고 하는 소수서원의 경우, 『운원잡록』의 첫 번째 기사나 이 연구의 <표 5>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보더라도, 창설 및 운영의 과정을 볼 때 이 학교를 공공행정과는 거리가 있는 사사로운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냐는 것이다.

향교와는 달리 서원·사우는 경우에 따라 다양한 층차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적어도 사액서원의 경우에는 일률적인 평가가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들을 사학으로 구분해 왔던 종래의 시각에 의문을 던지고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액서원의 경우 이들을 “국학”으로 보았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해명이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면훈장과 관련된 기사가 소수서원의 「거재록居齋錄」에 등장하는 것이 당시의 교육체제 및 운영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

또한, 이 연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자료 「구재절목鳩財節目」의 기사도 서원·향교의 운영 및 기능과 관련하여 한 치의 의문도 없이 낱낱이 풀이되어야 한다. 즉, 갑오경장 이후 신교육을 보급하던 시기 1903년에 서원과 향교에 강학 재정을 마련한 것, 그리고 서원에 비해 향교에 더 많이 재정지원이 이루어졌던 것을 기존의 교육사 서술과 조응하여 타당하게 해명할 수 있는가, 만약에 그럴 수 없다면 기존의 교육사 서술을 어떻게 조정해야 할 것인가 등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우리를 당황하게 만드는 사료의 등장은 얼마든지 계속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사료가 등장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 당황하지 않을 수 있도록 교육사 연구가 체계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



## 제 2 발표

#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최 광 만 • 충남대학교 교육학과



##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

최 광 만(충남대학교 교육학과)

- I. 서론
- II. 호계강회의 개황
  - 1. 호계강회의 개설 배경
  - 2. 강회 진행 과정
- III. 호계강회의 강학유형
  - 1. 『호계강록』의 담론 분포
  - 2. 담론 분석
  - 3. 강학유형
- IV. 호계강회의 강학정신
  - 1. 대산학 계승의 사명감
  - 2. 절제와 소통의 토론정신
  - 3. 치열한 논변의식
- V. 결론

### I. 서론

서원에서 강학이 차지하는 중요성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퇴계가 서원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할 당시부터 서원은 강학의 중심지로 자리매김 되었고, 그 정신은 서원의 각종 규약에 반영되어 왔다. 그러나 서원 강학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의 서원 연구는 강학활동에 대해서 그다지 활발하게 조명하지 않았던 감이 있다.<sup>1)</sup>

여기에는 현대 연구자의 선입견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생각된다. 물론 서원의 강학활동을 추적할 수 있는 관련 기록이 부족하다는 점은 근본적인 어려움을 제공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가중 시킨 데에는 조선 후기 교육사를 정치경제사적 관점에서 조명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강학관련 자료를 발굴하고 정리하려는 노력이 제한되고 그나마 얻은 자료도 한 측면에서 해석하는 요인이 작용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서원의 강학활동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구의 관점부터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새로운 관점이란 우선 서원의 강학활동을 포괄적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

1) 정만조는 2000년대 이전의 서원연구 동향을 정리하면서 80년대 후반부터 정치사회적 연구가 단연 활기를 띠어 왔다고 지적한다.(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조선시대사 연구총서1, 집문당, 1997, pp.329~353. 참고) 2000년대 이후 서원의 강학활동에 주목한 연구들은 뒤의 참고문헌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 들어 있다. 서원의 강학활동에 접근한다고 할 때, 현대의 연구자들은 부지불식간에 현대 학교교육에서 이루어지는 수업의 양식을 염두에 두기 쉽다. 그러나 이러한 안경을 고집하게 되면,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양한 강학활동을 시야에서 놓치게 된다. 물론 서원 강학의 핵심은 강규講規 등에 표현된 것처럼 재생들이 거집하면서 일정한 과정을 이수하는 활동이겠지만, 이 외에도 학자의 강의, 학자와 유생들의 집중세미나, 선생과 학생의 질의응답, 그리고 편지교환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은 『강의講義』, 『강록講錄』, 『문답問答』, 『문목問目』, 『서書』 등으로 남겨졌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서원 강학자료를 새롭게 발굴하여 정리하는 노력은 물론이고, 그 동안 확보되어 있는 자료도 포괄적인 관점에서 다시 읽어내는 노력이 요청된다. 이때 이러한 노력은 서원의 강학활동을 유형화시키는 일과 표리관계를 이루면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 포괄적인 관점에서 자료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강학에 포함되는 여러 유형에 대한 이해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서원의 강학활동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당시인의 교육적 관심을 재구성하는 일이 필요하다. 이 말은 역사적 현실과 상관없이 당시인들의 주장을 찬양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만 현대의 연구가 서원을 지나치게 정치경제적 층차로 환원시키려는 경향이 강하다는 문제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역사적 현실에는 정치경제적 층차 말고도, 다양한 층차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만일 당시인의 교육적 관심을 통해서 현대 연구자들이 포착하지 못하는 새로운 교육문화적 층차를 발견할 수 있다면, 서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보다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조선 후기 교육사가 구체적인 맥락을 실증하지 못한 상태에 있고, 또 그러한 상태에서 서원을 조명해 왔다면, 이러한 접근의 필요성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호계강록虎溪講錄』<sup>2)</sup>에 나타난 강학의 유형과 강학의 정신을 조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sup>3)</sup> 『호계강록』은 1856년에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회를 생생하게 묘사한 자료이다. 호계강회는 호계서원 관련자에 한정되지 않고 안동 인근의 학자가 함께 참여한 대규모의 행사였지만, 조선 후기 서원 강학활동의 꽃으로서 강학활동의 구체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판단된다. 어려움 속에서 강회가 개설되는 과정, 개방적이고 진지한 강학의 모습 그리고 장식 유치명의 관후한 태도에 나타나는 교육적인 배려 정신은 호계강회라는 교육공간을 19세기 중반의 조선 상황에서 새롭게 부각시켜준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계강록』에 기록된 내용은 이 자료를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강회에 참석하고 있다는 착각마저 들게 한다. 이하의 내용은 이러한 연구자의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당시의 교육공간을 이해하려는 시도이다. 논의순서는 호계강회의 개황, 호계강회의 강학유형 그리고 호계강회의 강학정신을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2) 『虎溪講錄』의 표제는 『虎溪講錄 附高山講話私筭』로 되어 있지만, 이 글에서는 간단히 『虎溪講錄』이라 하였다. 이 자료는 한국학대학원에서 입수한 ‘安東法興 固城李氏古文書’에 들어 있다. 이 글에서는 2007년에 한국국학진흥원에서 영인한 『조선시대 서원일기-원문-』을 활용하였는데, 여기에는 講學日記로 분류해 놓았다. 그러나 이 책에 수록된 『호계강록』은 착간 부분이 있다. p.426은 p.428 다음에 배치되어야 한다. 또한 『호계강록』의 내용 가운데 장식 유치명과 관련된 담론은 그의 문집 『定齋文集』에 발췌해서 수록되어 있다. 卷11 ‘答虎溪講會諸生問目’이 그것이다.

3) 권오영은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에서 『호계강록』에 실린 호계강회와 고산강의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 바 있고, 전병철은 「대산학파의 고산정사 강회와 성리설 강론」에서 1811년에 이루어진 「고산강의」를 연구하였다. 이 글은 이 연구들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각 연구의 출처는 참고문헌에 수록하였다.

## II. 호계강회의 개황

### 1. 호계강회의 개설 배경

#### 1) 지방관의 교육진흥책

호계강회는 1856년 11월에 호계서원에서 진행된 강회를 말한다. 『호계강록』의 서론 부분에는 강회가 개설 되는 배경을 알려주고 있는데, 우선 눈에 띄는 내용은 ‘丙辰(1856)五月巡相申公錫愚 憂學政廢弛 行關列邑 令選士講學’이라 한 기록이다. 이 기록에 따르면 호계강회가 개설되는 직접적인 계기는 서원의 자체적인 발의가 아니라, 경상감사 신석우(海藏, 1805~1865)의 학정쇄신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신석우가 경상감사로 부임한 것은 1855년 10월 6일로 확인되는데<sup>4)</sup>, 부임 초부터 지역의 강학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인 셈이다. 호계강회는 이러한 분위기에서 시작되었다.<sup>5)</sup>

그러나 호계강회는 감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열리지는 못했다. 감사의 관문은 5월에 안동부사 조재웅趙在應(1803~?)을 거쳐 호계서원에 도착했지만 응답하지 못했고, 8월에 재차 관문이 도착하였을 때에는 전참봉前參奉 유치호柳致鶴(東林, 1800~1862) 등을 책임자로 선발하여<sup>6)</sup> 강회를 시행하려고 했으나 당시 지역 유림사회 내부 문제로 인하여 진행시키지 못했다. 그리고 9월에는 감사가 선비들을 모아 낙육재樂育齋에서 회강하도록 하였지만, 이 지역의 선비들은 참가하지 않았다. 이후에도 강회를 열라는 감영의 요구는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10월 보름에 장식 전참관 유치명柳致明(定齋, 1777~1861)이 임천서원臨川書院에서 여러 선비와 이 문제를 논의하면서부터 구체적인 강회 개설계획에 착수하게 되었다. 이 회의 결과 11월 10일에 강회를 개설하기로 결정하였고, 관련 내용을 지역에 통문하여 준비에 들어갔다.

호계서원에서 강회가 개설되는 일련의 과정은 당시 강회를 여는 일이 상당한 애로가 있었다는 점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의지가 강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실제로 신석우는 향교교육도 장려하여 같은 해에 최효술崔孝述(止軒, 1786~1870)로 하여금 『심경心經』을 강론하게 했고<sup>7)</sup>, 관련 자료가 발견되지는 않았지만 이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도 강회가 개설되도록 지원한 것 같다.

#### 2) 유치명의 교육적 관심

호계서원 강회가 몇 차례에 걸친 감사의 독촉 과정에서 어렵게 개설되기는 하였지만, 서원 관계자의 의지가 약했던 것은 아니다. 특히 개설 과정에 촉진자 역할을 했던 유치명은 서원의 강학활동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 인물이었고, 호계강회 개설 논의도 그가 이

4) 『哲宗實錄』 卷7, 6年 10月 6日, 以申錫愚爲慶尙道觀察使.

5) 1856년에는 경상도에 큰 홍수가 일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학정쇄신정책은 계속 진행되었다.(이관성, 「海藏 申錫愚의 생애와 문학론」, 『한문학보』 제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김명호, 「海藏 申錫愚의 『入燕記』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6) 유치호를 훈장으로 선임하면서, 幼學 權璉夏, 金弘洛을 直月로 임명하였다.

7) 홍원식,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예문서원, 2007, p.401. 참고. 『止軒文集』 卷9에 수록된 「心經講錄」이 이 강론의 내용이다. 홍원식은 어느 향교에서 이루어진 강론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하였지만, 당시의 정황으로 볼 때 9월에 낙육재의 회강에서 이루어졌던 강론일 것이다.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부터 구체화되었다. 그는 이황李滉 → 김성일金誠一 → 장흥효張興孝 → 이현일李玄逸 → 이재李穰 → 이상정李象靖으로 이어지는 퇴계학파의 학통을 계승한 학자로서 이상정(대산大山, 1711~1781)의 학문을 천양해야 한다는 책임의식도 강했다.<sup>8)</sup> 철종이 즉위하자 대산大山의 향사享祠를 세워 유교를 숭상할 것을 요청하였던 사례는 그의 사명의식을 잘 보여준다.<sup>9)</sup>

이 때문에 그는 서원의 강학활동을 진작시키는 데에 관심이 많았는데, 이것은 1846년에 고산서당에서 강의를 마치고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장면에 잘 나타나 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 도道를 강하고 그 사람을 사모하여 제사지내는 것은 학교를 세운 큰 뜻이다. ... 대략 1년이나 3년 또는 5년을 정하여 강좌講座를 개설하되, 임강臨講하는 날에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마친 후에는 3~5일 혹은 6~7일간 자리를 연다면(開筵) 족히 옛날의 마땅한 뜻을 오늘까지 영구히 드리우는 일일 것이고, 또 인하여 인심을 권모勸慕하는 일이 될 것이다. 그러면 斯文을 흥기시키는 데에 그 방도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나의 구구한 의견은 이와 같은데 여러 사람의 뜻은 어떠한가?<sup>10)</sup> 座中이 한결같이 동의하면서 말하기를 ....

그의 이러한 제안은 당시 서원에서 강회를 여는 일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유학 특히 대산의 학문을 진흥시키는 사명감이 반영된 것이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유치명의 제안에 원론적으로는 동의하면서도, 그 일을 추진하는 데에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이후 이 지역에서는 10년 동안 대규모의 강회를 개설하지 못한 듯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사정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호계강회는 유치명이 경상감사의 교육진흥책을 계기로 삼아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서원강회를 개설하고자 했던 자신의 뜻을 강하게 반영시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 2. 강회 진행 과정

### 1) 강회 일정

강회개설 논의 초기에는 11월 10일에 시작하기로 하였지만, 몇 가지 사정으로 며칠 늦어지게 되었다. 훈장에 선임되었던 유치호는 종환癘患을 이유로 사임의사를 밝혔고, 그를 대신하여 동주洞主였던 진사進士 김건수金建壽(1804-1866)를 훈장에 임명하였으나 그도 고사하였기 때문이다. 그 사이 재유사齋有司 이문직李文稷과 박형수朴馨壽는 먼저 강유講儒들을 데리고 서원에 머물고 있었다.

11월 14일에는 동주가 강회의 훈장직을 수용하고 15일에 향례享禮를 시행하여 강회가 시작되는 듯 했지만, 이 때에도 동주가 정읍례庭揖禮를 사양하면서 강회는 지체되었다. 강회가 시작된 것은 사의司儀 유치엄柳致儼이 장식丈席 유치명柳致明에게 어려움을 호소하자, 그가 유치호를 대동하여 직접 서원에 나가면서부터였다. 호계강회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겪은 후

8) 권오영,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9) 장지연 저, 유정동 역, 『조선유교연원 하편』, 삼성문화문고135, p.456.

10) 「高山講話私劄」...講其道思其人而祭之又設學之大義也...約爲一年三年或五年之規爲設講座 臨講之日處誠禮祀祀訖開筵或三五日或六年日 足以推古宜今垂之永久 而因得以勸慕人心 興起斯文未必無其道也 區區所見如此 未知於僉意何如也 座中一辭同然曰 ....

17일부터 5일 동안 진행되었다. 그리고 강회 후에는 지역 인사가 함께 참여하는 향음주례(飮酒禮)를 거행함으로써 호계강회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다.

## 2) 강회 목적

호계강회에서 다른 책은 『심경부주』 1권 전체였다. 그런데 호계강회에서 『심경부주』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된 것은 심상한 일이 아니다. 호계강회처럼 대규모의 강회가 이루어진 것은 고산서당강의 이후 10년 만의 일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호계강회가 오랜만에 개설되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유치명과 그 제자들은 어떠한 텍스트를 어떠한 방식으로 강학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였을 것이고, 그 결과로 『심경부주』를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심경부주』는 퇴계가 그 중요성을 인정한 이래로, 퇴계학과는 물론이고 서인계나 양명학계에서도 여러 주석서를 제출했던 책이다.<sup>11)</sup> 또한 『심경부주』는 조선 후기 서원의 교육과정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퇴계학과에서 그 중요성은 더 컸다.<sup>12)</sup>

이러한 일반적인 상황 이외에도 호계강회가 대산 이상정의 추존 작업과 관련이 있다는 점도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대산 이상정은 그 동안 『심경부주』의 주석서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송시열의 『심경석의』에 대하여 퇴계학과의 입장에서 변론한 『심경강록간보』을 저술하였는데, 이 강회에서 제자들과 함께 대산의 관점에서 『심경부주』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점에서 이 강회의 목적은 유치명과 그 제자들이 퇴계 이후 지속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었던 이 책에 대해서 의견들을 소통함으로써, 새롭게 교육의 진흥을 꾀하는 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3) 참가 인원

호계강회에 참석한 사람은 30여명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호계강록』에서 확인되는 선생과 유사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丈席	前參判	柳致明(1717-1861, 80세)
訓長	前參奉	柳致皜(1800-1862, 57세)
洞主	進士	金健壽(1804-1866, 53세)
執禮	前正字	李敦禹(1807-1884, 50세)
司儀	幼學	柳致儼(1810-1876, 47세)
直月		權定夏(1813-1896, 44세), 金弘洛(1817-1869, 40세) 등 2인
直日		李祺稷, 金鎭愨 등 2인
講錄有司		柳致淑, 金毅壽, 柳胥鎬, 金道和, 金斗永, 權世淵 등 6인
(齋有司)		李文稷, 朴馨壽 등 2인

장석(丈席) 이하 유사들은 호계강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었다. 우선 강회에서 선생의 위치에 속한 인물부터 보자. 장석 유치명은 전체 강회를 총괄하는 책임자였고 다른 학자나 강유의 스승이었다. 그와 함께 선생의 역할을 맡은 사람은 훈장(訓長) 유치호와 동주(洞主) 김건수이다. 장석 유치명도 이 두 사람을 중심으로 강회를 진행

11) 홍원식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한국철학총서27, 예문서원, 2007. 참고.

12)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제19집 제2호, 2009. 참고.

한다고 하면서 두 훈장訓長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sup>13)</sup> 따라서 선생의 위치에 속한 사람은 장석을 포함하여 3인이 된다.

유사는 조금 복잡한 성격을 갖는다. 우선 유사 가운데 비교적 나이도 많고 강회에서 거의 선생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발견되는데, 집례執禮 이돈우와 사의司儀 유치엄이 그들이다. 특히 유치엄은 이하에서 밝힐 것이지만, 호계강회를 실질적으로 주도하는 위치에 있었다. 다음으로 직월直月은 강유 가운데에서도 선배에 속한 사람들이다. 기록에는 권정하만이 직월에 임명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김홍락도 직월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up>14)</sup> 마지막으로 직일直日과 강록유사講錄有司는 유사로서의 담당직책이 부여되어 있지만, 다른 강유와 큰 차이는 없어 보인다. 이들 유사 외에도 미리 강유와 함께 강회를 준비하였던 재유사齎有司 이문직과 박형수도 강회에 참석하고 있었다. 따라서 집례 이하 유사는 14인이 된다.

강유講儒는 강회에서 주로 진독進讀과 질문質問을 하는 방식으로 강회에 참여하였다. 『호계강록』에는 각 장의 독서를 맡은 인물이 명시되어 있지만, 이들만 독서를 담당한 것은 아닌 듯하다. 경우에 따라서 각장의 중간 중간에 진독을 담당한 사람의 이름도 수록하고 있고, 또 서문에서 강유들이 『심경부주』를 돌아가면서 읽었다고 한 것을 보면, 모든 강유들이 진독에 참여했다고 판단된다. 참고로 『호계강록』에 진독자로 명시된 강유를 각 장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心經序	李鍾泰		
贊	金奭洛		
心學圖說		李祺稷	直日
人心道心章	金斗永		講錄有司
上帝臨汝章	權世淵		講錄有司
視爾友君子章	-		
閑邪存誠章	-		
敬直義方章	-	權皆淳(主一無適條)	
懲忿窒慾章	柳建鎬		
遷善改過章	-		
不遠復章		柳建欽	
子絕四章	-		
克己復禮章	金漢謨		
主敬行恕章	李宜龍		
中庸天命之謂性章		柳基洛 金養鎭(道鄉鄒氏條) 朴齊學(謹篤是念慮初萌條)	
潛雖伏矣章	金弼洛		
*이외의 강유	金鎭萬, 金相鎭, 柳衍文, 權玉淵, 李堦, 李宅進		6인

이 명단에 따르면 진독자로 명시된 강유는 14인이고 명시되지 않은 강유는 6인이다. 이들을 합치면 총 20인이 되지만, 이 가운데 이기직(직일), 김두영(강록유사), 권세연(강록유

13) 이 명단은 원래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 원래는 동주 김건수가 훈장으로 임명되었고, 유치호는 이후에 유치명과 함께 참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막상 유치호가 참가하게 되자 『호계강록』에는 이전의 결정대로 유치호를 훈장으로 하고, 대신에 김건수는 자신의 직함대로 동주라고 명시한 듯하다.

14) 처음에 직월에는 권연하가 임명되었는데 상을 당하여 권정하로 대신하였다. 그리고 명단에는 빠져있지만 김홍락도 직월급에 해당되는 인물로 보인다. 김홍락은 권연하와 함께 직월에 선임되었었고, 강록의 본문을 보면 강회에서 다른 선생들 못지않게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은 유사명단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실지로는 17인이 된다. 결국 호계강회의 참석인원은 장석 이하 선생이 3인, 집례이하 유사가 14인, 강유 17인 등 총 34인으로 추정된다.

매일의 강회는 새벽에 정읍례庭揖禮를 거행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는데, 장석이 숭교당崇教堂 두 기둥 가운데 서면 훈장과 동주가 좌우에서 시립하였고, 집례執禮는 조계階階에서 서향한 후 홀기笏記를 외치고 백록동규白鹿洞規를 읽었다. 이 때 제생은 정원 아래에 동서로 분립하여 강을 청하였다. 정읍례를 마친 후에는 숭교당에 강석을 설치하여 동주와 훈장이 자리하고, 집례와 사의 이하는 각자의 자리에 열을 짓고 앉아 강회에 참석하였다. 이 때 장석 유치명은 주로 숭교당 옆 주경재主敬齋에 있었던 것 같다. 자리를 잡은 후에는 제생이 돌아가면서 『심경』을 읽고 그 다음 주요 내용에 대해서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다음 절에서는 『호계강록』 본문에 기록된 이들의 담론을 분석하여 담론의 종류를 추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호계강회의 강학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호계강회의 특징이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 Ⅲ. 호계강회의 강학유형

#### 1. 『호계강록』의 담론 분포

『호계강록』의 본문에는 『심경부주』의 각 장마다 참석자들의 문답이 실려 있다. 이 기록은 강록유사들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누군가가 정리한 결과물일 것이다.<sup>15)</sup> 따라서 이 기록 이외에도 다른 문답이 있었고, 같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애초와는 다르게 수록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최종작성자는 매일 진행되는 담론의 맥을 짚어가면서 가능한 중요한 사항을 수록한 것으로 보이는데, 본문에는 이러한 노력의 흔적이 나타난다.

최종작성자는 몇 개의 문답이 마무리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갈 경우 한 칸을 띄우고 다음 내용을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것은 이 강록을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회의 진행 상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의도한 결과로 보인다. 이 글에서 담론을 분석한다고 할 때, 일차적으로 염두에 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 한 덩어리의 문답이다. 그러나 원문에 하나의 담론으로 취급하여 문단을 연결시켜 놓았더라도, 개중에는 내용상 구분해야 하는 담론도 들어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의미상 분절시킬 수 있는 담론은 분리해서 구분해 보았다. 논의의 진행을 위해서 본문에 나오는 문답과 담론 현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5) 『호계강록』의 최종 작성자가 누구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강회에서 이루어진 담론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강회를 주도하였던 유치엄이 가장 유력하지 않은가 하고 추정하고 있다. 특히 호계강회의 기록에 덧붙여 실려 있는 고산강화를 보면 이러한 추정은 더욱 강화된다. 여기에는 약 10일간의 『대산실기』 편집작업을 마친 후 다음날에 행한 향음주례의 진행상황을 기록하면서 ‘장석은 주인이었고 … 치엄은 외람되게 빈상의 자리에 있었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비록 고산강화와 호계강회가 진행된 것은 10년의 차이가 있지만, 각 강회의 기록인 고산강화와 호계강록은 동일한 시기에 다시 정리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호계강록』의 최종 작성자는 동일인물로 판단된다.

<표1> 『호계강록』의 문답과 담론 현황

출처	문답수			담론수		평균 문답수
	문	왈	총수	원문	재조정	
심경서	5	16	21	7	7	3.0
찬	2	10	12	5	5	2.4
심학도설	3	17	20	6	7	2.8
<b>인심도심장</b>	<b>4</b>	<b>21</b>	<b>25</b>	<b>9</b>	<b>9</b>	<b>2.7</b>
상제임여장	1	1	2	1	1	2.0
시이우군자장	1	2	3	1	1	3.0
<b>한사존성장</b>	<b>4</b>	<b>10</b>	<b>14</b>	<b>5</b>	<b>5</b>	<b>2.8</b>
<b>경직의방장</b>	<b>8</b>	<b>31</b>	<b>39</b>	<b>8</b>	<b>12</b>	<b>3.2</b>
<b>징분질욕장</b>	<b>2</b>	<b>13</b>	<b>15</b>	<b>4</b>	<b>4</b>	<b>3.8</b>
천선개과장	2	3	5	2	2	2.5
불원복장	1	3	4	1	1	4.0
자절사장	1	3	4	1	2	2.0
<b>극기복례장</b>	<b>2</b>	<b>23</b>	<b>25</b>	<b>6</b>	<b>7</b>	<b>3.6</b>
<b>주경행서장</b>	<b>2</b>	<b>14</b>	<b>16</b>	<b>3</b>	<b>4</b>	<b>4.0</b>
<b>중용천명지위성장</b>	<b>4</b>	<b>34</b>	<b>38</b>	<b>5</b>	<b>7</b>	<b>5.2</b>
잠수복의장	0	6	6	1	2	3.0
합계	42	207	249	65	76	-

<표1>에 의하면 호계강회는 『심경부주』의 1권을 텍스트로 하여, 총 76개의 담론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문답은 249개가 이루어졌다. 담론의 숫자로 보면 「상제임여장」 등과 같이 1개에 그치는 것도 있고, 「경직의방장」처럼 12개의 담론으로 구성된 경우도 있다. 그러나 담론의 숫자가 곧 각 장의 비중을 말해주는 것은 아니다. 담론의 숫자는 적지만, 논의가 집중적으로 진행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주경행서장」의 경우 담론수는 4개 인데 비하여 문답수는 16개로서, 1개 담론 당 평균 4.0개의 문답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이 장에서 상대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따라서 각 장의 비중은 담론수와 문답수를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이때 주목되는 장은 「인심도심장人心道心章」, 「한사존성장閑邪存誠章」, 「경직의방장敬直義方章」, 「징분질욕장懲忿窒慾章」, 「극기복례장克己復禮章」, 「주경행서장主敬行恕章」, 「중용천명지위성장中庸天命之謂性章」 등이다. 이에 비하여 「상제임여장上帝臨汝章」, 「시이우군자장視爾友君子章」, 「천선개과장遷善改過章」, 「불원복장不遠復章」, 「자절사장子絕四章」, 「잠수복의장潛雖伏矣章」 등은 1-2개의 담론에 그쳐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있고, 「심경서心經序」, 「찬贊」, 「심학도설心學圖說」의 경우 담론은 여럿이지만 개념이나 문장 해석과 관련된 문답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집중도가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주론은 개략적인 것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상황은 각 담론에서 다룬 주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할 때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관심은 각 담론의 종류를

구분하는 데에 있는 만큼, 여기에서는 답론의 주제에 대해 논의하되 각 답론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각 답론의 종류를 살펴보고자 한다.

## 2. 답론 분석

각 답론에 포함된 문답들은 000문, 000왈이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000문으로 된 경우는 총 42개이고, 000왈로 된 경우는 총 207개이다. 그러나 호계강회가 누군가 질문하면 그것에 대답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다. 000문으로 표현된 문장은 대개 강유가 선생이나 선배에게 질문을 제기한 것이지만, 000왈로 표현된 문장의 경우는 최소한 4가지 다른 의미로 구분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강유의 질문에 대한 답변(答辯)인 경우, 강유에게 답변을 유도하는 발문(發文)인 경우, 다른 선생 및 강유의 의견을 촉구하는 발제(發題)인 경우 그리고 논의를 총괄하거나 특정한 주장을 펴는 강설(講說)인 경우가 포함된다. 이러한 의미의 차이는 결국 각 답론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 글에서는 문답형, 발문-대답형, 발제-토론형 그리고 강설형으로 구분해 보았다. 다음의 표는 76개의 답론을 각 종류별로 구분한 것이다.

<표2> 『호계강록』의 답론 종류별 분포

출처	문답형	발문-대답형	발제-토론형	강설형	합계
심경서	5	1	-	1	7
찬	5	-	-	-	5
심학도설	5	-	1	1	7
인심도심장	6	1	1	1	9
상제임여장	1	-	-	-	1
시이우군자장	1	-	-	-	1
한사존성장	3	-	1	1	5
경직의방장	7	2	3	-	12
징분질욕장	3	1	-	-	4
천선개과장	2	-	-	-	2
불원복장	1	-	-	-	1
자절사장	2	-	-	1	2
극기복례장	4	-	2	-	7
주경행서장	0	-	4	-	4
천명지위성장	1	-	6	-	7
잠수복의장	0	-	1	1	2
합계	46	5	19	6	76

<표2>에 의하면 호계강회의 답론은 주로 문답형(46개 답론)으로 진행되었고, 그 다음으로 발제와 토론(19개 답론)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이 강회가 강유

에 대한 교육에 큰 비중을 두었음을 보여준다. 강유의 질문에 대하여 선생이나 선배가 답변하는 문답형의 담론은 물론이고, 특정 주제를 토론하는 발제-토론형의 담론에서도 교육적 배려의 모습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이하에서 논의하겠지만, 선생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벌이는 경우에도 논의의 방향은 강유들이 마음 공부를 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다. 이러한 교육적 의도는 발제와 강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선생들은 강유들이 『심경부주』의 해당 항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강회를 진행하였고, 이것이 선생의 발문과 강유의 대답(5개 담론)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선생들은 각 장의 처음이나 마지막 부분에 강설(6개 항목)의 형태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강유들이 『심경부주』를 공부할 때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을 적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렇다면 4가지 담론별 주요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 1) 문답형

문답형은 강회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그 안에 또 몇 개의 종류로 구분될 수 있다. 강유들이 제기하는 질문에는 글자의 뜻을 묻는 경우(1개 담론), 문장 해석 방식을 묻는 경우(1개 담론)처럼 기초적인 질문도 있지만, 대체로 개념의 의미(29개 담론)를 묻거나 자신이 해석한 의견의 타당성(14개 담론)을 묻는 항목이 주를 이룬다. 그러나 글자의 뜻을 묻는 경우에도 그 배경에는 의미에 대한 이해가 게재되어 있으며, 단지 낱말풀이를 하는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 『호계강록』의 첫 번째 문답인 다음의 사례를 보자.<sup>16)</sup>

김상진: 참삼재參三才의 참參은 무슨 뜻입니까?

유치엄: 『예기禮記』에 있는 무왕참언無往參焉<sup>17)</sup>의 참參이라는 뜻이다.

김상진이 「심경서」에 나오는 참(참삼재)이라는 글자의 뜻을 묻는 데에 대하여, 집의 유치엄은 『예기』의 말을 빌려 답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답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참삼재의 의미에 대한 설명으로 이어진다. 유치엄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sup>18)</sup>

하늘은 이처럼 높고, 땅은 이처럼 넓은데 묘연渺然한 인간이 어떻게 천지와 함께 병립해서 셋이 된다는 것일까? 오직 그 마음(心) 때문이다. 천지의 마음을 받아서 한 몸을 이루니, 그 마음의 큰 작용으로 천지와 서로 유통함으로써 가히 천지가 만물萬物을 화육化育하는 일을 도울 수 있고, 가히 중화中和의 극치極致를 이룰 수 있다. 이것이 어찌 인간이 참삼재參三才하는 소이가 아니겠는가?

이러한 문답은 참이라는 글자 풀이를 설명하는 데에 초점이 있기 보다는 그것을 계기로 삼아서, 강회에서 『심경부주』를 공부하는 의미를 천명하는 데에 주목적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 점에서 이 문답은 강회의 시작을 알리는 서언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심경부주』

16) 『虎溪講錄』 心經序, 金相鎭問參三才之參 柳致儼曰參如禮記無往參焉之參.

17) 『禮記』 「曲禮上」에 나오는 말인데, 원문은 ‘離座離立 毋往參焉 離立者 不出中間’이다. 離는 兩의 뜻으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았거나 서 있을 때 그 옆에 가서 말참견을 하지 말라는 뜻이다. 『예기』를 인용한 것은 參의 발음과 관련된 것으로, 參三才 전체의 의미와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參의 발음을 설명할 때, 곡례의 이 구절을 인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던 것 같다. 『聖學輯要』 3, 修己第2中, 誠實章 第5에서 이 방식으로 설명하였고, 이후의 여러 학자들도 이 구절을 인용하였다.

18) 『虎溪講錄』 心經序, 天如此高地如此廣 而人以渺然者 身何以能與天地并立而爲三 其心 改天地之心而體與天地同 其大用與天地相流通 可以贊天地之化育 可以致中和之極功 豈非所以參三才者乎.

는 성인의 마음을 함양하는 내용의 텍스트이고, 그 공부의 목적은 참삼재하는 인간으로 거듭나는 데에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강유들이 강회에서 제기하는 질문의 배경에는 이러한 마음 공부를 실천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들이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징분질육장」에서 김홍락이 제기한 질문에 대하여 훈장이 답변하는 담론이다. 이 문답은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sup>19)</sup>

김홍락: 노여움이 사라진 후에 찬찬히 그 이치를 살피면, 노여움의 당부當否와 일의 시비是非를 분명하게 알 수 있지만, 노여움이 솟구쳐 오르는 초기에는 거망據忘하기 어려우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훈 장: 모름지기 살용공부煞用工夫하면 가히 산을 깎아내는 공효를 얻을 수 있다. 노여움이 일어날 때에는 기운을 낮추되, 밝은 지혜로써 노여움을 살피고 고요함으로써 노여움에 대응해야 한다. 처음에는 비록 어렵겠지만, 습관이 쌓이고 오래되면 점차로 쉬워질 것이다.

이러한 사례들은 호계강회에서 진행된 문답이 용어의 개념이나 의미를 묻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질문자 자신이 공부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딪친 문제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선생들은 강유들의 질문에 대하여 용어의 뜻을 직접 풀이하기도 하고, 다른 전거를 들면서 의미상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설명하고 있지만 그 지향점은 『심경부주』의 개념을 전작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공부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데에 있다는 점도 시사한다. 호계강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강회의 목적을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는 데에 두드러진 역할을 한 인물은 장석 유치명<sup>20)</sup>과 집의 유치엄이다. 다음의 한 사례를 보자.<sup>21)</sup>

이종태: 먼저 근독謹篤이라 하고, 다음에 함양涵養이라 하였으니, 이 말을 동動과 정靜으로 나누어 이해하면 안 됩니까?

동주: 근독은 실로 이 책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要切處)이다. 함양은 본래 동정을 포괄하지만, 여기에서 근독과 함께 두 구절을 끌어왔으니 동과 정으로 구분해도 무방한 듯하다.

유치엄: 견해에 따라 이렇게 나누어 말하는 것도 불가능하지는 않다. 그러나 「심경서心經序」의 의미는 근독을 공부의 핵심적인 부분으로 끌어와 공부에 착수할 곳을 보이는 데에 있으므로, 그러한 설명으로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다.<sup>22)</sup>

이종태의 질문은 정민정程敏政이 「심경서」에서 정자程子의 말을 인용할 때, 근독謹篤에 관한

19) 『虎溪講錄』 懲忿窒慾章, 金弘洛曰 忘怒之後徐以觀理 則怒之當否事之是非 可以見得分明 而怒是恚突凡起來底當其初發之際 遽忘爲難. 訓長曰 須煞用功夫 可收摧山之功 當其怒豈 要乎心下氣 明以察之 靜以應之 初豈雖難然積習之久 自當漸易.

20) 敬直義方章에서 장석 유치명은 글을 지나치게 분석적으로 해석하는 병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重疊해서 설명하면 종래는 병폐가 생긴다. 비단 이 문제만이 아니라, 虛靈知覺과 心之體用을 가지고 2層說을 짓는다는가, 動而主一 靜而主一이라고 구분한다는가 하는 것들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런 것들은 모두 精切하지 않다.’

21) 『虎溪講錄』 心經序, 李鍾泰問 先言謹獨次言涵養 是分動靜而言否. 洞主曰 謹獨是要切處 涵養是通動靜 然此引兩節則似分動靜而言. 柳致儼曰 就見成說如此分屬 因無不可 然此序所引之義 則只取其要切處言 以示其下手之方 不必遷就說也.

22) 『虎溪講錄』 心經序, 李鍾泰問 先言謹獨次言涵養 是分動靜而言否. 洞主曰 謹獨是要切處 涵養是通動靜 然此引兩節則似分動靜而言. 柳致儼曰 就見成說如此分屬 因無不可 然此序所引之義 則只取其要切處言 以示其下手之方 不必遷就說也.

말을 먼저 제시하고, 함양涵養에 관한 말을 다음에 제시한 것에 대해서, 근독을 정靜 공부로 함양을 동動 공부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물은 것이다. 동주는 이중태의 해석이 일리가 있다고 하였지만, 유치엄은 그러한 개념 구분은 「심경서」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쓸데없이 개념을 분류하지 말도록 주의를 주고 있다. 이후 강회가 진행되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의 분석과 구분이 이루어지지만, 그것은 모두 마음 공부를 진척시키는 방향으로 수렴하는 논의였지, 개념 자체에 매몰되어 구분해가는 확산적인 논의는 아니었다.

## 2) 발문-대답형

발문-대답은 4개의 장에서 5개가 발견된다. 이러한 답론은 먼저 선생이 강유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 강유가 대답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선생의 보충설명이 뒤따르기도 한다. 발문-대답형의 전형적인 방식은 「경직의방장」의 다음과 같은 답론이다.<sup>23)</sup>

동주: 주자께서 말한 삼방입처三方入處 개재기중皆在其中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김의수: 성성醒醒(상성성常醒醒)하면 마음이 혼매昏昧하지 않아서, 자연히 하나에 집중(主一)이 되고, 자연히 마음이 수렴되며(收斂), 자연히 정재엄숙整齊嚴肅해진다는 뜻입니다. 성성 대신에 다른 세 가지로 말하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엄: 그렇게 말하면 밝게 안다고 할 수 없다.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 ‘주일무적主一無適을 좇아 들어가면 또 다시 나머지 공부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른바 엄숙, 성성, 수렴이라는 것들은 주일무적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이것이 삼방입처三方入處 개재기중皆在其中를 일컫는 것입니다.’ 하고 말이다.

동주의 질문에 대해서, 김의수는 논리적으로 가능한 대답을 제시하였다. 즉 주일무적, 상성성, 기심수렴, 정재엄숙의 관계에 대하여, 먼저 상성성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나머지 개념도 동일한 방식으로 말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이다. 그러나 유치엄은 김의수의 답변에 대해, 주자의 뜻은 주일무적을 중심으로 나머지 공부를 포함시키는 데에 있기 때문에 이 점을 분명히 해야 이 구절의 뜻을 이해한 것이라고 하면서 김의수의 답변을 교정하고 있다. 이러한 발문-대답형은 강유들이 『심경부주』에 대한 이해정도를 드러내서, 강유講儒의 의견을 보충하거나 교정하려는 목적으로 활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발문-대답형으로 진행된 답론은 「심경서」에서 김홍락이 ‘수덕응도修德凝道の 요체는 그 핵심이 근독謹篤에 있는데, 덕德은 천天과 연결짓고, 도道는 왕王과 연결지은 것은 무엇 때문인가?’<sup>24)</sup>라고 물은 것, 「인심도심장」에서 유치엄이 ‘허령虛靈과 지각知覺을 대설對說로 설명하면 체용관계體用關係가 분명하지만, 단설單說로 말하면 각각은 모두 체와 용을 갖추고 있다. 허령虛靈의 용用의 측면과 지각知覺의 체體의 측면을 어떻게 증험할 수 있는가?’라고 물은 것,<sup>25)</sup> 「경직의방장」에서 동주가 ‘과경래주把敬來做라고 하면 경敬을 가지고 직내直內한다는 것이 되니 해석상의 병통病通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물은 것<sup>26)</sup>, 「징분질욕장」에서 동주가 ‘구

23) 『虎溪講錄』 敬直義方章, 洞主問 三方八處皆在其中之義. 金毅壽對曰 惺惺則心不昏昧 而自然主一自然收斂自然整齊嚴肅 餘三說皆然. 柳致儼曰 此說似未瑩 如從主一無適入頭則更不須各致其工 而所謂嚴肅與惺惺收斂 皆不外是 所謂三方八處皆在其中者也.

24) 『虎溪講錄』 心經序. 程子の ‘天德王道 其要只在謹篤’이라는 구절에 대한 발문.

25) 『虎溪講錄』 人心道心章. 朱子の ‘心之虛靈知覺 一而已矣’라는 구절에 대한 발문.

26) 『虎溪講錄』 敬直義方章. 程子の ‘敬以直內…必有事焉 須把敬來 做件事著’이라는 구절에 대한 발문.

사九思 중 분사난忿思難 견득사의見得思義의 경우는 사思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사명視思明 청사충聽思聰 등은 어째서 사思라 할 수 있는가?’<sup>27)</sup>라고 물은 것 등이다.

이러한 발문-대답형의 담론이 이루어진 것은 관련 구절이 『심경부주』의 핵심적인 개념인 근독謹篤, 심心, 경敬과 관련되면서도 강유들이 해석하는 데에 종종 혼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 3) 발제-토론형

발제와 토론으로 이어지는 담론은 19개를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는 선생이 먼저 문제를 제기하여 토론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고, 강유가 한 구절의 의미를 묻는 것을 계기로 토론이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강회에서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된 담론은 강회의 참석자들이 중요하게 여겼던 주제였던 만큼, 이 담론의 특성을 논의하기 위해서 우선 각각의 주요사항을 요약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표3> 발제-토론형 담론의 주요사항

출처	연번	참가자		소주제	대주제
		발제자	토론자		
심학도설	1	동주	동주, 유치엄, 장석, 훈장	심의 주재성이 리에 있는가 기에 있는가?	心
인심도심장	2	유치엄	유치엄, 동주	인심도심에 대한 주자의 두 가지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사존성장	3	김상진	유연문, 유치엄, 동주	한사존성과 극기복례는 같은가 다른가?	克己復禮
경적의방장	4	김진만	유치엄, 장석, 훈장	경적과 의방을 동과 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가?	敬
	5	이돈우	이돈우, 유치엄, 동주	欲과 怠 중 어느 것이 더 큰 과실인가?	
	6	장석	장석, 동주, 훈장, 유치엄	주일무적의 뜻은 무엇인가?	
극기복례장	7	유치엄	유치엄, 동주, 훈장, 장석	仁體事而無不在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仁
	8	동주	동주, 훈장, 유치엄, 장석	극기와 복례는 하나인가 둘인가?	克己復禮
주경행서장	9	이의룡	동주, 유치엄, 이돈우, 유연문	공자가 안연과 증궁에게 인을 다르게 답변한 이유는 무엇인가?	仁
	10	훈장	훈장, 이돈우, 유치엄	근독을 심광체반의 기상을 지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한가?	謹篤
	11	유치엄	유치엄, 동주	무사시에 엄약사라 한 것은 공부의 착모가 없는 것이 아닌가?	
	12	김상진	유치엄, 훈장	충과 서의 관계는 무엇인가?	仁
중용천명지위성장	13	김상진	장석, 유치엄, 김진만, 훈장	性에 偏과 全의 구분이 있는가?	謹篤
	14	훈장	훈장, 김의수, 김도화, 유치엄, 동주, 장석	率性の 率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15	동주	동주, 유치엄, 훈장	具於內者性 著於外者道는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27) 『虎溪講錄』 懲忿窒慾章. 楊氏(楊時)의 ‘九思終於忿思難見得思義’라는 구절에 대한 발문.

	16	동주	동주, 유치엄, 장석, 훈장	不睹不聞에 대한 정자의 해석은 타당한가?
	17	김홍락	김홍락, 훈장, 유치엄, 장석	연평과 양려의 공부법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18	이택진	동주, 유치엄, 장석	莫現莫顯의 뜻은 무엇인가?
잠수복의장	19	훈장	훈장, 김의수, 김홍락, 유치엄	『중용』의 首章과 末章에서 근독과 계구를 다룬 순서로 기술한 이유는 무엇인가?

<표3>에 제시된 것처럼, 호계강회에서는 8개 장에 걸쳐 19개의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졌다. 표에서는 각 답론의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제기된 문제를 표시하였는데, 이들 답론에서는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토론을 주도하는 인물들이 장석, 훈장, 동주, 유치엄 그리고 김홍락이라는 점이다. 토론자 가운데 강유(김상진, 유연문, 김진만, 김의수, 김도화)가 참가한 경우도 있지만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호계강회에서 토론의 형식으로 답론이 진행된 경우는 선생과 선배들이 『심경부주』의 학습에서 핵심적인 사안이라고 생각되는 주제에 대하여 자신들의 견해를 조율하고 강유들에게 제시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토론의 모든 주제들이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다. 소주제를 몇 개의 범주로 다시 분류하면 심心, 인仁, 근기복례克己復禮, 경敬, 근독謹篤 등의 주제와 관련된다. 그러나 이 주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심心에 관한 토론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마음의 주재성이 리에 있는가 기에 있는가?’를 묻는 토론(1번)에 대해서는 마음 공부에 초점을 맞추는 본 강회에서 리나 기를 구별할 필요가 없다는 정도에서 논의가 마무리되었다. 또한 ‘인심과 도심에 대한 주자의 두 가지 설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토론(2번)은 유치엄과 동주 사이의 간단한 문답에 그치고 있다.

셋째는 여러 주제 가운데서 근독謹篤이 가장 핵심을 차지한다는 점이다. 우선 근독에 관한 토론은 「주경행서장」의 2개 답론과 「중용천명지위성장」의 6개 답론으로 전체 답론의 반 정도를 차지한다. 또한 근독은 첫날의 「심경서」와 마지막날의 「잠수복의장」에서 수미일관되게 강조되고 있다. 「심경서」에서는 집의 유치엄이 근독을 『심경부주』의 핵심(要切處)이라고 규정하면서 호계강회의 서언을 장식하였는데 이점은 앞에서 문답형 답론을 논의할 때 언급한 바 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인 「잠수복의장」에서는 유치엄이 강회를 총괄하면서 다시 근독을 중심으로 강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 절 강설형을 논의할 때 살펴보고자 한다.

발제-토론형 답론이 가지는 이러한 특징을 고려할 때, 호계강회에서 강조하고자 한 것은 강유들이 다른 무엇보다도 근독謹篤의 의미에 주목하여, 그것을 마음 공부의 착수처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하는 데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 4) 강설형

이 글에서 강설형에 포함시킨 답론은 6개이다. 이 답론들은 질문이나 발제 없이 단독으로 언급된 진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공통점은 형식적 동일성에 불과하고, 내용상으로는 몇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이 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강설형 답론의 주요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표4> 강설형 담론의 주요사항

출처	연번	강설자	내용	특성
심경서	1	유치엄 동주	체용현미는 『심경부주』와 「역서」에서 의미가 다르다.	각장의 모두 발언
심학도설	2	김홍락 유치엄	양심과 본심은 가리키는 바가 다르지만 결국 같은 말이다.	
인심도심장	3	유치엄	왕노재의 도설은 문제가 있다.	각장의 종결
한사존성장	4	장석	오징의 설명은 지나친 면이 있다.	
극기복례장	5	동주	진덕수의 설명은 지나친 면이 있다.	
잠수복의장	6	유치엄	근독은 군자와 소인을 구분시키는 가장 중요한 공부이다.	총설

우선 1번 강설과 2번 강설은 각각 각 장의 강회를 시작할 때 모두 발언의 성격을 갖는다. 1번 강설은 「심경서」 첫 부분에서 2개의 문답이 끝난 후 제시되어 있지만, 앞의 두 문답은 전체 강회의 서언을 장식하는 성격이 강한 만큼, 「심경서」와 관련해서는 이 강설이 첫 번째 담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강설은 「심경서」의 ‘古之人 … 使體立用宏 顯微不二 用底于希聖希天之極功 有以也’라는 구절과 관련해서 유치엄이 『심경부주』에서 말하는 체용현미體用顯微는 『역』에서의 의미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 말이다.<sup>28)</sup> 동주는 이 말을 받아서 「「역서易序」에서는 리理와 상象을 말한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마음의 적감寂感和 성신誠神을 말한 것이다」라고 부연하였다.<sup>29)</sup> 이 두 사람의 강설은 모두 『심경부주』를 마음 공부의 측면에서 읽어야지, 용어상의 유사성 때문에 『역』에서 취하고 있는 관점과 연결시킬 필요는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2번 강설은 「심학도」의 강학을 시작하면서 진술된 것으로서, 심학도에 기록된 양심과 본심의 관계를 ‘가리키는 바는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것’으로 규정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규정은 심학도 전체를 이해할 때 마음의 근본을 상호 연계되는 방식으로 파악하도록 요구하는 말이다.

다음으로 3번 강설부터 5번 강설은 앞의 경우와는 반대로 각 장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되어 있고, 주로 각 장에서 검토한 주장 가운데 오류라고 판단된 것에 대해서 주의를 요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인심도심장」 마지막에서 유치엄은 왕노재王魯齋의 도설圖說에 대해서는 선배들이 여러 번 문제를 지적하였다고 하면서, 강유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문제를 연구할 것을 권하였다.(3번) 「한사존성장」 마지막 부분에서 장석 유치엄은 오징의 견해에 들어 있는 문제점을 비판하였다.(4번) 오징의 견해란 『논어論語』의 사무사思無邪와 『역易』 문언전文言傳의 한사존성閑邪存誠을 각각 『대학大學』에 나오는 성의誠意 공부와 정심正心 공부에 연결 지은 것을 말한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서 장석은 두 경전의 원래 의미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이 해석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오징의 견해가 사욕私慾과 악념惡念을 제거한 뒤(意誠)에야 이이차잡二而且雜한 병폐를 치료할 수 있다(心正)는 점은 수궁하면서도, 성의誠意 공부와 정심正心 공부를 반드시 선후 단계로 파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제시하였다. 「극기복례장」에서는 동주가 강설을 하였는데 진덕수眞德秀의 주장을 비판하는 내용이다.(5번) 이

28) 유치엄이 말하는 「易序」는 『周易』의 「易傳書」를 말한다. 관련된 구절은 ‘至微者理也 至著者象也 體用一源 顯微無間 觀會通以行其典禮 則辭無所不備.’이다.

29) 『虎溪講錄』 心經序, 洞主曰 易序則理與象言 此則以心之寂感誠神而言.

강설은 「극기복례장」의 마지막 담론은 아니지만 강회의 뒷부분에 수록되어 있다. 진덕수가 기자箕子의 홍범오사洪範五事(모언시청사貌言視聽思)를 공자가 안희에게 답변한 사물四勿(시청언동視聽言動)과 연결 지으면서, ‘사물四勿에 사심이 없는 듯이 보이지만 하지 말라는 뜻의 물勿자에 사심의 의미가 들어 있다’고 설명한 것을 비판한 내용이다. 이러한 강설들은 강유가 각 장을 이해하는 데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염려 때문에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잠수복의장」에서 유치엄은 근독의 지엄함을 다시 강조하는 강설을 하였는데, 이것은 「중용천명지위성장」과 「잠수복의장」의 토론을 요약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강회 첫날에 『심경부주』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근독과 연계하여 호계강회 전체를 총괄하는 내용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sup>30)</sup>

은미隱微하고 유독幽獨한 장소는 사람들이 쉽게 풀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항상 상제귀신上帝鬼神이 좌우에 내려와 계신 듯 여겨야 한다. 심상尋常하고 비근卑近한 장소는 사람들이 쉽게 소홀해지는 곳이다. 그러므로 항상 깊은 물의 얕은 얼음이 책상자리에 깔려있는 듯 생각해야 한다. 옛 사람은 ‘배우는 자는 알 수 있다’고 하였다. 근독謹篤은 이제까지 살펴 본 모든 장의 핵심 내용으로 또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니다. 군자와 소인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니 이 장을 귀숙처歸宿處로 삼기 바란다. 무릇 똑같이 은미한 장소에 있더라도 군자君子가 거처하면 더욱 열심히 계신戒愼해서 한 터럭도 흐트러짐 없이 밝은 빛이 퍼지는 데에 이르고, 소인小人이 거처하면 거리낌 없이 불선不善을 행함이 무소부지하여 용서받지 못할 지경에 이른다. 그러니 배우는 자가 두려운 바를 몰라 서야 되겠는가?

### 3. 강학유형

담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호계강록』의 내용을 재구성하면, 호계강회에서 이루어진 강학활동의 모습이 연상된다. 매일 강유들은 『심경부주』의 해당 내용을 번갈아 읽으면서, 질문할 내용에 이르면 문답을 전개하였고, 토론해야 할 주제가 제기되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또한 선생들은 강유에게 질문을 던져 이해정도를 파악하기도 하고, 『심경부주』를 이해하는 데에 저해가 되는 내용이 있으면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호계강회는 『심경부주』를 텍스트로 한 고급 세미나였다고 할 수 있다.

호계강회의 이러한 특성은 서원에서 이루어진 보통의 강학활동과 비교할 때 보다 분명해진다. 보통의 강학은 강장을 비롯한 몇 명의 강원이 서원생을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아울러 학업진도를 점검하는 교육과 평가의 장이었다. 「여숙강규閭塾講規」에 따르면, 강원에는 강장講長 이외에 문서기록을 담당하는 사강司講, 영접과 수작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례司禮가 있었고, 서원생書院生이나 동몽童蒙이 응강자로 참여하였다.<sup>31)</sup>

강학은 정읍례庭揖禮를 행한 다음 강장講長이 강서講書 가운데 한 편을 읽고, 존빈尊賓이 또 다른 한 편을 서송序誦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사례司禮는 응강자 1명을 자리에 나아가게 해서 정해진 내용을 암송하게 하고, 그것을 마치면 의심스러운 뜻을 묻도록 하였다. 이렇게 한 사람의 강을 마치면 사강司講은 강기講記에 응강자의 이름을 적고, 강의講義에 강

30) 『虎溪講錄』潛雖伏矣章, 隱微幽獨之處 人之所易肆也 而常若上帝鬼神之陟降左右 尋常卑近之地 人之所易忽也 而常若深淵薄冰之迫在几席 古人之所謂學者可知矣 謹獨說上下諸章 因已無復餘蘊 而君子小人之判 則此章爲之歸宿 蓋同一隱微之地 君子居之 則尤加兢愼一毫不放 以至於輝光宣著 小人居之 則肆爲不善無所不至 以至於貫盈罔赦 學者不可不知所懼哉.

31) 『華西先生文集』卷31, 閭塾講規.

설講說을 기록하였다. 이후의 과정은 강을 다 마친 학생이 제자리에 돌아가면 순서대로 동일한 절차가 반복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렇게 볼 때, 일반적인 강회는 강장講長과 응강자應講者 사이의 1:1식 문답과 평가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sup>32)</sup>

다음으로 호계강회가 축소된 형태라고 할 만한 특강 유형의 강학도 있다. 그것은 유명한 학자를 초빙하여 강의를 진행하는 경우이다. 주자의 옥산강의玉山講義가 대표적인 예이고, 이 옥산강의를 주제로 한 고산서당高山書堂의 강의講義도 이 사례에 해당된다. 고산강의는 1846년 유치엄이 고산서당에서 진행한 것으로서, 형식만으로 보면 호계강회를 축약한 유형에 속한다.<sup>33)</sup> 유사有司를 정하고 정읍례庭揖禮를 행하는 기본적인 절차는 호계강회와 비슷하고, 강유가 「옥산강의」를 읽어가다가 특정 부분에 이르러 장석 유치명이 설명하거나 참석자간의 문답이 이루어지는 진행방식도 유사하다. 예를 들어 ‘一心中 仁義禮智 各有界限’이라는 구절에 이르러 장석 유치명이 요지를 설명한다든가, 다시 읽어 가다가 ‘孔子之言仁 以其專言者言之’라는 구절에 이르러 장석과 참석자들이 문답을 진행하는 강의의 모습은 일견 호계강회의 강회진행방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성격에서, 고산강의는 호계강의와 구별되는 면이 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호계강의는 5일간의 집중세미나의 형식이었기 때문에 강학 과정에서 선생, 선배, 후배가 다양한 방식으로 강학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하여 고산강의는 기본적으로 장석 유치명에 문답이 집중되는 경향을 띄고 있다. 이점에서 고산강의는 유치명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강의 성격이 강하다.

결국 호계강회는 서원생의 교육과 평가를 위한 일반적인 강학이나 장석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특강형식의 강의와 구별되는 강학활동라고 할 수 있다. 즉 호계강회는 여타의 강학활동과 구별되는 최고의 교육적 소통 활동이라는 것이다. 호계강회가 보여주는 이러한 소통방식은 서양 대학에서의 세미나를 연상시킨다. 서양교육사에서 세미나는 17-18세기 경 중세 대학의 논변(disputatio)을 대치한 교육방법으로 시행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34)</sup> 중세 대학의 논변이 아리스토텔레스식의 삼단논법에 의존하면서, 성경에서 진리를 확인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면, 세미나는 교수를 중심으로 참여 학생들이 특정 주제를 탐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호계강회가 선생의 지도 하에 모든 참여자가 다양한 담론을 전개하면서 마음 공부라는 주제를 탐색하는 모습은 서양 근세 대학에서의 세미나와 다르지 않다.<sup>35)</sup>

호계강회에서 진행된 세미나의 결과는 상당히 만족스러웠던 것으로 보인다. 『호계강록』에서 이 세미나가 성공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양한 수준의 참석자들이 10년 만에 개최된 대규모의 강회에서 이처럼 성공적인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었던 데에는 무엇보다도 그들이 공유했던 모종의 강학정신이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그들이 공유했던 강학의 정신은 어떠한 것일까?

32) 김대식, 「화서 문인공동체 강회의 실제」, 『교육사학연구』 제21집 제1호, 2011.

33) 『虎溪講錄』附 高山講話私笱.

34) 이홍우 외역, 『윌리엄 보이드의 서양교육사』, 교육과학사, 2008, pp.350-351.

35) 이 시기 서양대학에서 이루어진 ‘세미나 강록’이 남아 있다면, 『호계강록』과 비교해보는 일도 가능할 것이다.

## IV. 호계강회의 강학정신

### 1. 대산학 계승의 사명감

호계강회가 개설되는 배경에는 경상감사의 교육진흥책이라는 계기와 유치명의 개입이라는 요인이 있었다. 이 때 유치명의 개입은 호계강회의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호계강회에서 『심경부주』를 텍스트로 삼아 30여명의 학자와 강유들이 학술세미나를 전개하기로 것은 우연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그 동안 유치명이 전개한 대산 추송활동의 연장선상에서 기획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은 강학하는 과정에도 반영되어 있다. 호계강회는 『심경부주』의 기본체제를 인정하면서 진행되었다. 율곡의 비판이 있는 다음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던 「심학도설」에 대해서 별다른 이론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은 한 사례이다. 또한 『심경부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했을 때 『대산집』의 규정을 근거로 논란을 종식시킴으로써, 『대산집』을 『심경부주』 이해의 기준으로 삼는 모습도 발견된다.<sup>36)</sup>

이러한 사례들은 이 강회의 기본 정신이 대산 학설의 계승에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호계강록』의 표지 다음에 굵은 글씨로 쓴 강록 작성의 취지문은 강회 전체에 흐르는 이들의 사명감을 잘 보여준다. 강록 작성자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sup>37)</sup>

학문에 뜻이 있는 사람은 이 책(『심경부주』)을 버리고 다른 곳에서 구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호계강회가 누차 이 책으로 한 것이다. 이미 『강록간보講錄刊補』도 있고, 지금 또 『호계강록虎溪講錄』을 간행하니 이 책을 배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는가? 다만 학자들이 보지 않을까 염려될 따름이다.

이 취지문의 작성자는 퇴계에 의해 존숭된 『심경부주』, 대산에 의해 정리되기 시작한 『강록간보』를 이어 『호계강록』을 발간한다고 말하고 있다. 『호계강록』의 위치를 분명히 하는 진술이다. 그러면서 그는 이로써 학자들이 『심경부주』를 공부하는 데에 어려움이 해소되었다는 자신감을 피력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기에는 학자들이 노력만 하면 성취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들어 있다. 이 글에 나타나는 이러한 자신감과 기대감은 강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점차 강하게 형성된 것이다. 강회를 시작할 때에는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참석자들이 의기소침한 상태에 있었지만<sup>38)</sup>, 강회가 진행되면서 자신감과 상호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다. 강회를 마치고 파회할 즈음에 호계서원의 동주는 자신의 감회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sup>39)</sup>

이번 강회講會는 실로 근래에 없었던 성거盛舉입니다. 대로大老가 왕림해서 함께 해 주셨고, 고을의 뛰어난 선비들이 다 모였던 강회였습니다. 어찌 향음주례鄉飲酒禮를 거행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많은 선비들은 향음주례에 참가하여 성대盛代의 화민성속化民成俗하는 가르침이 뚜렷이

36) 『虎溪講錄』主敬行恕章, 柳致儼曰 大山集 已以保守氣像 爲斷案.

37) 『虎溪講錄』有志於學者 不可舍此書而他求 虎溪講會屢次是書 前者已有講錄刊補焉 今又講錄行焉 學此書者其難也哉 唯患不觀耳.

38) 『虎溪講錄』虎溪書院講錄, 司儀以諸生意上書于丈席曰 訓長既辭不出 洞主又不敢當 士心解弛 莫可振作 咸願奉邀函席倡率其始 然後門下老成承其旨教以諭諸生 則庶可以喚醒人心 而嚴不敢請云云.

39) 『虎溪講錄』虎溪書院講錄, 今茲之會 實年來所未有之盛舉也 大老臨止 鄉秀畢集 蓋因此行鄉飲酒禮 而今多士觀瞻 以彰聖代化民成俗之教 答賢方伯尙禮與學之意. 乎僉曰諾.

드러나고, 어진 방백方伯이 상례흥학尙禮興學하는 뜻에 화답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강회의 참석자들은 모두 ‘그렇다’고 하였다.

이처럼 유치명이 견지했던 대산학 계승의 사명감은 강회의 강학활동을 통하여 제자와 강유들에게 전해졌고, 이들의 사명감은 다시 강학활동을 열면 문답과 토론활동으로 승화시키는 데에 영향을 주었다.

## 2. 절제와 소통의 토론정신

강회의 담론을 일별하면, 잘 짜인 기획 하에 참석자들이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다. 장석을 고문으로 모시면서 동주, 훈장 등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담론을 지도하고, 강유들은 선배와 후배로 나뉘어져 각각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담론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또한 토론이 이어지면서 담론이 지나치게 개념을 천착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될 듯하면, 『심경부주』를 공부하는 목적이 마음 공부에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면서 스스로 자제하도록 분위기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절제된 모습은 강회에 참가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었던 정신이었고, 강회가 초점을 잃어버리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호계강회는 이러한 절제된 정신만을 보여주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자신의 역할을 넘어 서로 의견을 소통하고자 하는 개방적인 모습도 확인되기 때문이다. 강회에서 비록 선생과 강유의 역할이 다르고, 실제로 상당한 정도의 역할 구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경우도 발견된다. 강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담론에 참여하는 정도를 나타낸 다음의 표는 이러한 양상을 살펴보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표5> 강회 참가자별 담론수

구분	역할	성명	담론수
선생	<b>장석</b>	<b>유치명</b>	<b>27</b>
	훈장	유치호	30
	동주	김건수	51
유사	집례	이돈우	4
	<b>사의</b>	<b>유치엄</b>	<b>53</b>
	직월	권정하	1
	<b>(직월)</b>	<b>김홍락</b>	<b>17</b>
	직일	이기직	진독
	"	김진각	1
	강록유사	유치숙	8
	<b>"</b>	<b>김의수</b>	<b>9</b>
	"	유서호	-
	"	김도화	5
	"	김두영	7
	"	권세연	2
	재유사	이문직	1
	"	박형수	-
강유	진독 강유	이종태	4
	"	김석락	진독
	"	권시순	진독
	"	유건호	3

구분	역할	성명	답론수
	"	유건흠	1
	"	김한모	진독
	"	이의룡	1
	"	유기락	3
	"	김양진	진독
	"	박제학	진독
	"	김필락	진독
	강유	김진만	7
	"	<b>김상진</b>	8
	"	유연문	3
	"	권옥연	1
	"	이집	1
	"	이택진	1

우선 <표5>는 34명의 참석자 가운데 거의 모든 사람이 질문과 답변을 하고 있고, 최소한 진독자로라도 강회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록 유서호(강록유사)와 박형수(재유사)의 사례는 확인되지 않지만, 실지로는 이들도 참여하였을 것이다. 이것은 강회의 참석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든 답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였던 당시의 분위기를 말해준다.

그러나 이 표에서 보다 주목되는 것은 강회의 진행과정에서 참석자가 자신의 역할을 넘어 논의에 참여하는 모습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사의 유치엄인데 그는 호계강회에서 가장 많은 답론을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위치는 답론을 많이 하였다는 점보다는 사실상 호계강회를 주도하였다는 데에서 찾을 수 있다. 강회 첫날에 『심경부주』의 핵심이 근독謹篤에 있다고 천명한 것도 그렇고, 강회 마지막에 근독謹篤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총괄적인 강설을 한 사람도 그였다. 그리고 토론 진행과정에서는 심지어 선생의 위치에 있었던 동주나 훈장의 의견에 대해서도 강회의 취지에 비추어 그 내용을 보충하거나 교정하는 경우도 있었다. 「심학도설」에서 ‘마음의 주재성이 리에 있는가 기에 있는가?’를 둘러싼 토론의 예를 보자.<sup>40)</sup>

동 주: 마음은 몸의 주재자이다. 그 마음의 주재성은 리에 있는가 기에 있는가?

유치엄: 이른바 주재라 할 때에는 이 마음 외에 별도로 다른 것을 구별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여기에서 다시 리인가 기인가를 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동 주: 비록 마음이 리와 기를 합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주재성은 리이다. 만약 섞어서 구별하지 않는다면 주기론에 빠질 우려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유치엄: 일신一身을 주재하고 만화萬化에 걸쳐 있는 것이 마음이다. 주재한다는 것은 주장하고 운영하는 실체를 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리와 기가 다른 점을 거론할 수 있겠지만, 마음이 몸을 주재한다는 측면에서는 이것은 리이고 저것은 기라고 구분할 필요가 없다.

장 석: 마음은 이기를 합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므로 현명한 사람은 주재할 때에 그 도를 얻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은 주재할 때에 그 지위를 잃게 된다. 따라서 현명하고 어리석음에 따라 나름대로 한 몸을 주재하는 것이니 눈, 귀로 보고 듣는 것이나 손, 발로 잡고

40) 『虎溪講錄』 心學圖說, 洞主又曰 心者一身之主宰 其主宰者 理歟氣歟. 柳致儼曰 所謂主宰者 非此心之外 別有一物 則於此不必更問其理與氣也. 洞主曰 心雖合理氣 而其主宰者理也 若渾淪無別 則恐有主氣之失 如何. 柳致儼曰 主一身而該萬化者 心也 而主宰者 其主張運用之實也 雖有泛言提說之不同 而其爲一身之主 則原無此理彼氣之殊也. 丈席曰 心是合理氣而得名 故在賢知則主宰得其道 在愚不肖則主宰失其官 然亦隨其賢愚而自爲一身之主宰 所以耳目能視聽 手足能持走 亦不可謂無主宰也. 訓長曰 心合理氣統性情爲一身之主宰 而氣若用事 則馳驚走作而失其主宰當理爲之. 主洞主曰 以當爲主言之 則於本然主宰處 恐未明白也.

달리는 소이도 주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훈 장: 마음은 이기를 합한 것으로, 성정性情을 통섭하며 일신을 주재한다. 그러나 기가 일을 벌이면 마음이 달려 나가서 주재함을 잃어버리니, 마땅히 리가 주이다.

동 주: 마땅함을 위주로 말하면 본연에 주재처가 있다고 해야 하지만, 명백하지는 않은 듯하다.

동주가 ‘마음의 주재성은 결국 리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취지에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하여, 유치엄은 그런 구분이 필요 없다고 반론을 제출하였다. 동주가 그의 주장을 반박하자 유치엄은 자신의 의견을 재차 천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장석은 유치명의 의견에 동조하였고, 훈장은 동주의 의견에 동조하였다. 마지막으로 동주는 자신의 의견을 어느 정도 굽히면서 논의를 마무리 지었다. 이러한 양상은 이후 벌어진 선생들 사이의 토론과정에서 비슷하게 확인된다. 따라서 유치엄의 역할은 사의라는 역할을 넘어 사실상 선생의 위치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유치엄과 함께 주목되는 인물은 직월을 담당하였다고 추정되는 김홍락이다. 그는 직월 권정하가 한 차례 담론을 제출한 것에 비해 17번을 제출하였고, 그것도 대부분 담론을 주도하는 내용이었다. 「심학도설」에서 김의수가 ‘심학도心學圖의 심재心在와 조존操存은 의미상의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하고 질문하자 각각을 알인옥 공부와 존천리 공부로 구분하여 설명한 것이 그였다.<sup>41)</sup> 이 김의수는 표에서도 보이지만 강유 가운데 가장 많은 담론을 제출한 사람이다. 이점에서 김홍락은 선배의 위치에서 강유를 지도하는 위치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강유 가운데에서도 주목할 인물들이 보이는데, 앞에서 언급한 김의수와 강록유생 유치숙 그리고 강유 김상진 등이다. 이들도 강회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인물로 보인다.

이렇게 보면 호계강회의 분위기는 기본적으로 참석자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면서 절제된 토론을 전개하였지만, 이러한 원칙이 무조건 적용되었던 것은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는 선생층이 강회를 주도하지만, 사의 유치엄은 실질적인 선생으로 참여하고 있고, 김홍락도 선생들에게 질문을 제기하면서도 후배 강유에게는 선생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강유 가운데에서 질문을 던지는 수준을 넘어 자신의 의견을 제출하는 인물들도 확인된다.

그러나 절제와 소통이 결합된 분위기 속에서 참가자들이 진지한 논의를 지속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장석 유치명이 있었다. 그는 비록 상대적으로는 담론을 제출하는 경우가 적었지만, 토론과정을 주시하면서 논의가 갈라지려 할 때에는 의견을 정리하고, 중요한 논점을 지나치면서 다른 주제로 넘어가려 할 때에는 주의를 환기하는 방식으로 강회의 진행을 조율하였다. 유치명이 유일하게 직접 문제를 제기한 것은 「경직의방장」에서였는데, 그때 그는 참석자들이 경의 핵심적인 개념인 주일主一에 대해 충분한 논의를 하지 않고 다음 논의로 넘어간다고 여겼던 것 같다. 이 때 그는 ‘주일主一의 뜻에 대해서 제군諸君들은 상세하게 언급할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함으로써 모든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켰고, 학자들이 주일의 개념에 대하여 토론하고 정리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호계강회에 나타나는 절제와 소통의 토론정신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한 참가자들의 노력, 모든 참가자들이 담론에 참여하도록 하는 분위기 그리고 유치엄이라는 표면의 교사와 유치명이라는 이면의 교사가 구현해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41) 『虎溪講錄』心學圖, 金穀壽曰 心在與操存 似不甚異. 金弘洛曰 省察而不走作故曰心在 持守而有存主故曰操存 所以分屬於遏欲存理也.

### 3. 치열한 논변의식

호계강회의 참석자들은 『심경부주』가 학자들이 공부해야 할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 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는 않았다. 이 때문에 『심경부주』에 수록된 내용 가운데 문제의 소지가 있는 주장에 대해서는 비판을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비판의 칼날은 오징吳澄이나 왕로재王魯齋처럼 부주에서 인용된 인물의 주장에 그치지 않았고, 『심경부주』 자체에도 겨눠졌다.

우선 『심경』에 부주를 단 정민정程敏政에 대해서는 그의 주석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민정은 「심경서」에서 경敬에 관한 논의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많은 주석을 실었다고 한 바 있는데<sup>42)</sup>, 훈장 유치호는 그 주장에 만족하지 않은 것이다. 유치호의 주장은 경敬 공부工夫가 주가 되어야 하지만 강유들은 집의集義 공부工夫를 병행해야 한다는 것, 그러나 『심경부주』는 이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그는 이정二程과 주자朱子の 『전서全書』에 비추어 부주의 내용을 고찰하도록 강유들에게 조언하였다.<sup>43)</sup> 그의 이러한 지적은 『심경부주』에 실린 경에 관한 주석이 불완전할 뿐만 아니라 적절하지 않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동주는 『심경』의 편찬자인 진덕수眞德秀에 대해서도, 「극기복례장」의 사물四勿에 대해 주석한 것이 주자의 『答陳明仲書』와 다르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지나친 해석이라고 지적하였다. 「심경」 편찬자의 해석이라도 비판적 검토 대상의 예외가 아닌 셈이다.

이와 같이 시비를 분명하게 가리려는 치열한 논변의식은 토론 과정에서 참석자 상호간에도 나타났다. 이들은 유치명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공동의 학문적 자세와 학풍을 견지하였고, 강회 분위기도 자기의 주장을 강하게 밀고나가기 보다는 서로 절제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학자들 사이에는 서로 이견이 있었고 이러한 이견은 번번히 토론 장면에서 표출되었다. 앞에서 유치명과 동주가 마음의 주재성에 대한 해석에서 논란이 일어났던 것도 하나의 사례이다. 토론의 마지막에 동주는 자신의 의견을 일부 수정하지만 자신의 의견을 철회하지는 않았다.

이러한 모습은 강회 과정에 몇 차례 참여하지 않았던 집례 이돈우에게서도 발견된다. 이돈우는 5일 동안의 강회에서 토론에 참여한 것은 단 한 차례였다. 그것도 그가 문제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논변을 지켜보다가 개입하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다. 그의 개입은 「주경행서장」의 연이은 토론에서 공부에 대한 논의가 공효功效, 즉 공부의 효과의 측면으로 이어지는 분위기에서 촉발되었다. 첫 번째 토론은 ‘공자가 안연에게는 천하귀인天下歸仁焉이라고 하고, 중궁에게는 방가무원邦家無怨이라고 답변한 것은 공효功效의 대소를 구별한 것이 아닌가?’라고 물은 이의룡의 질문에서 시작되었다. 이 질문에 대해 동주와 유치엄이 공효의 대소에 차이가 있다고 하자, 이돈우가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그의 요지는 성인의 가르침은 ‘선난후획先難後獲’<sup>44)</sup>, 즉 추구하기 어려운 인륜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실제적인 효과는 낮추는 데에 있는 것인데, 왜 논의가 공부의 효과 문제로 이어지는 것인가 하는 데에 있었다. 둘째 토론은 훈장訓長이 근독謹獨을 심광체만心廣體胖의 기상氣像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면서 시작되었다. 훈장의 이러한 설명에 대해 이돈우는 근독 공부를 논하면서 기상과 같

42) 『心經附註』 心經序, 晩生末學 何所知識 輒手錄成秩 以告同志者 而於言敬之說 特加詳焉.

43) 『虎溪講錄』 敬直義方章, 訓長曰 工夫到熟後 敬便有義 義便有敬 然學者用工 當以敬爲主 而更加集義之工 程朱論敬義說甚備 附註不盡載 就考全書可也.

44) 『論語』 雍也, 子曰 仁者先難而後獲 可謂仁矣.



은 외면공부를 언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이돈우는 마음 공부와 관련해서 공부의 효과나 외면상의 변화를 언급하는 논의에 대해서 분명하게 부정적인 관점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반론에 대하여 유치엄이 『대산집大山集』에서 근독謹篤을 보수기상保守氣象이라고 단안을 내렸다고 하자 더 이상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지만, 이돈우가 자신의 견해를 취소하였는지는 분명하지 않다.<sup>45)</sup>

이처럼 학자들 사이의 치열한 논변의식은 강회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감은 장식 유치명의 부드러운 조율과 학자들 자신의 절제에 의하여 조절될 수 있었다. 그리고 『심경부주』 마지막까지 성공적으로 강회를 마치면서 이들은 서로의 공감대, 즉 사문의 식斯文意識을 한 단계 더 강화할 수 있었다. 호계강회의 다음과 같은 마지막 담론은 강회 참석자들의 이러한 득의함을 보여준다.<sup>46)</sup>

훈 장: 『중용中庸』 수장首章에서는 먼저 계구戒懼를 말한 다음에 근독謹篤을 말하였는데, 말장末章에서는 먼저 근독을 말하고 다음에 계구를 말하였다. 왜 그런가?

김의수: 상장上章에서는 천명天命으로부터 아래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체體를 말한 것이고, 하장下章은 하학이상달下學而上達에 입각하여 설명한 것이기 때문에 용用을 말한 다음 체體를 제시한 것입니다.

김홍락: 수장首章은 일리一理로 시작해서 만사萬事로 전개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정靜에서 동動으로 이어진 것이고, 말장末章은 만사萬事로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리一理로 합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동動에서 정靜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유치엄: 수장首章은 근원根源에서 아래로 분석分析한 것이고 말장末章은 분수分殊에서 위로 합해지는 것을 설명한 것이므로 계구戒懼와 근독謹篤의 선후가 다른 것입니다.

훈 장: 세 사람의 말이 모두 옳다.(三說皆通)

훈장의 질문에 답변한 사람들은 강회 참석자 각각의 역할을 대변하는 상징적인 위치에 있다. 김의수는 강록유사의 일원으로서 모든 강유의 대표자이고, 김홍락은 직월에 해당되면서 선배 강유의 대표자이며, 유치엄은 강회 내내 선생의 역할을 담당하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사의로서 상급유사를 대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면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강장이 응강자를 평가하는 보통의 강학 모습을 연상시킨다. 이 때 강장은 훈장이다. 훈장이 던진 질문은 이제까지 『심경부주』의 핵심이라고 규정한 근독과 관련해서, 근독의 출처인 『중용』의 첫장과 마지막장의 뜻을 물은 것이다.<sup>47)</sup> 이에 대해 세 사람은 응강자의 자격으로 후배부터 차례로 답변하였다. 그들의 답변은 표현만 달리 할 뿐 동일한 내용이다. 세 응강자의 훌륭한 답변을 들은 훈장은 마지막에 ‘세 사람의 말이 모두 옳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상 이 말은 ‘세 사람 모두 통通이요!’라 한 것이고, 결국 ‘모든 사람이 다 통通이요!’라고 외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유머스러운 모습은 그저 장난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절제된 분위기

45) 이돈우의 문집 『肯菴集』 卷7에는 「心經筭錄」, 「心經贊圖」이 수록되어 있다.(홍원식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한국철학총서27, 예문서원, 2007, pp445~450.)

46) 『虎溪講錄』 潛雖伏矣章, 訓長曰 中庸首章先戒懼而後謹獨 末章先謹獨而後戒懼 何. 金穀壽曰 上章自天命而說下來 故先體而後用 下章自下學而上達 故先用而後體. 金弘洛曰 首章始言一理而中散爲萬事 故自靜而趨動 末章中散爲萬事而復合爲一理 故自動而趨靜. 柳致儼曰 首章從原頭上分析說下來 末章從散殊上等底說合去 此戒懼謹獨先後之不同也. 訓長曰 三說皆通.

47) 수장은 앞에서 다룬 「중용천명지위성장」을 말하고, 말장은 『중용』의 33장을 말한다. 말장은 『시경』에서 인용한 몇 개의 구절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자는 이 장의 요지를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右第三十三章 子思因前章極致之言 反求其本 復自下學爲己謹獨之事 推而言之 以馴致乎篤恭而天下平之盛 又贊其妙 至於無聲無臭而後已焉 蓋舉一篇之要而約言之 其反復丁寧示人之意 至深切矣 學者其可不盡心乎.’

속에서 벌였던 치열한 논변의 긴장감이 세 사람의 답변을 통해 공동의 의식으로 승화되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 V. 결론

『호계강록』은 여타의 문제를 제기하기 이전에 그 자체로 흥미를 준다. 진지하게 토론하는 학자들의 모습을 가능한 한 생동감 있게 보여주려는 작성자의 의도가 곳곳에 배어 있다. 이 점에서 『호계강록』은 글로 적은 한 편의 기록영화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호계강록』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힘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호계강회를 19세기 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학 활동의 한 사례로 주목하여, 『호계강록』에 수록된 담론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예비작업을 통해 본 연구에서 말하려 한 것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째 호계강회의 사례는 서원의 여러 강학활동 가운데 고도의 교육적 소통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호계강회는 서원생의 교육과 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일반적인 강학이나 장석에게 집중되는 특강 유형의 강의와는 달리 참석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담론을 통해 지성을 완성해 가는 세미나 유형에 속한다. 둘째 호계강회가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개설되었음에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강회 전체에 흐르는 그들의 강학정신에 있었다는 점이다. 그 정신은 대산학을 계승하려는 사명의식, 절제와 소통의 토론정신 그리고 치열한 논변 의식을 말한다.

이러한 호계강회의 사례는 이 외에도 몇 가지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호계강회와 같은 대규모의 강회가 빈번하게 열리지는 못했더라도, 서원에서는 다양한 강학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 가능성은 다른 기록이 있어서가 아니라 『호계강록』에 묘사된 내용 때문이다. 호계강회의 참석자들이 수준 높은 담론을 진행하거나 서로 절제하면서 논의를 심화시키는 모습은 평소에 강학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가능한 일이 아니다. 이 점에서 평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강학활동의 다양한 양상을 포착할 필요가 생긴다. 이 글에는 그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강학활동인 세미나를 살펴 본 것이지만, 이외에 이들이 벌인 독서, 문답, 서신교환, 일반적인 강회 그리고 저술활동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호계강회는 그러한 강학활동의 정점에 있기 때문이다.

둘째 『호계강록』이라는 자료가 가지는 가치가 특별하다는 점이다. 『호계강록』에서 확인된 강회 방식은 비단 여기에서만 이루어진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강회의 기록을 이처럼 생생하게 묘사한 자료는 찾기 어렵다. 이 점에서 『호계강록』은 단순한 강회에 관한 기록이 아니라,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작성한 기록물로 보인다. 『호계강록』의 최종 작성자도 언급했지만 이미 『심경부주』와 『강록간보』가 있는 상황에서, 더욱이 수많은 여타 주석서가 있는 상황에서, 『호계강록』을 간행한 이유가 또 하나의 주석서를 제출하는 데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호계강록』의 가치는 『심경부주』를 강학하는 실제 상황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는 데에서 찾아야 한다. 이 점에서 최종 기록자가 ‘지금 또 강록(『호계강록』)을 간행하니 이 책(『심경부주』)을 배우는 데에 어려움이 있겠는가? 다만 학자들이 보지 않을까 염려될 따름이다.’라고 한 것은 학자들이 『심경부주』를 열심히 볼 것을 촉구한 뜻으로 해석되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 『호계강록』을 열심히 볼 것을 촉구한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그 만큼 『호계강록』은 기존의 저서들과는 다른 측면에서 학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강점이 있다.

셋째는 호계강회의 사례는 조선후기 역사에서 교육문화의 층차를 보여준다는 점이다. 조선시대의 학자들이 추구하였던 가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가치를 얻기 위해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에 대해서 이 자료는 중요한 한 장면을 그려내고 있다. 이 글에서는 강유가 제기하는 질문들이 어떠한 맥락에서 제기되고 어떠한 중요성을 가지는 질문인지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선생의 답변이 어떠한 의도로 제시된 것이고 과연 충분한 답변이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설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호계강회가 19세기 중반에 이루어진 수준 높은 세미나였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만든 교육문화의 공간이었다는 점은 확인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호계강회의 사례는 조선 후기의 역사에서 교육문화의 층차에 접근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 통로는 현대의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에서 벗어날 때에야 확장될 수 있는 것이다.

## 참고문헌

### 자료

『論語』

『中庸』

『周易』

『禮記』

『心經附註』

『虎溪講錄』

『定齋文集』

『朱熹集』

『華西先生文集』

『筆巖書院誌』

한국학진흥원, 『조선시대 서원일기-원문-』, 도서출판 성심, 2007.

### 논저

장민구, 「낙제의 구국 항쟁과 강학 활동」, 『동방한문학』 34집, 2008.

권오영, 「19세기 안동유림의 학맥과 사상」, 『조선후기 유림의 사상과 활동』, 돌베개, 2003.

김대식, 「조선조 서원 강학 활동의 성격: 회강과 강회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_\_\_\_\_, 「화서학파의 문인교육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김명호, 「海藏 申錫遇의 『入燕記』에 대한 고찰」, 『고전문학연구』 제32집, 한국고전문학회, 2007.

박종배, 「학규를 통해서 본 조선시대의 서원 강회」, 『교육사학연구』 제19집 제2호, 2009.

성백효, 『역주 심경부주』, 전통문화연구회, 동양고전역주총서22, 2002.

사재명, 「조선중기 덕계문인의 형성과 강학」, 『남명학연구』 17집, 2004.

윤희면, 「조선후기 소수서원의 교육사례」, 『역사교육』 92집, 2004.

이관성, 「海藏 申錫遇의 생애와 문학론」, 『한문학보』 제17집, 우리한문학회, 2007.

이홍우 외역, 『윌리엄 보이드의 서양교육사』, 교육과학사, 2008.

장지연 저, 권정동 역, 『조선유학연원 하편』, 삼성문화문고135, 삼성미술문화재단, 1989.

전경목, 「조선후기 지방유생들의 수학과 과거 응시-권상일의 청대일기를 중심으로」, 『사학연구』 88호, 2007.

전병철, 「대산학파의 고산정사 강회와 성리설 강론」, 『동방한문학』, 38집, 2009.

정만조, 『조선시대 서원연구』, 조선시대사 연구총서1, 집문당, 1997.

한형조 외, 『심경-주자학의 마음훈련 매뉴얼』, 삶의 기술로서의 철학1, 한국학중앙연구원, 2009.

홍원식 외, 『조선시대 심경부주 주석서 해제』, 한국철학총서27, 예문서원, 2007.

\_\_\_\_\_, 『심경부주와 조선유학』, 한국철학총서31, 예문서원, 2008.

## 제 2 발표 지정토론 1

###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1

#### 조선 후기 서원 강학 활동의 꽃, 강회講會

박 중 배  
동국대학교

발표문은 1856년 11월 17일부터 5일동안 호계서원虎溪書院에서 진행된 강회의 기록인 『호계강록虎溪講錄』에 대한 꼼꼼한 분석을 통해, 발표자가 ‘진지하게 토론하는 학자들의 모습을 가능한 한 생동감 있게 보여주려’ 하고 있다고 평한 『호계강록』만큼이나, 19세기 서원 강회의 구체적 양상을 생생하게 그리고 있다. 특히 발표자가 강회에 등장하는 담론의 유형을 ‘문답형’(강유講儒가 질문 제기), ‘발문-대답형’(선생先生이 발문), ‘발제-토론형’, ‘강설형’의 네 가지로 나누어 양적·질적 분석을 진행한 점이나, 이를 기초로 호계강회虎溪講會의 강학 정신을 ‘학통學統(대산학) 계승의 사명감’, ‘절제와 소통의 토론 정신’, ‘치열한 논변의식’으로 정리한 점은 일찍이 시도된 바 없는 서원 강회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학적 분석으로서, 발표자가 ‘조선 후기 서원 강학 활동의 꽃’으로 표현한 강회講會와 현대 교육학의 대화가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생각된다. 이 밖에 발표자가 향후 조선시대 서원 강학 활동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제안하고 있는 연구의 새로운 관점, 즉 서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다양한 강학 활동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그것의 유형화, 그리고 가능한 한 당시인의 교육적 관심을 재구성하려는 노력을 통한 새로운 교육문화적 층위의 포착 등에 대해서도 토론자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이하 토론자는 발표자가 논문의 결론 부분에 제시한 몇 가지 시사점 중 “호계강회와 같은 대규모의 강회가 빈번하게 열리지는 못했더라도, 서원에서는 다양한 강학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 점에 대해 몇 가지 부연하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한다.

토론자가 근년에 관심을 갖고 고찰한 바에 따르면, 조선시대에는 16세기 후반의 초기 서원에서부터 ‘강회’라고 하는 집단적 강학 활동의 전통이 생겨나 19세기말까지 면면히 그 전통이 이어져 왔다. 예컨대, 율곡 선생이 작성한 <은병정사학규隱屏精舍學規>(1578)에서 ‘매월 반드시 한번은 정사에 모여 의리를 강론’한다고 한 ‘월삭회月朔會’ 관련 조항에서부터 강회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으며, 한강 정구(1543-1620)에 이르러서는 처음으로 ‘강회’라는 용어가 사용된 ‘월삭강회계月朔講會契’(1583)가 만들어지고, 후대의 강규講規와 강의講儀에 해당하는 <강법講法>과 <통독회의通讀會儀>(1606)가 제정·시행되었다. 이러한 선구적 노력에 힘입어 18세기에 들어서면, 도암 이재(1680-1746)의 <심곡서원학규深谷書院學規>(1737)와 <용인향숙절목龍仁鄉塾節目> 등의 학규와 그가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전개한 강학 활동에서 볼 수 있듯이, 강회는 장수강학藏修講學의 장소로서의 서원의 본질을 회복해 가는 데 중심적 역할을 하기에 이른다. 도암 이재에 의해 활발히 이루어진 강회 중심 서원교육은 그의 학통學統을 이은 미호 김원행(1702-1772)에 의해 더욱 발전하고, 그 결과 <석실서원강규石室書院講規>(강의부講儀附)라고 하는 매우 완전한 체계의 강규講規·강의講儀가 탄생하게 된다. 18세기에

이루어진 강회 중심 서원교육의 사례는 높은 이광정(1674-1756)의 <삼계서원거재절목三溪書院居齋節目>(1746), 병계 윤봉구(1681-1767)의 <노강서원강학규목老江書院講學規目>(1766), 순암 안정복(1712-1791)의 <덕곡서재월삭강회약德谷書齋月朔講會約>(1786) 등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이렇게 조선 후기 서원교육의 중심으로 자리잡은 강회의 전통이 19세기 후반까지 계승되고 있다는 사실은 화서 이항로(1792-1868)의 <여숙강규閔塾講規>(1850)와 전재 임헌회(1811-1876)의 <선곡서실강규善谷書室講規>(1864), 성재 유종교(1832-1893)의 <서사순강의書社旬講儀>(1869) 등의 강규·강의와 그에 따라 이루어진 강회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선시대 서원 강회의 전통은 앞으로 개별 서원, 그리고 특정 학자 또는 학인 집단의 강학 활동 사례에 대한 연구를 통해 그 구체적 양상이 실증實證되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토론자가 관심을 갖고 살펴본 두 서원의 강회 사례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우선 18세기말에 거행된 병산서원屏山書院의 강회講會를 들 수 있다. 『고문서집성古文書集成』 20 <병산서원편屏山書院篇>에 들어 있는 <신축통독안辛丑(1781년) 통독안通讀案>에 따르면, 병산서원에서는 1781년(신축)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대학大學』을 통독하는 형식의 강회를 개최하였다. <신축 통독안>은 당시의 원장 유종춘柳宗春이 작성한 ‘서문序文’과 함께 통독회에 참여한 총 107명의 성명姓名과 자字, 출생년出生年을 기록한 ‘통독회안通讀會案’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중 서문에서는 “원외랑 남공南公(용진龍震)과 박사 정공鄭公(석태錫台)께서 강사講事를 주관하였으며, 종춘宗春도 그 때에 외람되이 자리를 함께 하였다. 그 날에 이공께서 여러 유생을 인도하여 뜰아래에 늘어서서 상읍례를 행하고, 마치자 유사 이군李君(팽윤彭胤)이 동계 위로 가 서서 주자의 <백록동규>를 읽어 듣게 하였다. 이를 마치고 여러 유생을 인도하여 존덕사尊德祠를 배알하고 물러나 입교당立教堂에 앉아 강석講席을 마련하였다. 이 때에 여러 유생으로 의관을 갖추고 둘러앉은 자가 거의 60여명이었는데, 각기 『대학大學』 한 책을 소지하고 차례대로 앉으니 그 모습이 자못 숙연하였다. 앉기를 마치자 한 사람이 이공二公 앞으로 나아가 절하고 꿇어앉아 (대학) 수장首章을 읽고 경의經義의 대략을 강론하자 좌중의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견해에 따라 서로 의견을 주고받기를 수차례 거듭하였다. 그런 뒤 다음 사람이 또 나아가 다음 장을 읽고 경의를 강론하기를 또한 그와 같이 하였다. 이 달 쯤 未日에 시작하여 4일을 넘겨 병술일丙戌日에 마쳤으니, 이것이 강사講事의 전말이다.”라고 하여, ‘통독’ 형식으로 진행된 병산서원 강회의 전말을 비교적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비록 『호계강록』 처럼 강론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지만, 병산서원의 <신축 통독안>은 18세기 말 서원 강회의 구체적 양상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다음으로, 19세기 후반 무성서원에서 개최된 ‘강습례講習禮’라는 독특한 형식의 강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무성서원지武城書院誌』(1884년, 1936년 간행본)에는 <갑을기사甲乙記事>, <강습례절목講習禮節目>, <강습례집사講習禮執事>, <홀기笏記>, <강습례도講習禮圖> 등의 강습례 관련 자료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 중 <갑을기사>에는 강습례 개최 사실이 연차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무성서원에서는 1872년에 당시 원장이었던 현감 조중식趙中植 등이 매년 3월3일과 9월9일에 강습례를 개최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듬해인 1873년부터 1880년까지 매년 강습례를 개최하였다. 1881년부터 1890년까지는 강습례가 개최되지 않았으나, 1891년과 1896년 두 해의 3월3일과 9월9일에 다시 강습례가 개최되었다. 1873년부터 19세기말까지 무성서원에서는 총 20회(향음주례 2회 포함)의 강습례가 개최된 것이다. 무성서원의 강습례는 3월 3일과 9월 9일이라는 개최 시기, 강습례라는 명칭, 그리고 허위虛位를 설치한 채 진행되는 의식절차 등에서 여타의 강회와 구분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

게 강습례가 시작된 1873년은 흥선대원군에 의한 서원 철폐가 마무리된 시점으로서, 무성 서원의 강습례는 존치된 서원이 이후 어떻게 강학 활동을 전개해 나가는지를 보여주는 좋은 사례이기도 하다.

비록 아직은 몇몇 서원의 사례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 꾸준히 개별 서원의 강회 활동 사례를 발굴하여 조선조말까지 면면히 이어져 온 서원 강회의 전통을 구체적으로 실증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개별 학자 또는 학인집단의 강학 활동 사례를 통해서도 강회의 전통을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는 호계강회의 장석<sup>丈席</sup> 유치명<sup>柳致明</sup>(1777-1861)의 사례를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유치명의 문집인 『정재집<sup>定齋集</sup>』의 <연보<sup>年譜</sup>>에 따르면, 유치명은 1811년(35세) 8월에 이상정의 성도설<sup>性道說</sup>을 강하는 유범휴<sup>1744-1823</sup>의 고산강회<sup>高山講會</sup>에 참석하였고, 1825년(49세) 2월에는 사빈서원<sup>泗濱書院</sup>의 강회<sup>講會</sup>에 참석하여 『심경<sup>心經</sup>』을 강한 바 있다. 그리고 1831년(55세) 11월에는 고향의 기양선사<sup>岐陽先社</sup>에서 <월삭과강<sup>月朔課講</sup>>라는 강규<sup>講規</sup>를 만들어 류건휴<sup>柳健休</sup> 등과 활발한 강학 활동을 전개하였고, 1832년(56세) 9월에는 소수서원<sup>紹修書院</sup>과 삼계서원<sup>三溪書院</sup>의 강회에 참석하였다. 1840년(64세)에는 재행<sup>才行</sup>이 있는 자 10인을 향교<sup>鄕校</sup>에 모아 윤번<sup>輪番</sup> 강독<sup>講讀</sup>하는 강회<sup>講會</sup>를 운영하였으며, 1846년(70세) 9월에는 발표문에도 나온 바와 같이 高山書堂의 강회에서 <옥산강의<sup>玉山講義</sup>>를 강하고 향음주례<sup>鄕飲酒禮</sup>를 거행하였다. 이처럼 유치명의 <연보>를 통해서도 19세기 전반까지 면면히 이어지고 있는 강회의 전통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사적 토양이 있었기에 19세기 중반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호계강회<sup>虎溪講會</sup>’라는 아름다운 꽃이 다시 피어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1856년 11월에 거행된 호계강회는 바로 이렇게 조선 중기 이래 면면히 이어져 온 서원 강회 전통<sup>48)</sup>의 연장선 위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발표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앞으로 <강의<sup>講義</sup>>, <강록<sup>講錄</sup>>, <문답<sup>問答</sup>>, <문목<sup>問目</sup>>, <서書> 등의 다양한 자료를 통해 거재<sup>居齋</sup>(거접<sup>居接</sup>) 독서, 강의, 집중세미나, 질의응답, 편지교환 등 조선시대 서원 강학의 다양한 유형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나가야 하겠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강회<sup>講會</sup>’라고 하는 집단적 강학 활동의 전통에 대해서는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집중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강회는, 군거강학<sup>群居講學</sup>의 이상을 추구하던 조선 후기 서원 강학 활동의 꽃으로 피어났다 이제는 사라져버린 과거의 흔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삭막하기만 한 지금의 학문·교육 풍토에 미감과 향기를 회복시켜 줄 우리 시대의 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48) 물론 강회는 서원을 중심으로 발달하지만, 서원이라는 장소에서만 열리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강회의 전통을 계승해 온 가장 중요한 교육장소가 서원이었다는 사실 또한 부정할 수 없다.

## “19세기 서원 강학활동 사례 연구: 『호계강록』을 중심으로”에 대한 토론 2

김 대 식  
조선대학교

서원은 중국과 일본에까지 분포하는 동아시아의 대표적 교육공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신유학新儒學의 발흥 이래 서원은 신유학의 거점으로서의 위상을 가졌습니다. 이것은 중국은 물론 우리나라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조선중기 퇴계 이황의 노력으로 향교 鄕校 못지않게 많은 수의 서원들이 각지에 설치되었고 국가로부터 일정한 지원까지 받았습니다. 이런 서원의 확산은 사적으로 설립된 교육기관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조선 서원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서원의 제향祭享 기능에 초점을 두거나 건축공간, 혹은 정치적 거점으로서 주목하여 왔습니다. 특히 조선후기 서원의 경우는 이전에 비해 강학 기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광만 교수님의 논문은 조선후기 호계서원에서 이루어진 강회講會의 실제 양상을 규명하고 그 속에서 이루어진 강학 활동의 의미를 해석한 것이라는 점에서 조선후기 서원에 대한 이해를 넓혀 주는 의의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호계강회의 개최 시기가 19세기라는 점은 서원의 교육적 기능이 조선후기까지도 유지되었음을 시사한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롭습니다.

최광만 교수님은 이 논문에서 『호계강록虎溪講錄』을 근거로 호계서원의 강회의 양상과 담론 형태 분석, 그리고 강회에 함축된 강학 정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의 분석과 논의와 관련해 저는 다음과 같은 질문 및 의견을 개진합니다.

먼저 호계강회와 별도로 1846년에 진행된 고산강의高山講義의 참석자와 담론 형태에 대한 질문입니다. 교수님께서도 고산강의가 장석丈席 유치명柳致明이 주도하는 특강 형태로 진행된 강학 활동이라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고산서당에서 이루어진 고산강의 역시 당시 강학 활동의 실재를 보여주는 사료라는 점에서도 그러하고, 또 고산강의와 호계강회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고산강의 참석자와 담론 형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호계강회와 같은 강회가 19세기에 일회적 사례가 아닐 듯하다는 추정입니다. 호계강회는 경상감사 신석우申錫愚의 발의로 시작되었고 여기에 지역 사대부와 유생 등이 호응하면서 개최되었습니다. 이처럼 감사가 강회 시행을 주도하고 권장하는 것은 경상도 지역의 경우 이미 영조대에도 존재했던 형태입니다. 영조대에 경상감사 조현명趙顯命(1690-1752)은 권학절목勸學節目 시행하여, 도훈장都訓長, 면훈장面訓長을 지정하고 서원 및 향교의 강학을 권장한 바 있습니다. 특히 『호계강록』에 등장하는 훈장訓長이라는 표현은 도훈장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참석자 중 훈장 전참봉 유치호柳致皜가 포함되어 있는 데, 이는 도훈장을 의미한다고 생각됩니다. 호계강회 시행 이전에 있었던 경상도 지역의 강학 활성화 노력과 연계하여 호계강회의 의의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세 번째로 호계강회가 호계서원 내부 구성원에 한정된 강회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호계강회는 서원 내부의 강회가 아니라, 감사의 발의로 지역의 사대부와 유생들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 단위 강학 활동이었습니다. 호계강회에서 호계서원은 일종의 강학 공간



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서원 원생이외의 인사들이 참여하였습니다. 이 강회에서 호계서원은 내부의 구성원에만 한정된 교육기관이 아니라, 지역의 교육 거점 혹은 구심점으로서 역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의 교육기관들이 대체로 내부구성원들의 교육과 성장에만 관심을 두는 것과는 매우 다른 서원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최광만 교수님께서 호계강회의 담론 형태를 문답형, 발문-대답형, 발제-토론형, 강설형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 담론 분석들은 이 강록에 포함된 담론의 형식들을 충분히 포괄할 수 있는 틀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담론 형태 분석에 그치지 않고, 담론의 특성, 예를 들면 담론 속에서 내재된 교사와 학생의 관계, 참여자들의 태도, 상호관계에 대한 분석까지 곁들인다면 당시의 교육문화를 이해하는 데에도 매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호계강록』 전문을 국역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역 작업을 통해 대산 이상정李象靖과 그의 문인들의 심경心經에 대한 이해를 확인할 수 있음은 물론, 당시 강회의 장면에서 이루어진 생생한 소통의 과정, 사제 관계의 면모가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제 3 발표

### 서원 제례 조사연구 개황概況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

송 민 선 · 국립문화재연구소



### 제 3 발표

## 서원 제례 조사연구 개황概況 -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연구과제를 중심으로 -

송 민 선(국립문화재연구소)

- I. 들어가며
- II. 서원 제례 조사연구 개요
  - 1. 조사 경위
  - 2. 조사대상 선정
  - 3. 조사 방법
- III. 서원 제례 변화양상
  - 1. 제례 내용
  - 2. 관련 문서
  - 3. 제례악
- IV. 서원 제례 조사연구 결과물
  - 1. 조사연구 결과물
  - 2. 결과물의 활용

### I. 들어가며

지난 5월 초 문화재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전통문화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중요무형문화재 활성화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향후 5년간 4,459억 원을 투입하여 22개의 세부추진과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글머리에 서원의 의례와 무관해 보이는 문화재청의 기자회견 내용을 기술한 것은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가칭, ‘무형유산법’으로 약칭하기로 함)” 제정과의 관련성 때문이다. 당시 종합계획에는 5개 핵심전략 중 ‘법적 기반 및 실행기반 마련’에 분류되어 있던 “무형유산법” 제정이 명시되어 있었다.

“무형유산법”은 1962년 문화재를 보호하고 전승하기 위해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무형문화재 분야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겠다는 것이다. 현행법은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중 중요한 것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하여 보존하는데 목적이 있다. 아울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를 전승하기 위해 전승주체인 보유자[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고 있다. 이런 사유로 문화재보호법 상으로는 우리나라의 보편적 가치를 구현하는 김치나 아리랑 등과 같은 무형문화유산은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곤란한 형편이었다.

그러던 중 2006년 유네스코가 제정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발효되었

다. 세계 각 국가들은 유네스코 협약 체제에 맞춰 제도적 변화를 도모하였고 우리나라도 협약에 대한 이해와 적용을 검토하기 시작하였다. 그 결과 문화재청은 “무형유산법”의 제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새로운 법안에 현행법에서는 담아낼 수 없었던 구전 전통 및 표현, 사회적 실행,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등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현재 문화재청은 “무형유산법” 초안에 이 범주를 담고자 함은 물론 보유자[또는 보유단체] 없이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살펴볼 때 서원의 제례도 “무형유산법”이 제정한 범주에 포함되는 대상이다. 그간 국립문화재연구소(이하 ‘국문연’으로 약칭하기로 한다.)에서 진행해 온 조사연구 결과들이 모여 무형문화유산 목록으로 지정·등록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여기에서는 먼저, 국문연의 서원 제례 조사연구의 경위와 조사 대상 선정, 그리고 조사 방법에 대해 살펴본 뒤, 서원의 조사연구 사례(소수서원, 도산서원)를 중심으로 서원 제례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소수서원과 도산서원의 사례는 국문연에서 2011년『서원 향사(소수서원, 도산서원)』보고서로 발간하였다. 마지막으로 서원 제례의 연구결과물을 살펴보고 향후 조사결과물의 활용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 II. 서원 제례 조사연구 개요

### 1. 조사 경위

국문연이 서원 제례에 주목한 것은 2008년도였다. 국문연은 서원 제례 조사연구 전, 종가 제례, 굿의식, 불교의례를 조사연구하여 총 45건을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전통의례에 대한 조사연구와 영상기록은 당시 급격한 사회변화, 사회구성체의 해체 등과 맞물려 소멸 위기에 봉착한 우리 민족 고유의 의례의 현상을 보전하고자 노력한 결과물이다.

그 일환으로 2008년 서원 제례 조사연구 계획을 수립하였다<sup>1)</sup>. 서원은 지역별 학문의 전통을 기반으로 설립되었던 사립 교육 기관이었다. 학문의 발전과 지역의 여론이 형성되던 곳이었으며 조선 성리학의 전통을 확립하는 물질적·정신적 토대였던 곳이다. 오늘날 서원은 지역의 전통성을 간직한 요람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서원에 모신 인물에 제사를 지냄으로써 상징성을 유지하고 사회교육을 통해 한문학을 전파하고 있다. 국문연은 이와같은 서원의 역사·문화적 전통을 이해하고 사회적 역할을 재조명하며 현재적 위치를 가늠하는데 조사목적을 두었다. 그리하여 서원에서 봉행하는 제례를 종합적으로 조사하고 기록하여 전통문화의 변화양상을 추적하고 나아가 이 분야에 대한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영상콘텐츠는 제례 연구를 위한 학술자료로, 제례 전승을 위한 교육자료로 활용됨은 물론 나아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첫 번째 조사연구 대상은 ‘소수서원’ 제례였다. 이후 2011년 ‘무성서원’ 제례까지 총 12건의 조사연구와 영상기록이 이루어졌다.

### 2. 조사대상 선정

서원 제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총 8개년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6개소의 서원과 사우 2곳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조선 고종 때 훼손되지 않은 서원과 사우는 총 47곳이고 그 중 서원은 25곳, 사우는 22

1)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서원 제례와 더불어 향교 제례의 조사연구·영상기록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서원 제례 조사연구 현황에 한정하여 수록한다.

곳이다. 서원 25곳 중 ①제향인물이 문묘 또는 종묘에 배향<sup>2)</sup>된 13곳(도동서원 등, 북한 소재 제외)과 ②지역 학문의 대표 인물을 제향하는 2곳(노강서원-윤증, 병산서원-유성룡) 등 15곳을 선정하였다. 그리고 ③유학의거두인 율곡 이이가 제향된 1곳(자운서원)<sup>3)</sup>을 포함하였다. 사우는 22곳 중 제향인물이 문묘 또는 종묘 배향인물로서 서원과 중복되지 않은 2곳(강한사-송시열, 현절사-김상헌)이다. 해당 서원 및 사우 현황은 다음 <표 1>을 참고하기 바란다.

<표 1> 훼손되지 않은 서원 및 사우 현황(47곳)

□ 서원(書院) : 25곳

명칭	지역	건립시기	사액시기	제향인물	문묘·종묘배향	기록	비 고
도동서원 (道東書院)	대구 달성	1568년 (선조 1)	1607년 (선조 40)	김광필	문묘	2009년	
용연서원 (龍淵書院)	경기 포천	1691년 (숙종 17)	1692년 (숙종 18)	이덕형, 조 경	-	-	
노강서원 (鷗江書院)	경기 의정부	1695년 (숙종 21)	1697년 (숙종 23)	박태보	-	-	
우저서원 (牛渚書院)	경기 김포	1648년 (인조 26)	1675년 (숙종 1)	조 현	문묘	2012년	
파산서원 (坡山書院)	경기 파주	1568년 (선조 1)	1650년 (효종 1)	성수침, 성 혼, 성수종, 백인걸	문묘	2011년	
덕봉서원 (德峰書院)	경기 안성	1695년 (숙종 21)	1695년 (숙종 21)	오두인	-	-	
심곡서원 (深谷書院)	경기 용인	1650년 (효종 1)	1650년 (효종 1)	조광조, 양팽손	문묘	2011년	
사충서원 (四忠書院)	경기 하남	1725년 (영조 1)	1725년 (영조 1)	김창집, 이이명, 이건명, 조태채	종묘	2013년	
돈암서원 (遯巖書院)	충남 논산	1634년 (인조 12)	1660년 (현종 1)	김장생, 김 집, 송준길, 송시열	종묘·문묘	2009년	
노강서원 (魯岡書院)	충남 논산	1675년 (숙종 1)	1682년 (숙종 8)	윤 중, 윤문거, 윤 황, 윤선거	-	2009년	
무성서원 (武城書院)	전북 정읍	1484년 (성종 15)	1696년 (숙종 22)	최치원, 신 잠, 정극인 등 7위	문묘	2011년	
필암서원 (筆巖書院)	전남 장성	1590년 (선조 23)	1662년 (현종 3)	김인후, 양자징	문묘	2010년	
소수서원 (紹修書院)	경북 영주	1542년 (중종 37)	1550년 (명종 5)	안 향, 안 축, 안 보, 주세붕	문묘	2008년	
금오서원 (金烏書院)	경북 구미	1570년 (선조 3)	1575년 (선조 8)	길 재, 김종직, 정 봉 등 5위	-	-	

- 2) 훼손되지 않은 25곳 서원 중 제향 인물이 문묘 또는 종묘에 배향된 서원은 17곳이다. 이중 북한 소재 3곳을 제외하면 총 14곳이 조사연구 대상이었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 자문회의(2011.11.22)에서 경북 경주에 소재한 서악서원(경북 기념물 제19호)은 제외하기로 결정되었다. 서악서원은 서원의 분화 과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가치는 있으나 연구소 조사연구 및 영상기록의 목적인 ‘한국 서원의 전통성과 계승’과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조사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 3) 율곡 이이(기호학과)는 퇴계 이황(영남학과)와 함께 조선 유학의 거유로서 그 제례에 대한 조사연구와 영상기록의 필요성이 인정되었다. 그러나 훼손되지 않은 서원 중 이이를 제향하는 문회서원이 북한(황해도 배천)에 소재하고 있어 조사연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관계 전문가와의 자문회의(2011.11.22) 결과 비록 자운서원(경기 기념물 제45호)이 복원된 것이나 서원 제례는 조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되었다.

서악서원 (西岳書院)	경북 경주	1561년 (명종16)	1623년 (인조 1)	김유신, 설 충, 최치원	문묘	-	주2) 참조
옥산서원 (玉山書院)	경북 경주	1573년 (선조 6)	1574년 (선조 7)	이언적	종묘 · 문묘	2010년	
도산서원 (陶山書院)	경북 안동	1574년 (선조 7)	1575년 (선조 8)	이 황	종묘 · 문묘	2011년	
병산서원 (屏山書院)	경북 안동	1613년 (광해군5)	1863년 (철종14)	유성룡	-	2009년	
흥암서원 (興巖書院)	경북 상주	1702년 (숙종28)	1705년 (숙종31)	송준길	문묘	2012년	
옥동서원 (玉洞書院)	경북 상주	1580년 (선조13)	1789년 (정조13)	황 히, 황맹현, 황효원 등 5위	-	-	
남계서원 (濫溪書院)	경남 함양	1552년 (명종 7)	1566년 (명종21)	정여창, 강 익, 정 은	문묘	2010년	
문희서원 (文希書院)	황해 배천	?	1568년 (선조 1)	이 조, 이 성, 흥, 등 6위	종묘 · 문묘	-	북한 소재
봉양서원 (鳳陽書院)	황해 장연	1695년 (숙종21)	1696년 (숙종22)	박세채	종묘 · 문묘	-	북한 소재
노덕서원 (老德書院)	함남 북청	1627년 (인조 5)	1687년 (숙종13)	이항복, 민정중, 오두인, 이광좌	-	-	북한 소재
송양서원 (崇陽書院)	개성	1573년 (선조 6)	1575년 (선조 8)	정몽주, 서경덕, 김항현 등 6위	종묘 · 문묘	-	북한 소재

□ 사우(祠宇) : 22곳

명칭	지역	건립시기	사액시기	제향인물	문묘 · 종묘배향	기록	비 고
강한사 (江漢祠)	경기 여주	1785년 (정조 9)	1785년 (정조 9)	송시열	종묘 · 문묘	2012년	대로서
현절사 (顯節祠)	경기 광주	1688년 (숙종14)	1693년 (숙종19)	홍익한, 김상헌, 윤 집 등 5위	종묘	2013년	
충장사 (忠莊祠)	경기 고양	1842년 (헌종 8)	1842년 (헌종 8)	권 을	-	-	
충렬사 (忠烈祠)	인천 강화	1641년 (인조19)	1658년 (효종 9)	김상응, 이상길 등 28위	-	-	
창렬사 (彰烈祠)	충남 부여	1717년 (숙종43)	1721년 (경종 1)	홍익한, 윤 집, 오달제	-	-	
충렬사 (忠烈祠)	충북 청주	1679년 (숙종23)	1727년 (영조 3)	임경업	-	-	
표충사 (表忠祠)	충북 청주	1731년 (영조 7)	1736년 (영조12)	이봉상, 남연년, 홍 립	-	-	
포충사 (褒忠祠)	광주 남구	1601년 (선조34)	1603년 (선조36)	고경명, 고종후, 고인후 등 5위	-	-	
충렬사 (忠烈祠)	경남 통영	1606년 (선조39)	1663년 (현종 4)	이순신	-	-	
포충사 (褒忠祠)	경남 거창	1737년 (영조13)	1768년 (영조44)	이술원	-	-	
창열사 (彰烈祠)	경남 진주	?	1607년 (선조40)	김시민, 김천일, 최경희 등 39위	-	-	
충렬사 (忠烈祠)	부산 동래	1605년 (선조38)	1624년 (인조 2)	송상현, 정 발, 노개방 등 5위	-	-	



충렬사 (忠烈祠)	강원 철원	1650년 (효종 1)	1652년 (효종 3)	홍명구	-	-	
창절사 (彰節祠)	강원 영월	1685년 (숙종11)	1699년 (숙종25)	박팽년, 성삼문, 유성원 등 10위	-	-	
포충사 (褒忠祠)	강원 철원	1665년 (현종 6)	1668년 (현종 9)	김응하	-	-	
태사사 (太師祠)	황해 평산	?	1796년 (정조20)	배현경, 복지겸, 신송겸, 유금필	-	-	북한 소재
청성묘 (淸聖廟)	황해 배주	1687년 (숙종13)	1701년 (숙종27)	백 이, 숙 제	-	-	북한 소재
삼충사 (三忠祠)	평남 평원	1603년 (선조36)	1661년 (현종 2)	제갈량, 악 비, 문천상	-	-	북한 소재
충민사 (忠愍祠)	평남 안주	1681년 (숙종 7)	1682년 (숙종 8)	남이흥	-	-	북한 소재
수충사 (酬忠祠)	평북 향산	1794년 (정조18)	1794년 (정조18)	서선대사 휴정	-	-	북한 소재
표절사 (表節祠)	평북 정주	?	1824년 (순조24)	정 시, 백경한, 임지환 등 7위	-	-	북한 소재
무열사 (武烈祠)	평양	1593년 (선조26)	1593년 (선조26)	이여송, 양 원, 이여백, 장세작	-	-	북한 소재

조사대상 18곳(서원 16곳, 사우 2곳)을 조사 지역별로 살펴보면, 주로 경기 지역과 대구·경북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종묘와 문묘에 배향된 인물 위주의 대상 선정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호학과와 영남학과의 지역을 대변하는 곳에 서원이 보존, 전승되어 온 것으로 파악된다.

경기 : 우저서원, 파산서원, 심곡서원, 강한사[대로사], 자운서원, 사충서원, 현절사<sup>4)</sup>

충남 : 돈암서원, 노강서원

전북 : 무성서원

전남 : 필암서원

경남 : 남계서원

대구·경북 : 도동서원, 소수서원, 옥산서원, 도산서원, 병산서원, 흥암서원

조사대상 서원은 현재 사적, 유형문화재, 기념물, 문화재자료, 향토유적 등으로 지정<sup>5)</sup>되어 보존되고 있다.

### 3. 조사 방법

서원 제례 조사연구는 제례 전 과정과 서원의 운영 조직, 그리고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지조사와 영상기록(Full HD) 및 고해상도의 기록 사진 촬영을 실시하여 현장성을 확보하고 있다.

서원 제례는 통상 1년에 두 차례(춘계·추계) 봉행되는 향사 중 춘계 봉행 향사를 선택하여 조사한다. 춘계·추계 향사의 봉행 방식(제례 절차, 제물, 제기, 제복 등)이 유사하다고

4) 2013년 조사대상 서원

5) 표2. 연도별 영상기록 현황의 비교 참조

판단했기 때문이다<sup>6)</sup>.

조사연구는 다음 표2와 같이 5가지 세부 분야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표 2> 조사연구 내용

분야	조사내용
① 역사	연혁, 제향인물, 공간구성(건축물 등), 관련 유적 및 전적·고문서
② 상시 제례	매월 초하루, 보름 분향례 등
③ 서원 제례 (춘계 향사)	제례 봉행을 위한 의사 결정(운영회의 등) 준비 과정(제관 선정, 제물 구입 및 준비, 제기 준비, 제복 관리 등) 제례 봉행(제례 절차 및 음복 등)
④ 운영 및 조직	장의회의, 운영위원회, 유림 총회 등
⑤ 일반 활동	사회교육 프로그램, 서원의 현대화 노력 등

현지조사와 함께 진행된 영상기록은 두 가지 개념으로 제작되었다. 하나는 기록 보존을 목적으로 한 기록본이고, 다른 하나는 대외 공유 및 활용을 위한 보급본이다. 기록본은 조사연구 전체 내용이 모두 수록되어 있으며 분량에 제한이 없다. 서원의 역사와 운영 그리고 통상 2~3일 전에 이루어지는 제수 구입부터 분정기 및 축문 작성, 제수 진설, 제례에 관한 내용과 삭망 분향례, 장의회의, 사회교육, 고문서 등 관련 자료, 전문가 인터뷰 및 관련 유적지 등이 수록된다. 보급본은 문화향유권 확보를 위한 대국민 서비스와 다양한 활용을 위해 40분 내외의 분량으로 압축 편집한 것이다.

<표 3> 연도별 영상기록 현황

연도별	기록 대상 <sup>7)</sup>	지역	제례 시기	제향인물	비고 <sup>8)</sup>
2008	소수서원*	경북 영주	9월 상정	안향	사55
2009	병산서원*	경북 안동	3월 상정, 9월 상정	류성룡, 류 진	사260
	도동서원*	대구 달성	2월 중정, 8월 중정	김굉필	사488
	노강서원	충남 논산	2월 11일, 8월 11일	윤 황 등 4위	유30
	돈암서원*	충남 논산	2월 중정, 8월 중정	김장생	사383
2010	남계서원*	경남 함양	2월 상정	정여창	사499
	옥산서원*	경북 경주	2월 중정	이언적	사154
	필암서원*	전남 장성	2월 중정	김인후, 양자징	사242
2011	무성서원*	전북 정읍	2월 중정	최치원 등 7위	사166

6) 춘계·추계 봉행 향사 중 춘계 봉행 향사를 선택적으로 조사한 이유는 2009년에 조사한 서원 제례에서 찾을 수 있다. 2009년 서원제례는 춘계·추계 봉행 향사를 모두 조사연구하여 영상으로 기록하였다. 그 자료로 서원 제례의 영상기록을 편집하던 중 자료의 사용에 있어 혼란이 발생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고 그 결과 춘계 봉행 향사에 집중하여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도산서원*	경북 안동	2월 중정	이 황, 조 목	사170
	파산서원	경기 파주	2월 중정	성 혼 등 4위	문자10
	심곡서원	경기 용인	2월 중정	조광조, 양팽손	유7
2012	흥암서원	경북 상주	3월 상정	송준길	기61
	우저서원	경기 김포	2월 중정	조헌	유10
	강한사[대로사]	경기 여주	2월 하정	송시열	유20
2013 (예정)	사충서원	경기 하남	음력 9월(매년 결정)	김창집 등 4위	향유3
	자운서원	경기 파주	8월 중정	이 이 등 3위	기45
	현절사	경기 광주	음력 9.10	김상헌 등 5위	유4
계	18곳(서원16, 사우 2)				

기록 사진 역시 서원 제례 전체 내용과 사회교육, 조직 운영, 서원 건축물, 현장 주변 스캐치 등을 촬영하며 제례의 미학적 측면을 고려한다. 대개 디지털 이미지는 1장 당 2,000만 화소(용량 50메가 이상)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다. 영상기록과 기록 사진은 국문연 연구자료 정보 지침에 따라 메타 정보를 정리해 둔다.

### III. 서원 제례 변화 양상 - 소수서원과 도산서원 사례 -

#### 1. 제례 내용

종전 2박 3일로 봉행하던 향사 기간이 1박 2일로 단축되었다. 그 결과 1일 전에 입재하여 이튿날 제례를 봉행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 당일 입재하여 당일 제례를 거행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과거 전통사회와 달리 교통이 발달하여 굳이 2~3일 전 입재하지 않아도 제례 준비에 불편함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제례가 변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입재의 변화에 따라 습의 또한 변화였다. 일일이 실습하는 방식에서 서원 관계자의 설명이나 서재에서 책자를 열람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도 한다.

제례 시간도 변화였다. 도산서원의 경우 축시丑時에 지내던 것을 오전 11시로 변경하였다. 축시 행례를 고수하는 서원이 있기도 하지만 참례자들의 편의와 일반 참배객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오전 중에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제례 시간이 바뀌어 입재일이 변했는지 또는 1일 전 입재 또는 당일 입재로 제례 시간이 바뀌었는지, 상호 편의에 의해 변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제물 구입도 전통 시장에서 알맞은 제수를 골라 흥정하지 않고 구입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주문배달을 하거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시생豎生의 경우 예전에는 생돼지로 생간품牲看品을 한 다음 직접 도축하여 사용했으나 현재는 정육점에서 반으로 토막낸 냉동돼지를 구입하는 것으로 바뀌었다.<sup>9)</sup>

7) 기록대상 중 소수서원(경북 영주), 병산서원·도산서원(경북 안동), 도동서원(대구 달성), 돈암서원(충남 논산), 남계서원(경남 함양), 옥산서원(경북 경주), 필암서원(전남 장성), 무성서원(전북 정읍)의 9개 서원은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되었다.(2011. 12. 9). 아울러 모두 사적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다.

8) 영상기록 대상 서원들은 대부분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사적→사, 지방지정 유형문화재→유, 지방지정 기념물→기, 지방지정 문화재자료→문자, 향토유적→향유로 축약하였다.

9) 국립문화재연구소, 『서원 향사(소수서원, 도산서원)』, 2011. 287쪽 참조. 도산서원 사례

또한, 도산서원의 석미례漸米禮 전통도 안동댐의 건설로 강이 사라지면서 열정湧井 옆 수돗가에서 손을 대지 않고 물로만 씻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과거 제물의 신성성을 확보하고자 남의 눈에 띄지 않는 장소에서 쌀과 기장을 씻어 왔던 전통이 주변 환경의 변화와 함께 변한 것이다.

서원 제례에는 대개 유건과 도포를 예복으로 입었다. 유건과 도포를 예복으로 입지 않는 경우는 예로부터 삼헌관만 특별히 관복을 입는 경우(도산서원)와 금관조복을 입는 경우(돈암서원, 우저서원, 강한사)로 구분된다. 금관조복은 돈암서원에서 도입하여 예복으로 착용한 것을 보고 뒤에 우저서원에서도 입게 되었다고 한다<sup>10)</sup>.

제복은 영남지역의 서원들은 대체적으로 개인이 직접 준비를 하는 반면, 기호지역의 서원들은 서원 측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많았다. 예복을 갖춰 입어야만 서원 제례 시 출입할 수 있었던 규정도 관람객의 증가로 제례에 참여하는 유생에 한하여 적용하고 일반 참배객들은 적용하지 않게 되었다.<sup>11)</sup>

## 2. 관련 문서

서원에서 제례를 봉행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 중 하나는 제례를 집행할 제관의 선정이다. 선정된 제관의 임무를 알리고 역할을 분담한 내용들은 망기와 분정기를 통해 통지된다.

망기望記는 지필목을 준비하여 한지에 목서한 뒤 봉투에 넣고 봉하여 직접 전달하였던 것이나 시대의 흐름에 따라 점차 편리화·간략화되어 갔다. ‘흔글’로 형식에 따라 입력한 뒤 프린트하여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 삼헌관에게만 망기를 작성하여 보내고 나머지는 안내장을 송부하는 경우 등이 등장하였다. 제례를 봉행할 제 집사를 분정하는 분정기分定記에도 변화가 있었다. 보통 분정기를 작성하여 분정관에 붙이는데 화이트 보드에 소임所任을 인쇄해 두고 제관들의 이름만 펜으로 써 넣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은 편의에 따라, 혹은 형편에 따라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제례를 봉행하는 정신은 그대로 전승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서원의 제례 절차를 명시해 놓은 것이 홀기笏記이다. 따라서 제례는 홀기대로 시행된다. 그러나 간혹 홀기에는 있으나 제례 진행 시 뺀 경우 또는 보완하여 삽입한 경우도 있었다. 소수서원은 최초의 서원답게 가장 오래된 홀기가 지금까지 전래되어 오고 있다. 서원 제례에 대한 의례절차를 적은 주세붕의 수필홀기와 이를 수정·보완한 이항의 홀기가 있다. 서원 제례절차의 시원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소수서원은 여전히 이 홀기의 원형대로 제례를 봉행하고 있다.

한편 소수서원에는 진설도도 남아있다. 주세붕의 ‘안문성공춘추대향도安文成公春秋大享圖’와 이항이 수정·보완한 ‘안문성공춘추향도安文成公春秋享圖’가 그것이다.<sup>12)</sup> 그러나 현재의 진설은 찬품의 내용과 배열법에 있어 진설도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진설 내용이 언제 이렇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연구하여 원인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 3. 제례악

소수서원은 우리나라의 첫 서원이다. 이러한 가치성 외에도 소수서원의 제례가 다른 서원

10) 돈암서원은 2009년 영상기록 시 이미 수 년 전에, 우저서원은 2012년 영상기록 시 2010~2011년 경 금관조복으로 변경되었다는 구술이 있었다.

11) 도산서원의 사례, 위의 책 참조

12) 소수서원의 사례, 위의 책 111~112쪽 참조

보다 독특한 점이 있다. 바로 도동곡道東曲이라는 악장樂章을 부르며 행례한다는 점<sup>13)</sup>이다. 도동곡은 주세붕이 지은 것으로 유학의 연원과 실천, 공자·주자의 도학 칭송, 안향에 의해 도학이 도입된 것에 대한 찬양 등의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경기체가景幾體歌 형식의 초·중·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곡은 멸실되고 가사만 전해져 온다. 오직 소수서원에서만 불러지는 제례악이다.

#### <초헌初獻>

복희伏羲·신농神農·황제黃帝·요순堯舜이 하늘을 이어 법을 세우시니,  
그 광경 어떠하고. 인심은 위태롭고 도심은 미미하니 정밀하고 전일하여야만  
실로 중중을 잡을 수 있다는 말로 주고받는 성인의 심법心法이란 이것뿐이다.  
우禹·탕湯·문왕文王·무왕武王과 고요皋陶·이윤伊尹·주공周公·소공召公, 군신이 서로 만나시니  
그 광경 어떠하고.

특히 제례 절차에 맞춰 도동곡을 부를 때에는 장로 1인과 유생 1인이 마주 서서 같이 부르게 하고 있는데 후세에 영원히 전승하기 위한 방편이다. 유생은 헌관이 바뀔 때마다 교체되어 도동곡의 창자는 총 4명이 된다. 종묘대제를 봉행할 때 종묘제례악으로, 석전대제를 봉행할 때 문묘제례악으로 예악의 조화를 도모하고 의례가 더욱 장엄해지는 것과 같이 서원 제례에도 제례악이 불러지는 유일한 사례이다<sup>14)</sup>.

## IV. 서원 제례 조사연구 결과물

### 1. 조사연구 결과물

서원 제례 조사연구 완료 후 조사된 내용은 서원의 역사, 제례, 향사의 특징, 서원의 운영과 전승 등이 수록된 보고서를 발간하여 마무리한다. 서원 제례의 첫 번째 결과물인 『서원향사』 제1권 소수서원, 도산서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서원의 역사
  - 1) 역사적 배경과 구조
  - 2) 배향인물
2. 서원의 제례
  - 1) 분향焚香
  - 2) 향사享祀
  - 3) 제물祭物과 제구祭具
3. 향사의 특징
4. 서원의 운영과 전승
  - 1) 서원의 운영과 조직
  - 2) 전승과 지속

13) 소수서원의 사례, 위의 책 109~110쪽 참조

14) 소수서원의 도동곡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서원의 역사’에는 서원의 역사와 건물 배치 등을 포함한 공간구성 그리고 배향 인물의 생애와 역사적 의미, 배향하게 된 배경 등을 기술하였다.

‘서원의 제례’에는 제례 과정에 대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분향례 전 과정과 제례 전 과정 그리고 제례에 필요한 제기와 제복 등 제구와 제물들이 주요 내용이다.

‘서원의 운영과 전승’ 부분에는 서원을 운영하는 조직의 구성과 활동들, 서원의 제례를 전승하기 위한 교육과 제반 활동 등을 수록하였다. 물론 각 서원의 독특한 제례적 특징도 확인할 수 있다.

서원 제례 조사연구 성과는 2011년도에 이미 보고서가 발간된 2곳(소수서원, 도산서원)을 시작으로 2012년 노강서원 등 4곳, 2013년 도동서원 등 2곳, 2014년 파산서원 등 4곳, 2015년 남계서원 등 6곳의 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이다. 총 9권의 보고서로 서원 18곳의 조사연구 성과가 정리·보고될 것이다.

서원의 제례는 제례 당일의 현장을 기록한 영상기록물로 그 현장성을 유지한다. 영상기록은 HD로 기록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록본, 보급본 두 가지 형식으로 제작한다. 영상기록물은 HD 테이프에 수록된 원본과 복사본, 클린본과 영상기록물을 용이하게 활용하기 위한 DVD 복제본으로 구성된다. 또한 AVI파일을 확보하여 인터넷 상에서의 활용성을 꾀하였다.

기록본은 2008년 첫 기록 이후 점차 수록시간이 늘어나 돈암서원의 경우 210분대까지 넘어갔으며, 축약본은 25~45분대의 수록시간을 보유하고 있다.

서원 제례에 대한 영상기록과 보고서 발간을 통해 조사연구 당시의 제례를 사실성을 바탕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

## 2. 결과물의 활용

서원 제례 결과물 중 영상기록은 모두 국문연과 국가기록원에 영구 보존된다. 영상기록 중 보급본은 해당 서원에 제공하고 국문연 홈페이지([http:// www.nrich.go.kr](http://www.nrich.go.kr))에 모두 게시<sup>15)</sup>되어 있다. 기록사진은 대개 보고서에 수록되고 별도로 보존된다. 각 서원에 대한 조사연구 결과는 1~2년 뒤 보고서로 발간할 계획으로 있다.

그간 영상기록물은 한국방송공사의 <역사스페셜> 등 공익 방송의 자료화면으로 제공된 바 있으며 서원의 제례, 조직운영, 사회교육 등이 수록되어 있어 유관 서원과 향교 등에 교육자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렇듯이 서원 제례 조사연구는 서원이라는 건축적 의미 외에 현재 서원의 구성원들에 의해 면면히 전승되는 의미를 찾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서원이 함유하고 있는 유형적 가치와 무형적 가치는 서로 상호 보완하며 문화유산의 지속적 전승을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전승을 담보하는 문화적 공간으로서 가치를 확대하고 있다.

세계문화유산인 종묘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종묘제례 및 제례악과 더불어 그 가치를 전승하고 있다. 사적인 서울 문묘(제143호)는 중요무형문화재인 석전대제(제85호)와 더불어 그 역사를 이어가고 있다. 사적이자 세계문화유산 잠정목록으로 등재된 각 지역의 9개 서원은 서원의 제례를 포함한 제반 의례와 더불어 그 특별한 가치를 전승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15) 국립문화재연구소 홈페이지 → 문화유산연구지식 포털 → 영상자료관 → 04 무형문화재관 → 전통의례 기록 영상으로 찾아가면 된다.

### 제 3 발표 지정토론 1

#### “서원제례 조사연구 개황概況”에 대한 토론

김 경 선  
성균관 석전교육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서원제례 조사연구 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18개 서원(사우 2곳 포함) 대하여 제향의례에 대한 기록사업입니다.

전통의례에 대한 조사연구와 영상기록은 급격한 사회변화로 인하여 점점 소멸되어 가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례의 현상을 보전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정부가 장기간에 걸쳐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바, 한 시대 역사기록과 문화전승의 측면에서 매우 뜻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래의 문화재 관리는 주로 유형문화재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왔고 발굴과 보전에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1962년 문화재보호법 이래 연극, 음악, 무용, 놀이, 의식,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에 대하여도 인식을 새롭게 하고 각 분야에 걸쳐 지속적인 발굴과 전승에 힘써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100여 종목을 넘게 되었습니다.

21세기 지식사회에서는 점점 무형유산에 대한 비중이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으며 우리 정부에서도 “문화재보호법”으로부터 무형문화재 분야를 분리하여 “무형문화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무형유산법)을 제정을 추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형의 문화유산은 한번 소멸하게 되면 다시 기록하거나 복원이 불가능한 특수성에 비추어 볼 때 국문연의 기록사업은 전통문화 전승을 위하여 필요불가결하며 아울러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에 시의적절하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게 되었다고 봅니다.

기록사업의 핵심 내용은 제향의례 부분이지만 서원의 역사와 시설 및 배향인물 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서술하고 서원의 운영과 조직, 전승의 노력 및 사회적 기능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핵심내용인 제향부분에 대하여는 춘추향사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삭망분향 및 고유례 등 서원의 일상의례도 모두 포함 기록하고 있습니다. 향사절차에 대하여는 제수 장보기에서 시작하여 입재하여 파재할 때까지 전 과정을 수록하며 결과물은 영상물은 학술자료용의 기록본과 일반인을 위한 보급본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기록의 방법은 ‘기록’ 사업이라는 문자 그대로 현재 시행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기록하는 것으로서 원형의 복원이나 어떤 표준 모델을 상정하여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각 서원의 의례가 향사일시, 제수, 복식, 의례절차 등에서 다소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지역적인 특성이나 시대에 따라 변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 본 기록사업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사사업은 향교의 석전의례와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서원의 향사가 향교의 석전

보다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향교는 관학으로서 『국조오례의』 등의 준거 전범典範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는 반면 서원은 사학私學으로서 국학인 향교의 석전에 준용하기는 하지만 사학의 특성에 맞게 자율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관학보다는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조사대상 서원의 선정기준은 서원의 역사적 중요도와 제향인물의 위상 및 지역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선정된 것으로 보며 기록의 내용 및 방법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어 특별히 지적할 사항은 없고 다만 사업의 결과물 활용과 후속사업 추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오늘 이 워크숍의 목적은 서원의 세계유산 추진을 위한 것이지만 그에 앞서 또는 이와 병행하여 서원의례의 국가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일의 순서로 보면 국내에서 먼저 문화재로 지정되고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는 것이 순서이지만 순서야 어떻든 간에 서원의 향사의례도 선별적으로 국가문화재(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 중 전통 유교의례에 관한 것은 종묘대제, 사직대제, 석전대제 세 가지 뿐입니다. 서원과 관련한 문화유산 역시 주로 건축물, 전적 등 유형문화재나 기념물(사적)로 지정되어 있고 무형의 문화적 소산은 한 건도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현재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일별하면 무형문화의 장르 중 민중의 기층을 이루고 있던 연극, 음악, 무용, 놀이 및 공예기술 등은 ‘역사적, 예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상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조선 500여년간 국가의 통치이념이었던 유교문화에 관한 것 특히 정신문화의 핵심 주류를 이루었던 유교의례에 대한 것은 소외되고 있는 현상은 역사의 아이러니입니다.

향교의 석전이나 서원의 향사의례는 학교에서 ‘스승을 존중하는 [尊師]’ 의례로서 인의도덕이 꺾여진 [‘既廢之學’] 현대사회에서 반드시 계승되어야 할 [‘紹而修之’] 정신적 문화 소산입니다. 특히 오늘날 스승과 제자 간의 의리 [師道] 가 무너지고 선생이 교실에서 사랑의 회초리를 가하면 바로 폭력고사로 고발당하며 학교폭력이 난무하는 각박한 시대상황에서 청소년의 정서순화, 인성함양의 상징적인 표상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금번 조사대상 서원은 모두 조선 말 서원 철폐 시 훼손되지 않은 저명한 서원들을 주로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훼손되었다가 복원되거나 신설된 서원이 현재 전국에 600여 개소 이상 난립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기록의 차원에 그치지 않고 234개 향교와 더불어 이렇게 많은 서원들이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그 본래의 목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어떠한 사회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제도권 교육기관과의 역할분담 및 상호보완을 통하여 범 국민적 교육기관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토론자는 국문연의 향교 및 서원제례 조사연구 사업에 처음부터 자문위원으로 참여해 오고 있습니다. 서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관련하여 특히 의례부분에 있어서 몇 가지 의견을 개진코자 하는 바, 이는 주로 제4주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토론 시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먼저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고자하는 대상 자산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건조물 및 전적 등 유형자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제향의례 등 무형의 문화소산을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인지에 따라 추진전략이 달라질 수 있으며 지금 정부에서 추진 중인 무형유산법의 운용과도 연계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종묘와 종묘제례의 경우에는 건축물은 ‘문화유산’으로 종묘제례와 제례악은 ‘무형유산’으로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으며 해인사 대장경의 경우에도 판전과 그 내용물인 대장경판은 각각 ‘문화유산’과 ‘기록유산’으로 분리하여 등재되어 있는 바, 이러한 전례를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조선왕릉의 경우도 참고하여 유리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갖추어야 하며 그 '진정성(Authenticity)'과 '완전성(Integrity)'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 두 개념은 문화유산 보존철학과 관리원칙을 결정하는 중요한 개념으로서 유형, 무형의 문화유산에 공히 적용되는 요소입니다. 진정성은 '재현된 것'이나 '원래의 모습을 가리는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완전성은 '전체를 증거할 수 있는 규모'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한 기준입니다.

첫째, '진정성'의 문제에 있어 서원제례 기록의 내용과 원형의 모습이 서로 상치되는 경우 '진정성'의 논리를 어떻게 전개하여야할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수서원의 경우, 최초의 서원으로서 설립자인 주세붕이 정해 놓은 '안문성공춘추대향도'가 있고, 또 후임 군수인 이황이 수정·보완한 '안문성공춘추향도'가 엄연히 남아 있는데도 현재의 진설 내용은 찬품의 종류와 배열법이 원형의 진설도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바, 이 경우 원형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진정성'이 결여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전통문화의 전승에 있어서 '원형보존'이라는 명제와 현대사회와의 '문화접합성(Interface)'의 문제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진정성'의 개념과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원형보존에만 치중하다 보면 생명을 잃은 박제된 문화재로 전락하기 쉽고 사회변화에 너무 접합되면 원형의 순수성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종묘제례의 경우 제향의 일시, 제관의 수, 제수의 진설, 의례절차 등 여러 가지 요소가 이미 원형에서 벗어난 부분이 많지만 현대사회에서의 대중과의 친화성, 문화의 공유, 미래로의 지속성 등이 고려되어 원형으로부터의 일탈이 용인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선왕릉의 경우에도 선릉, 의릉 등은 서울의 도심에서 도시개발의 폐해로 주변환경이 많이 훼손되고 자연과의 조화가 균형을 잃어 당초 일괄 등재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심사과정에서 원형이 다소 변화되었더라도 대도시 도심에서 현대와 더불어 ‘살아숨쉬는’ 모습이 도리어 높은 평가를 얻었다는 후문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완전성’의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서원의 본래의 기능이 인재를 양성〔養士〕하는 교육기능과 스승을 존중하는 향사의례〔尊賢〕,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었으나 일제강점기 이래 교육기능은 신식 학교로 다 넘어가고 향사의례 중심으로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바, 교육기관으로서의 ‘완전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성교육을 중심으로 한 표준 커리큘럼의 개발, 자질있는 강사요원의 양성, 교육시설의 현대화, 제도권 교육기관과의 역할분담 등 국가적 차원의 교육대계를 마련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진정성’과 ‘완전성’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세계유산제도는 인류문명과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에도 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즉 지금 살고 있는 세대 뿐 아니라 다음 세대도 특정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향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하자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 향교나 서원의 교육과 향사의례는 세대간, 계층간의 문화소통의 단절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진과 후진과의 소통문제는 문자〔한문〕 매체에도 엄청난 장벽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선현들이 축적해 놓은 전적·서적 등의 지적자산을 단순히 문화유산으로 보존하는데 그쳐서는 의미가 없고 이를 번역·유통하고 연구 발전시켜 부가가치를 더하여 확대재생산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미의 문화전승의 ‘진정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교육의 내용은 사회적 변화와 시대적 조류와 괴리되어 있고 향사의례는 ‘존현’이라는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고 고답적인 형식에만 얽매어 젊은 계층으로부터 소외되고 있습니다. 어떤 서원은 춘추 향사일과 매월 삭망의례 때에만 행사行祀하고 그 외에는 아예 문이 잠겨져 있는 박제된 문화재로 퇴락하고 행사일에도 고령자들만 참여하고 젊은 계층의 참여가 극히 저조한 것은 거의 공통된 현상입니다.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정신으로 ‘계왕개래繼往開來’하는 문화의 전승이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 살아있는 서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 제 4 발표

# 한국서원의 제향의례

정 승 모 • 지역문화연구소



## 한국서원의 제향의례

정 승 모(지역문화연구소)

- I. 제향 공간으로서의 서원의 전통
- II. 제향 인물은 서원의 얼굴
- III. 제향을 통해 다시 만나는 스승과 제자
  - 1. 제구祭具, 제물과 그 의미
  - 2. 제향의 기본절차
    - 1) 춘추 제향
    - 2) 정알례와 삭망례
- IV. 제향 의례로 다져지는 결속과 계승

### I. 제향 공간으로서의 서원의 전통

조선의 사족들은 중기부터 자신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다 서원이라는 사설 학교를 세우기 시작하였다. 서원은 공부하는 공간과 제사를 지내는 공간으로 나뉜다. 대개 비탈진 곳에 학교를 세워 앞쪽에는 강당講堂을 짓고 뒤쪽이면서 위쪽이 되는 곳에 사묘祠廟, 즉 사당을 지어 돌아가신 스승의 위판位板을 모셨다. 평소에는 서원의 생도들이 강당에서 모여 글공부를 하고 삭망朔望, 즉 매달 초하루와 보름, 그리고 봄과 가을 두 차례 날을 정하여 학생과 선배들이 모여 밤에 사당에서 제사를 지냈다.

서원은 원래 강학장소講學場所로 지어진 것이지만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紹修書院의 전신으로서 1543년(중종 38)에 세워진 백운동서원白雲洞書院은 사묘의 부수적인 존재였다. 그 후 퇴계 이황李滉(1501-1570)에 의해 강당과 사묘를 같이 갖는 형태를 취하면서 서원은 공부하는 자들의 장수처藏修處 제공이 설립의 주된 목표가 되었고 사현祀賢은 부차적인 것이 되었다. 그것은 향교와 같은 관학官學의 쇠퇴와도 관계가 있다. 또한 서원 설립에는 사족들이 이를 통해 지방사회를 교화敎化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이러한 목적은 서원이 선현에 대한 제향공간으로 기능하게 된 배경이 된다.

### II. 제향 인물은 서원의 얼굴

서원의 사당에는 선현先賢, 즉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의 위판이 모셔져 있다. 한 분을 모시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 분을 모신다. 물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은 그들의 제자이거

나 후손들이다. 서원은 외적인 규모보다는 사당에 어떤 분이 모셔져 있는가에 따라 그 위상이 결정된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에게는 제자도 많을 뿐 아니라 그를 모시는 서원도 많다.

서원의 역사와 관련하여 사족, 또는 유림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선생으로 퇴계 이황과 우암 송시열(宋時烈)(1607-1689)을 꼽을 수 있다. 두 사람은 활동 시기는 다르지만 각각 남인과 노론이라는 두 당파의 중심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은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지만 특히 전자는 남인의 본거지인 경상도에, 후자는 노론의 본거지인 충청도에 집중되어 있다. 숫자로 보면 송시열을 제향한 서원이 가장 많아 조선후기 노론 세력의 전국에 걸친 영향력을 짐작케 한다.

한편 남인계 유림사회에서 퇴계 이황을 모시는 도산서원(陶山書院)이 차지하는 위치와 비중은 특별하다. 도산서원 내의 광명실(光明室)에 보관된 「유원록(遊院錄)」에는 저명한 남인계 학자들이 이름이 시대 순으로 망라되어있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최초의 성리학자라고 할 수 있는 회헌 안향(安珦)(1243-1306)을 제향하는 소수서원의 백운동서원 때 기록인 「행이등록(行移謄錄)」(1546년)에는 경상도 관찰사가 도내 각읍에 통첩(通牒)을 내어 이 서원에서 유생을 공궤(供饋)하는데 물량이 부족하므로 이를 보충케 하라는 내용의 관문(關文)이 실려 있어 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노비와 전답이다. 옥산서원(玉山書院)의 경우 서원이 소유한 노비는 1694년에 130명이었고 이후 꾸준히 늘어 18세기 말에는 180여명에 달하였다. 전답은 200섬지기나 되어 경주를 비롯하여 청도·밀양·경산·영일 등에까지 걸쳐 있었다. 이것 외에도 감사나 인근 지방관이 서원을 예방했을 때 내는 현물 부조와 장기·영일 등에서 매년 보내는 소금 13섬이 있고, 선척(船隻) 등도 소유하고 있었을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정혜사(定惠寺)는 옥산서원을 창건하면서 서원에 소속시킨 절이다. 1834년의 화재로 전소될 때까지 회재 이언적(李彦迪)(1491-1553) 선생의 유물과 문집판각을 보관하고 서원에 필요한 현물을 조달하는 등 서원의 경제적 운영을 뒷받침하였다.

조선후기로 내려올수록 서원의 제향인물은 후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우 서원운영을 위한 경제력도 후손들의 경제력에 따르며, 서원에 대한 사회적인 인정의 범위도 대부분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내에 국한되어있다.

### Ⅲ. 제향을 통해 다시 만나는 스승과 제자

서원의 향사(享祀)에는 매월 삭망(朔望), 즉 초하루와 보름에 알묘(謁廟)하여 분향하는 삭망례, 또는 향알례(香謁禮)와 정월 초5일이나 6일에 행하는 정알례(正謁禮) 및 봄과 가을로 지내는 춘추향사가 있었다. 춘추향사의 시기는 중춘(仲春, 음력 2월)과 중추(仲秋, 음력 8월)의 중정일(中丁日), 또는 춘추 계월(季月, 음력 3월과 9월)의 상정일(上丁日)이나 중정일로 정하였다. 중춘과 중추의 상정일은 성균관과 향교의 석전일(釋奠日)이기 때문에, 그 이후의 정일(丁日)을 향사일로 잡았다.

그러나 한 고을에 서원이 여럿 있는 경우가 많아 다른 서원과 중복을 피하기 위해 제향일이 조정되어 정일을 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향알례와 삭망례는 분향과 재배만으로 간단히 행해진다.

## 1. 제구祭具, 제물과 그 의미

제향은 서원운영을 맡은 유사有司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된다. 제물을 담은 제기祭器를 닦고, 제주祭酒를 빚어 향아리에 담은 다음 부정不淨이 타지 않게 입구를 봉封하며, 쌀과 기장을 씻고, 마지막으로 희생犧牲으로 올릴 산 짐승을 잘 살핀다. 이 모든 일은 신중하게, 그리고 정성을 다한다. 올리는 제물은 모두 생것이다. 군자는 혈식血食을 한다는 말이 있는데, 혈은 희생을 뜻하므로 희생을 바쳐 제사를 지내는 것이다.

어느 서원이나 제구祭具의 종류나 형태는 거의 동일하다. 간혹 일부 제구들은 진설품목에 따라 서원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근자에는 같아지는 경향이 있다. 축문을 올려놓는 축판祝板은 대개 어디나 보이는데, 옥산서원의 경우처럼 축상祝床만 보이기도 한다. 제기祭器와 제물, 그리고 희생을 운반하는 데는 가자架子가 필요하다.

제물은 곡식과 희생, 그리고 폐백이 기본이다. 『시경詩經』에 자성稌盛은 제사에 필요한 것이니 미리 준비되어 있거나 정결하지 않다면 그 성의를 다 한 것이라 할 수 없으며 예절을 시행했다고 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서黍, 즉 기장과 도稻, 즉 쌀을 기본으로 하는데, 이것으로 모든 곡식을 통칭하는 육곡六穀을 상징한다. 육곡이란 서黍·직稷·도稻·량粱·맥麥·고粱를 말한다.

곡식을 담은 제기는 구리로 만든 보簋와 켈簠다. 보에는 쌀을 담고, 켈에는 기장을 담는다. 보는 안이 둥글고 밖이 네모지며 켈은 그 반대, 즉 안이 네모지고 밖이 둥글다. 보나 켈의 뚜껑에는 거북이 새겨져 있는데 대개 거북은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사람에게 탐식을 경계하는 뜻을 담은 것으로 해석된다. 보와 켈은 짝을 이루어 변과 두 사이에 배치하는데, 신위를 중심으로 왼쪽에 보, 오른쪽에 켈을 놓는다. 초창기 문헌에는 2보 2켈라 하였는데, 언제부터인가 1보 1켈가 되었다.

서원 향사의 희생으로는 한 가지를 올리는데, 대개 돼지 한 마리다. 성균관 석전대제 때는 소·양·돼지 삼생三牲을, 향교 석전에서는 양과 돼지 두 가지를 올린다. 과거 서원 문헌을 보면 계성雞腥을 올리는 곳도 있었다. 희생을 담은 제기가 흔히 적대로 부르는 조(俎)다.

폐백으로는 옷 한 벌을 지을 수 있는 양의 옷감을 마련한다. 원래 흰 모시를 많이 썼으나 면포를 쓰거나 한지로 대신하는 곳도 많다. 폐백을 담은 비(篚)는 대나무로 만든 납작한 채반이다.

반찬에 해당하는 제물은 대오리를 걸어 만든 변饔과 나무로 만든 두두에 담는다. 마른 제물은 변에, 젖은 제물은 두에 담는다. 향교 석전례는 소사小祀에 해당하여 8변 8두를 갖추지

만 서원 향사는 이보다 낮추어 서원에 따라 6번 6두, 4번, 4두, 혹은 2번 2두를 놓는다. 제물 중 녹해鹿醢는 사슴고기를 절인 것인데, 대개 쇠고기로 대신한다. 녹포도 쇠고기포다. 어해魚醢는 절인 생선으로 지역에 따라 그 종류가 다르다. 어포도 그러하다. 근저芹菹(또는 구저韭菹)는 미나리를, 청저靑菹는 생 무를, 황률黃栗(또는 율황)은 밤을, 건조乾棗는 말린 대추를 말한다.

제물은 기본적으로 날 것 그대로 쓴다. 장을 보러 갈 때 미리 물목物目을 작성하여 한 가지라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한다. 밤, 대추, 포 등 제물은 모두 크고 빛깔이 좋은 것만 고른다.

작爵은 헌작 때 올리는 구리로 만든 술잔이다. 두 기둥에 세 발이 달려있고 술을 따르는 유流와 손잡이인 판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拮에는 축점祝拮과 작점爵拮이 있어 축판이나 술잔을 올려놓기 위한 네모 받침으로 유기로 만들었다.

제주祭酒는 직접 담근 것을 사용한다. 용수로 거른 맑은 술만 제주로 사용한다. 그리고 제주로 쓸 양 이상을 걸러 헌관들을 대접한다. 용수로 거른 제주는 준罇에 담아 봉하는데, 이를 봉준封罇, 또는 봉준奉尊이라고 한다.

준에는 세 가지가 있다. 초헌 때 올리는 술인 예제醴齊를 담는 준은 소 모양의 희준犧罇, 아헌 술인 양제盞齊를 담는 준은 코끼리 모양의 상준象罇, 종헌 술인 청주淸酒를 담는 준은 산 문양을 새긴 산뢰山罍라고 한다. 이러한 격식을 다 갖춘 서원도 있지만 종헌 준인 산뢰를 쓰되 주향위主享位 준과 종향위從享位 준을 구별하여 쓰는 서원도 있다.

작勺은 헌작이나 관세 때 술이나 물을 뜨는 국자다. 손잡이 부분에 용머리가 조각되어있어 용작龍勺이라고도 한다. 먹罍은 술향아리를 덮는 덮개다. 먹이 없는 경우 한지로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먹을 대신하기도 한다. 그밖에 제구로는 유기로 만든 향로香爐와 향합香盒 등이 있다.

제주를 거르고 난 나머지 술밑으로는 막걸리를 만드는데, 삼헌관 이외의 집사와 참사자들을 대접하는데 쓴다.

제관들의 식사접대를 위한 찬거리도 장만한다. 서원마다 고직사庫直舍나 전사청典祀廳이 있어 제물과 음식을 준비한다.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과거 천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요즈음에는 모두 떠나고 없거나 후손들이 대신하거나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와 이 일을 맡는다.

제수로는 그밖에도 향나무, 향촉, 필묵, 양초, 축지 등이 필요한데, 흰 종이로 싸 두었다가 입재 후에 근봉謹封한다.



## 2. 제향의 기본절차

제향은 모든 절차가 예禮에 어긋남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집례執禮가 창창을 하면 그에 따라 제관들이 질서있고 경건하게 움직이며 진행된다. 계단을 오를 때도 왼발부터 디디며 한 계단씩 올라간다. 사당의 중문中門은 신도神道로 여겨 제물과 제주가 드나드는 경우 외에는 출입을 금하고 항상 동문으로 들어가 서문으로 나온다.

서원마다 제향절차가 조금씩 다르지만 기본적으로는 분향례焚香禮, 전폐례奠幣禮, 삼헌례三獻禮, 음복수조례飮福受胙禮, 망료례望燎禮로 이루어진다. 분향을 하여 혼을 부르고 폐백幣帛을 드리는 예를 행한 다음 술잔을 세 차례 올리는데 초헌初獻, 즉 첫 잔을 올리고 나서 축문祝文을 읽는다. 아헌과 종헌이 끝나면 초헌관이 제물로 올린 술과 고기 일부를 맛보아 복을 받은 다음 축문을 태우면 제사의 주요 절차가 끝난다. 다음의 사례는 아직 전통적인 예의절차를 잘 간직하고 있는 옥산서원의 절차를 기본으로 정리한 것이다.

### 1) 춘추 제향

#### 초집招集

제향의 시작은 서원 운영의 책임을 맡은 임원들이 모임을 가지면서부터 시작되는데, 서원에 따라서는 이를 초집이라고 한다. 옥산서원의 경우 춘향례는 음력 2월 초하루에 삭망례가 끝나면 바로 초집을 갖는다. 여기에서 앞으로 있을 향례를 진행할 헌관獻官 세 명과 대축大祝 한 명, 그리고 집례執禮 한 명 등 5명을 선정하고 이들에 대한 망지望紙를 작성한다.

망지는 행사에서 맡을 직책을 적은 종지로 망望이란 그 직책을 맡아주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겹봉에 이름과 사는 곳을 적고 뒷면 이음새에 근봉이라고 쓴 다음 서원 직인을 찍어 우편이나 인편으로 당사자에게 보낸다.

#### 제물 준비

서원의 살림을 담당하는 곳인 고직사庫直舍에서는 향례일을 계산하여 미리 제주祭酒를 담근다. 찹쌀과 멥쌀로 고두밥을 지어 술독에 넣고 여기에 엿물과 누룩을 넣어 저은 후 입구를 한지로 봉한 다음 ‘근봉謹封’이라고 쓰고 방안에 드어 발효시킨다.

제향 진행을 맡은 유사와 임원들은 2-3일 전에 미리 가까운 장에 가서 제수祭需를 장만한다. 제수에는 생牲, 폐幣, 밥, 대추, 포 등이 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것은 희생과 폐백이다.

#### 입재入齋

유사와 임원, 그리고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는 미리 서원 강당에 모이는

데 이를 입재入齋라 하고, 모인 이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누는 것을 개좌읍례開座揖禮라 한다. 읍례가 끝나면 향례에 참여할 집사를 정하고 각기 맡을 역할을 정하는데, 이를 집사분정執事分定이라고 한다. 입재 시기는 서원마다 다르다. 과거 교통이 불편하던 시절에는 어느 서원에서나 하루 전에는 모두 입재하였다. 그러나 교통편이 좋아지고 제향 시각을 새벽이 아닌 오전으로 옮긴 서원이 늘어나면서 유사와 임원 외에는 제향일 당일에 입재하는 곳이 많아졌다.

본래 향례는 축시丑時, 즉 새벽 한시 경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제관 이하 참사자參祀者들은 전날 오전에 서원으로 온다. 서원의 정문에서 의관을 갖추고 출입하는 서원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서원도 많다. 참사자는 시도록時到錄에 이름을 적고 초헌관을 찾아 예를 올린다.

### 성생례省牲禮

성생례는 감생례鑑牲禮, 또는 간품례看品禮이라고도 하며 희생으로 쓸 짐승의 상태를 검사하는 절차다. 희생의 중요함을 알리는 의례이기도 하다. 서원 정문 밖에서 예를 치르는데 삼헌관은 북향하고, 희생의 머리는 사당으로 향하게 한다. 유사가 희생의 상태를 살핀 후 초헌관에게 희생물로 올리기에 충분하는 뜻으로 충充이라고 하면 초헌관은 돌臚이라고 응답하는데, 이를 세 차례 한다. 그러나 희생을 통째로 올리지 않는 서원도 많아 이러한 예가 어디에나 있는 것은 아니다.

### 집사분정執事分定

분정은 미리 정한 삼헌관과 대축, 그리고 집례 이외의 역할을 맡을 집사들을 선출하는 과정이다. 분정 방식이나 절차 역시 서원마다 다르다. 분정된 집사들에게는 각기 역할을 알리고 그 내용을 적은 제향집사분정기祭享執事分定記를 강당 벽에 걸어놓는다. 대개 분정된 집사들은 헌관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다.

헌관獻官	3人(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대축大祝	1人
찬자贊者	1人
알자謁者	1人
찬인贊引	2人
진설陳設	2-3人
사준司罇	1人
봉향奉香	1人
봉로奉饌	1人
봉작奉爵	1人
전작奠爵	2人

### 사축寫祝

분정을 마치면 대축, 즉 축관은 헌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축문祝文을 작성한다. 사축이 끝나면 축관은 축문을 축관이나 축상에 받쳐 들고 사당 안으로 들어가 제상 아래 향탁 좌측 옆에 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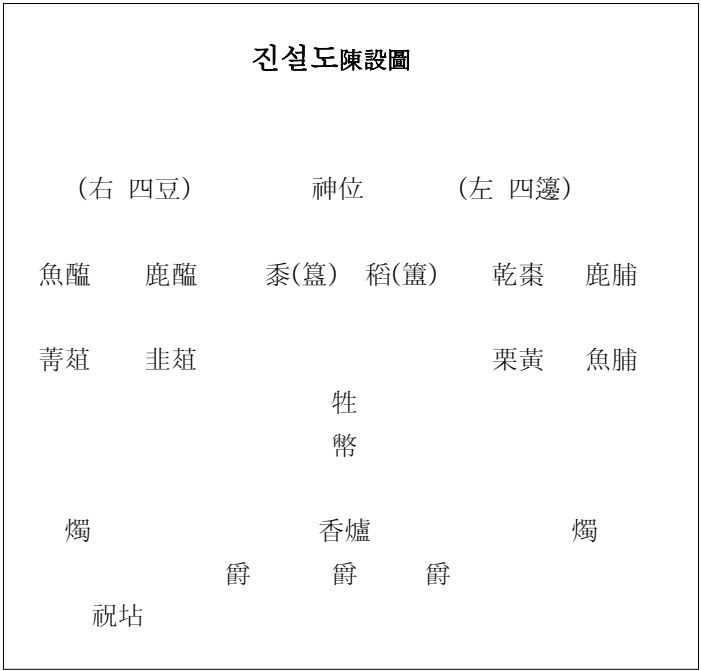
### 제수근봉祭需謹封

제관들은 제물과 희생을 사당으로 옮기고 전사청에서 보와 궤, 변과 두 등 각종 제기에 미리 손질한 제수를 담는다. 제기에 담은 제물이나 향, 축 등 기타 제수들은 더 이상 손이 타지 못하도록 근봉謹封이라고 써서 봉한다. 새벽에 제향을 올릴 경우 제수를 봉한 후 저녁 식사가 이어지는데, 이를 식상개좌食床開坐라고 하며 독상을 받는다.

### 진설陳設

교의交椅에 미리 생이 진설된 상태에서 신위를 중심으로 좌측에 변 4기, 우측에 두 4기를 놓은 후 술잔과 받침을 놓는다. 변에는 마른대추, 사슴포, 황물, 생선포 등 마른 제수를 놓고, 두에는 어해, 녹해, 미나리, 부추 등 젖은 제수를 놓는다.

다음은 옥산서원의 진설도陳設圖다.



### 상읍례相揖禮

앞서 언급한대로 근자에는 향례일 오전에 제향을 갖는 곳이 많지만 과거에는 새로 새벽 1시에 향례를 시작하는 곳이 많았다. 향례 시작 반시간 전에 모든 제관은 의관을 정제한다. 집사나 관리인은 그 시각에 사당문을 열고 교의 양쪽에 놓인 향축에 불을 밝힌다.

향례를 행하기에 앞서 헌관 이하 집사들은 강당에 모여 서서 상읍례를 행한다. 위판의 뚜껑을 여는 개독開櫝에 이어 집례(또는 집례가 재배를 하기 전까지 유사)가 다음과 같이 창을 하며 집례, 즉 예를 집행한다. 향례의 진행순서를 적은 것이 홀기笏記이고 홀기를 낭독하는 것을 창홀唱笏이라고 한다. 제관들은 다음과 같이 창홀에 따라 움직이며 맡은 임무를 행한다.

贊者引初獻官升自東階

찬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시오.

點視陳設

진설을 점검하시오.

祝開櫝

축은 위패의 독을 여시오. (찬자가 초헌관을 인도하여 올라와 진설한 것을 살핀 다음 대축이 개독, 즉 신위 독을 연다.)

贊者謁者贊引入就拜位

찬자와 알자, 찬인은 배위로 들어가시오

再拜

재배하시오

各就位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오.

贊引引學生入就拜位

찬인은 학생들을 인도하여 배위로 나오시오.

再拜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贊引引祝及諸執事入就拜位 再拜

축과 제 집사를 찬인의 인도를 받아 절하는 자리로 나아가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盥手帨手

손을 씻으시오.

各就位

각자 자리로 돌아가시오.

初獻官入就拜位

초헌관은 배위에 서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 분향례焚香禮

초헌관이 알자謁者の 도움을 받아 신위 앞에서 삼상향三上香, 즉 세 번 분향하는 분향례를 행한다.

謁者引初獻官詣盥洗位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관세위로 나아가시오.

盥手帨手

손을 씻으시오.

引詣神位前 跪

신위전에 나아가 꿇어앉으시오.

三上香

향을 세 번 피우시오.

### 전폐례奠幣禮

초헌관이 신위전에 폐백을 올리는 절차로, 대축이 채반 모양의 동그란 싸리받침에 폐백을 담아 초헌관에게 주면 초헌관은 폐백을 든 다음 다시 대축에게 준다. 대축은 폐백을 신위 앞에 놓는다.

祝以幣篚

축은 폐백을 초헌관에게 주시오..

獻官執幣以授祝

헌관은 폐를 들어 헌폐한 후 축에게 주시오.

祝奠于神位前

축은 폐를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俯伏興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 초헌례初獻禮

초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는 예다. 전폐례를 마치고 원래 자리로 내려간 초헌관은 알자의 인도에 따라 준소樽所로 올라와 동쪽편에서 서향을 향하고 선 다음 수작受爵을 지켜본 후 사당에 들어가 신위전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집사는 신위에 올릴 잔을 준소樽所에서 받아 초헌관에게 건넨 다음 다시 받아 신위전에 올린다.

謁者引初獻官詣樽所 西向立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司樽舉冪酌酒

사준은 먹(덮개)을 열고 술을 따르시오.

受酒

술을 받으시오.

以爵授獻官

작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爵

헌관은 작을 받으시오.

執事受爵奠于神位前

집사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俯伏興

헌관은 부복하였다가 일어나시오.

少退跪

조금 물러나 꿇어앉으시오.

祝進初獻官之左

축은 초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시오

開簠簋蓋

보와 궤의 덮개를 여시오.

### 독축讀祝

대축은 초헌관의 왼쪽에서 동쪽을 향해 꿇어앉아 보簠와 궤簋의 덮개가 열리면 축을 읽는다. 축을 읽을 때 참사자 모두가 부복하지만 초헌관만 무릎을 꿇고 있다가 부복하고 흥하라는 창에 맞추어 부복한 후 일어나는 곳도 있다.

俯伏興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옥산서원의 축문을 예로 들면 다음과 같다.

維歲次 某 年 某 月 某 干支 朔 某日 干支 後學 幼學 某姓名

敢昭告于

先師文元公晦齋先生伏以學問淵深道德高厚

東國攸宗歲享悠久屬茲仲春謹以清酌牲幣

用伸常薦 尙

饗

### 아헌례亞獻禮

아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는 예다. 아헌관은 알자의 인도를 받아 준소에 들렀다가 신위 앞에 이르면 꿇어앉고 집사가 건넌 잔을 신위 앞에 잠시 들었다가 집사에게 건네면 집사는 잔을 초헌잔 옆에 놓는다. 독축이 없는 것 말고는 초헌례와 같다.

謁者引亞獻官詣罇所

알자는 아헌관을 인도하여 준소로 나아가시오.

盥手帨手

손을 씻으시오.

引禮罇所 西向立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司罇舉罇酌酒

사준은 맥(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執事者以爵受酒

집사자는 작에 술을 받으시오.

跪

꿇어앉으시오.

以爵授獻官

작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爵

헌관은 작을 받드시오.

執事受爵 奠于神位前

집사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 종헌례終獻禮

종헌관이 신위전에 헌작하는 예다. 종헌례 방식은 앞서의 아헌례와 차이가 없다. 종헌례가 끝나고 종헌관이 자기 자리로 돌아가면 세 헌관은 함께 재배하여 삼헌례가 끝났음을 알린다.

盥手帨手

손을 씻으시오.

引禮罇所 西向立

준소로 나아가 서향하여 서시오.

司罇舉罇酌酒

사준은 맥(덧개)을 들고 술을 따르시오.

執事者以爵受酒

집사자는 작에 술을 받으시오.

引詣神位前

신위전에 나아가시오.

執事亦跪

집사는 꿇어앉으시오.

以爵授獻官

작을 헌관에게 드리시오.

獻官執爵

헌관은 작을 받드시오.

執事受爵 奠于神位前

집사는 작을 받아 신위전에 올리시오.

獻官俯伏興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獻官皆再拜

헌관은 모두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 음복례 飲福禮

초헌관이 대표로 신이 흠향한 술과 조육을 맛보는 예다. 음복수조례 飲福受胙禮라고도 한다. 음복과 수조로 진행되는 음복례는 준소에서 대축이 전달한 복주 福酒와 육포로 초헌관이 행한다.

謁者引初獻官詣飲福位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음복위로 나아가시오.

西向跪

서향하여 서시오.

祝詣罇所

축은 준소로 가시오.

以爵酌福酒

작에 복주를 따르시오.

進獻官之左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시오.

以爵授獻官

작을 헌관에게 주시오.

獻官受爵

헌관은 작을 받드시오.

飲卒爵

다 마시시오.

執事授虛爵

집사는 빈잔을 받으시오.

復於拈

원래 있던 자리에 두시오.

祝進減神位前胙肉

축은 신위전에 나아가 조육을 조금 덜어내시오.

獻官受胙

헌관은 조육을 받으시오.

以授執事

집사에게 주시오.



獻官俯伏興

헌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 철변두撤邊豆

실제 변두를 치우지 않고 축이 변과 두를 조금씩 움직여 예를 표한다.

獻官及學生皆再拜

헌관과 학생은 모두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 망료례望燎禮

축문을 구덩이에 묻거나 태워 넣는 예다. 축을 폐백과 함께 묻을 때는 망예례望壘禮라 하지만 묻지 않고 태우기 때문에 망료례라고 한다. 폐백은 태우지 않고 향례가 끝난 후 유사에게 준다. 망료례는 대축이 철변두, 즉 변과 두를 물리는 예를 한 다음 초헌관이 알자의 인도를 받아 행한다.

謁者引初獻官詣望燎位

알자는 초헌관을 인도하여 망료위로 나아가시오.

北向立

북향하여 서시오.

祝就祝(及幣)降自西階

대축은 축(과 폐백)을 들고 서계로 내려가시오.

燎於坎

구덩이에 넣고 태우시오.

謁者獻官引降復位

알자는 헌관을 제자리로 인도하시오.

### 향례의 마무리

음복례를 마치면 알자는 초헌관 왼쪽에 서서 예필禮畢이라고 말하고 3헌관과 참사자들을 인도하여 나간 다음 다시 돌아와 대축과 모든 집사들과 함께 재배하고 대축은 합독闔楨, 즉 주독을 닫는다.

謁者初獻官之左

알자는 초헌관의 왼편으로 나아가시오.

白禮畢

예필을 고하시오.

遂引初獻官出

초헌관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贊引各引獻官出

찬인은 각 헌관들을 인도하여 나가시오.

學生以次出

학생들은 차례로 나가시오.

謁者贊引還本位

알자와 찬인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시오.

祝及諸執事皆復拜位

대축과 제 집사는 모두 배위로 돌아가시오.

再拜

재배하시오. (대축 및 제 집사 재배 :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出

나가시오.

祝合禮

대축은 독을 단으시오.

옥산서원의 예처럼 집례 전에 유사가 예를 진행했을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유사가 재배를 올린다. 다음은 도산서원의 사례를 통해 향례일 아침의 행사에 대해 언급한다.

이번 제향이 잘 치러졌는지 점검하는 절차를 제공사祭公事라고 한다. 행사일 아침 일찍 대축과 집례는 동재東齋의 남벽南壁 밑에서 북쪽을 향하여 나란히 앉고 집사들은 동서로 서로 마주보고 앉으면 먼저 대축과 집례에게 전작奠酌하고 조사曹司가 좌정하면 집례는 행사行祀 때 실례失禮가 있었는지 자세히 문답한 다음 모두를 물러나게 하고 대축과 집례는 서로 마주보고 앉아 반성하고 다음에는 실례가 없도록 다짐한 후 파좌罷座한다.

제공사가 끝나면 모두 전교당에 개좌한 자리에서 재유사가 향약鄉約 약문約文을 읽는 독약讀約을 하고 음복례飲福禮에 들어간다. 음복상이 나오면 초헌관부터 순서대로 전작奠酌하고 좌읍례座揖禮를 행한 다음 일제히 음복한다.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 순서로 잔을 돌리기를 세 번 한 다음 서로 읍하고 파좌罷座한다.

## 2) 정알례와 삭망례

정알례正謁禮는 정초에 올리는 제사이고 삭망례朔望禮는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지내는 제사다. 옥산서원에서는 음력 정월 초5일에 정알례, 즉 정초알묘正初謁廟의 예식을 갖는다. 회재 이언적 선생에게 올리는 새해 첫 인사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알묘관은 유사가 맡는다.

정알례正謁禮

정알正謁을 위해 지역 유림들이 하루 전에 입재한다. 다음날 새벽 5시 경에 알묘례가 시작된다.

謁廟官以下 皆拜位

알묘관 이하 모두 배위로 나오시오.

引詣升自東階 香卓前

동쪽 계단으로 올라가 향탁 앞으로 나아가시오.

三上香

향을 세 번 피우시오.

謁廟官 俯伏興

알묘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諸執事 皆再拜

제집사는 모두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禮畢

예를 마치시오.

#### 삭망례朔望禮

매월 초하루와 보름에 행하는 분향례로 향알례, 또는 삭망알묘朔望謁廟라고도 한다. 다음날 새벽에 있을 삭망알묘를 위해 알묘관 등 제관들은 하루 전날 저녁에 입재한다. 다음날 새벽 6시경에 분향례가 시작된다.

謁廟官以下 皆拜位

알묘관이하 모두 배위로 나오시오.

詣盥洗位

관세위로 나아가시오.

盥水帨手

손을 씻으시오.

引詣升自東階

동쪽 계단으로 오르시오.

三上香

향을 세 번 피우시오.

謁廟官 俯伏興

알묘관은 엎드렸다가 일어나시오.

引降復位

자리로 돌아가시오.

皆再拜

모두 재배하시오. (鞠躬 - 拜 - 興 - 拜 - 興 - 平身の 창에 맞추어 재배한다.)

禮畢

예를 마치시오.

#### IV. 제향 의례로 다져지는 결속과 계승

어느 서원이나 제향을 행하기 전에 회의를 열어 진행을 맡을 제관祭官을 선정한다. 행사 당일 방문하는 사람들은 시도기時到記(요즈음의 방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 영구히 기록으로 남긴다. 제사가 시작되기 전, 즉 진설 전에 미리 제향 때 실수하는 일이 없도록 예행 연습을 하는 서원도 있다. 이를 습례習禮라고 한다. 제사가 끝나면 제관들은 모여 이번 행사가 예에 어긋남이 없이 격식에 맞고 정성을 다했는지 반성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 절차를 제공사祭公事, 제사공사祭祀公事, 제사공론祭祀公論 등으로 부르는데, 제향을 끝내고 모두 모인 자리에서 음복례를 행하기 전에 행한다. 이 절차를 생략하는 서원도 많다. 또한 도산서원의 예처럼 퇴계 선생이 지은 예안향약禮安鄉約 등을 낭독하는 강신례講信禮를 행하기도 한다.

향례는 차분하고 경건하게 천천히 진행된다. 제향인물이 1위인 경우는 1시간 이내에 다 끝나고 여럿인 경우는 그만큼 시간이 오래 걸린다. 향례를 마치고 새벽 2-3시경에 참사자들이 모두 모여 음식을 나누는데, 이를 음복개좌飲福開坐, 또는 그냥 음복례라고 하는데 향례 절차에 들어있는 음복수조례와는 다르다. 모든 향례절차를 마친 헌관 이하 모든 집사들은 강당에 모인다. 음복상飲福床이 나오면 초헌관부터 순서대로 전작奠爵하고 3헌관에게 무사히 제사를 치렀음을 보고하는 좌읍례座揖禮를 행한 다음 일제히 음복례를 행한다. 음복상에는 제향에 사용한 제주와 함께 포와 밤, 대추를 조금씩 놓는다.

참사자들은 잠시 눈을 붙인 후 오전 7시 경에 아침식사를 하고 치봉과 행자를 받아 집으로 돌아간다. 치봉은 봉치라고도 하고 바른말은 봉채封策로 예물을 의미한다. 치봉으로는 제사에 쓴 생을 넣고 행자로 귀가에 필요한 여비를 넣는다.

제향은 돌아가신 스승이나 위대한 인물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이 의식을 통해 제자나 후손들은 그들의 정신을 이어나갈 것을 다짐한다. 그뿐만 아니라 제향은 서로 간에 결속을 다지는 기회가 된다. 제향이 이어지는 한 스승의 정신과 서원의 전통 또한 함께 계승될 것이다.

사진 : 도산서원 전경. 강당인 전교당 뒤에 사묘인 상덕사가 있다. (『도산서원』, 2001, 한길사, 황헌만 사진)

사진 :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인 소수서원에 있는 문성공묘文成公廟 전경. 문성공 안향安珦은 고려후기에 최초로 성리학을 들여온 학자다. (『서원향사-소수서원·도산서원편』 31쪽, 2011년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 퇴계 이황의 위패(『서원향사-소수서원·도산서원편』 178쪽,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 성생례省牲禮 (『도산서원』, 2001, 한길사, 황헌만 사진)

도표 : 퇴도 이선생 진설도(『서원향사-소수서원·도산서원편』 242쪽,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진 : 분향례, 전폐례, 초헌례 (『도산서원』, 2001, 한길사, 황헌만 사진)

사진 : 예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점검하는 제사공사祭祀公事 모습 (『서원향사-소수서원·도산서원편』 101쪽, 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 <참고문헌>

『도산서원』(2001, 한길사, 황헌만 사진)

『서원향사-소수서원·도산서원편』(2011, 국립문화재연구소)

국립문화재연구소 <http://www.nrich.go.kr>

한국서원연합회 <http://www.seowonstay.com>

도산서원 <http://www.dosanseowon.com>

돈암서원 <http://www.donamseowon.com>

병산서원 <http://www.byeongsan.net>

## 제 4 발표 지정토론 1

### “한국서원의 제향의례”에 대한 토론 1

지 두 환  
국민대학교

#### 1. 제향 공간으로서의 서원의 전통

우리나라가 중국 송대의 백록동서원을 본받아 조선후기에 서원을 세웠다고 통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송대는 우리 고려전기에 해당되는데 중국 송대 서원과 우리 서원이 다른 점은 없는지. 차이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다음으로 같은 시대인 중국 명대나 청대에 있는 서원과 조선후기 우리의 서원이 다른 점이 있는지 있으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는 16세기 심학에 입각한 조선성리학이 정암 조광조부터 시작하여 퇴계 율곡을 통해 성립되면서 서원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선종이 발달하면서 법통이 강조되고 조사의 부도가 생기듯이, 조선성리학에서도 심학心學을 전수받는 도통이 강조되면서 서원이 발달하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에서 우리 서원의 특색을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합니다. 정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2. 제향 인물은 서원의 얼굴

서원의 사당에는 선현先賢, 즉 학문적으로 뛰어난 인물의 위판이 모셔져 있다. 한 분을 모시는 곳도 있지만 대개는 여러 분을 모신다.

선현으로 모시는 기준이 무엇인지 또 여러 분을 모시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 기준도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에 따라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떻게 달라지는지 궁금합니다.

남강서원에는 주자를 모시고 우암 송시열을 모셨는데 우리 선현만 모시는 곳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서원의 경제적 기반은 노비와 전답이라고 하셨는데, 사액을 내릴 때 국가에서 주는 일정액이 있었는지 아니면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내리는지 궁금합니다.

#### 3. 제향을 통해 다시 만나는 스승과 제자

제기나 제물에 제향절차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잘 정리해 놓아 질문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토론을 해야 한다면 몇가지 억지로 궁금한 점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우선 제기에 작勺이 있는데 용머리가 조각되어 있는 용작龍勺을 쓴다고 하셨습니다. 용은 천자가 쓰는 것인데 서원에서도 용작을 썼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종묘에서 쓰는 제기나 문묘에서 공자에게 지내는데 쓰는 제기와 크기나 무늬 모양 등에서 차이가 나는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절차에서 종묘는 사배를 하는데, 서원에서는 재배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격이 달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자를 모시는 문묘나 향교에서는 사배를 하는지 아니면 재배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 종묘도 주자가례를 따라 매실 작헌후 재배를 하다가 모든 실 작헌 후 총 배례에서 초헌 아헌 종헌을 한후 총배례로 바뀌면서 사배를 합니다. 이는 매실 작헌후 배례를 하려니 너무 번거러워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원은 한 분 배향 정도면 작헌후 재배를 해도 되는데 초헌 아헌 종헌을 다 한 후 총배례를 하는 것은 종묘 같은 국가의례를 본받아 그런 것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자가례를 따라 매실 작헌후 재배를 하지 않았을까도 추론을 해 봅니다.

정승모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문을 통해서 서원의 성격을 알 수 있지 않나해서 정 선생님께 제시한 옥산서원 축문과 남강서원 축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남강서원 축문은 도통이 많이 강조되어 있는데 옥산서원은 도덕고후道德高厚 동국유종東國攸宗 정도로 도학道學이 깊은 것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축문에서 남인 서원 노론 서원의 차이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정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와 더 추가해서 제수를 차리는데 노론 소론 남인이 차이가 있다고 얘기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차이가 있으면 몇가지 예를 들어 말씀해주시면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 제 4 발표 지정토론 2

### “한국서원의 제향의례”에 대한 토론 2

김 문 준  
건양대학교

정승모 박사님은 이 글에서 서원의 제향기능, 제향인물, 제향절차 등 한국 서원의 제향 의례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다루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첫째, ‘제향 공간으로서의 서원의 전통’에서 제향 기능을 증시한 서원 문화를 기술하였고, 둘째, ‘제향 인물은 서원의 얼굴’에서는 서원의 제향 인물과 서원 위상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셋째, ‘제향을 통해 다시 만나는 스승과 제자’에서는 제구祭具, 제물과 그 의미, 그리고 춘추 제향, 정알례, 삭망례 제향의 기본 절차를 기술하였으며, 마무리로 ‘제향 의례로 다져지는 결속과 계승’이라는 주제를 다룸으로써 한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서원 제향 의례의 시행 내용과 의의를 체계적으로 다루었다.

이 글은 서원 제향 의례에 관하여 전반적으로 잘 정리하였으며, 따로 지적하여 논할 사항이 없다. 이에 앞으로 서원 문화를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연구하고 기술해야 할 내용과 방향에 관하여 생각해 보고자 한다.

앞으로, 한국 서원의 제향 의례에 관한 사실을 여러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면 한국 서원 제향 의례에 관하여 더욱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중국 서원과 한국 서원의 제향 의례의 같은 점과 차이점, 향교 제향과 서원 제향의 같은 점과 차이점, 서원 제향과 가정 제향의 같은 점과 차이점, 지역과 당색에 따른 제향 방법의 같은 점과 다른 점 등 다 각도로 제향 절차와 제수 진설 등을 비교하여 고찰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

이에 관하여 차후 연구를 위한 검토 사항을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된다.

첫째, 중국 서원과 한국 서원의 제향 방식에 차이가 있는가?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한국 서원과 중국 서원의 발전 과정은 약간 구별된다. 대체로 장서藏書, 강학講學의 필요에 의해 건립되어 후에 제향 기능을 추가하여 발전한 중국의 대표적인 서원들의 발전 과정과는 달리, 한국 서원은 대개 먼저 제향 기능을 행하는 사우祠宇에서 시작되어 강학과 장서 기능을 더하여 확대되어간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한국 서원은 선현先賢 봉사奉祀에 중점을 두어 더욱 정성과 공경이 깃든 행사로 제향을 거행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둘째, 지역이나 당색에 따른 서원 제향의 차이이다. 지역의 각 서원 마다 홀기, 제수 등이 차이가 있는데, 그러한 차이는 무엇 때문인가? 하는 점이다. 정승모 박사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조선 후기 유림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졌던 이는 퇴계 이황과 우암 송시열이며, 전국에 그들을 모시는 서원이 가장 많다. 두 사람은 각각 남인과 노론을 대표하는 중심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제향하는 서원은 전자는 남인의 본거지인 경상도에, 후자는 노론의 본거지인 충청도에 집중되어 있지만,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에 당색이나 지역에 따른



제향 방법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는 좋은 예이며, 이들 서원의 홀기와 제수 등 제향 방법을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

또한 사당 제사와 가례에 따른 가정 제사는 제향 방식이 다르다. 예를 들어 서원 향교의 제향은 제물을 기본적으로 날 것 그대로 쓰지만, 집안 제사는 익힌 제물을 쓴다. 날 것을 사용하거나, 조리한 제수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서원 향교에서 올리는 제기祭器는 보례簠簋, 변두籩豆, 작爵 등을 사용하고, 가정 제사는 일반 제기를 쓰는 이유는 무엇인가? 성리학을 도입하기 시작한 고려말 송대宋代의 <가례家禮> 도입 이후 가정 제사가 달라졌다면, 송대 유학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모색한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정승모 박사님의 글을 읽으며 생각나는 점들을 두서 없이 적어 보았다. 이러한 점들을 앞으로 정리하여 추가해 간다면 한국 서원 제향의 특징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 종합토론 MEMO

## 서원의 교육(강학)과 제향의례

사회: 이 해 준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white paper with horizontal dotted lines, typical of primary school handwriting practice paper. The lines are evenly spaced and run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There are no margins, text, or other markings present.

This image shows a full page of a handwriting practice worksheet. It consists of numerous horizontal rows, each defined by two parallel dotted lines. The rows are evenly spaced and extend across the entire width of the page, providing a guide for letter height and placement. There is no text or other markings on the pag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